



12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12호

(루계 578)



## ◆◆◆◆◆◆◆◆◆◆ 차 례 ◆◆◆◆◆◆◆◆◆◆

조국과 동지 .....	4
영생의 모습 우리러 .....	5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창조의 불멸의 가치 .....	6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네 .....	10
인민행렬차 .....	11
시내가에서 찾은 유물 .....	16
그냥 가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	18
수령님과 함께 오셨다 .....	19
동행자의 궁지 .....	21
또 한편의 서시시가 전하는 이야기 .....	22
인민이 웃어야 웃으신다 .....	24
오산덕기슭의 작은 초가집 .....	25
영광을 드리노라 어머니 우리 당에 .....	26
위대하여라 불멸의 탑이여 .....	27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	28
명제해설 .....	29
은정의 메아리 .....	30
내 마음 언제나 당을 위해 .....	38

누리에 올려퍼지는 신념의 찬가 .....	39
혁명과 총 .....	42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	43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것 같은 노래 .....	43
90 년대의 《적기가》로 높이 부르며 .....	44
대지동 어머니 .....	45
오늘도 그날처럼 .....	50
우리 행복을 두고 .....	52
산촌풍경 .....	53
빛나는 구간 .....	54
우리의 소원 .....	60
밭고랑 .....	69
잊지 못할 그날을 안고 .....	70
너를 사랑한다 .....	71
대지의 삶, 대지의 노래 .....	72
나는 오월이다 .....	77
갈망 (외 1 편) .....	78
절박한 통일 .....	78
동지 .....	79
이해의 마지막 밤에 .....	80

# 조국과 동지

김종백

세계지도를 보면  
크지 않게 표시된 우리 조국  
그러나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구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동지라 부르며 받들고 따르는  
우리 동지들의 그 수가  
조국땅의 크기를 말해주어

품은 뜻도 하나  
결음도 한결음으로  
서로들 자신처럼 알고 믿으며  
혁명의 한길을 가는  
우리 동지들

나는 동지를 어디서 얻게 되었던가  
주먹밥 한덩이를  
분대가 돌려가며 배불리 먹고도  
정찰간 전우를 위해 남긴것이 아직 무겁던  
싸움의 날 그 전호에서...

한치의 조국땅을 지키려  
청춘의 가슴 불뿔는 적화구앞에 내댜 영웅  
그를 기다리는 고향의 어머니에게  
저저마다 아들이 되어 가겠노라고  
그 맹세로 불타던 달밤의 고지에서...

동지가 무엇인가를  
나는 어떻게 알게 되었던가  
부상당한 나에게 피를 나누어주고  
열에 뜬 머리말을 지켜주던 전우들  
그때 나의 눈에는  
고향집 인자한 어머니 얼굴이  
열이 되고 스물이 되어 보여왔거니  
그것이였다  
그것은 어머니조국의 모습이였다

동지 그 이름을 부르면  
먼저 떠오르는 조국의 모습  
나는 알았더라

어머니 없는곳에 어머니가 되어주고  
고향집이 없는곳에 고향집이 되어준  
우리 동지들  
그 이름이 모이고 합쳐지고 굳게 뭉치여  
조국이란 커다란 이름이 되었음을  
그래서 동지가 없는 조국은 생각할수 없음을

더 많은 동지를 얻기 위해  
우리 불비속을 뚫고 전선길을 걸었다  
건설장의 큰 가마밥을 먹으며  
우리는 새 거리 새 공장을 일으켜세웠다

우리 집 막내가 입당을 하고왔을 때  
나는 힘껏 안아주었다  
또 하나의 동지를 얻은것이 기뻐서  
이렇게 우리 동지들이 늘어갈 때  
내가 딛고선 조국땅이  
우썽우썽 커가는 소리 들려왔거니

자랑스러워라  
낮선 산길,변화한 거리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동지들임에  
소중하여라 그 하나하나가  
그를 버리면  
크나큰 조국을 잃게 되기에

방선의 초소와 들끓는 건설장  
풍년들판과 배고동소리 정다운 항구  
가까이에도 멀리에서도  
국경을 넘어 이름모를곳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김정일**장군님의령도를 따르는 혁명의 한길에서  
날마다 들어가는 우리 동지들

우리는 그것으로  
주체조국의 경로를 빛내가고있거니  
불패의 강국으로 다져지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어!

# 영생의 모습 우러러

(총련) 류계윤

오고싶었습니다  
꿈결에도 그리웠습니다  
아버이수령님

뵈고싶었습니다  
하루빨리 뵈고싶었습니다  
아버이수령님

스무해전  
어머니조국에 잘 왔다고  
사진도 함께 찍어주시며  
손목시계까지 손수 채워주신 수령님  
그 품이 그리워  
그때의 이름없는 녀교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도 뵈고싶던  
영생의 모습앞에 서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  
보이질 않습니다

아뢰일 말도 많은데  
목이 콧 메어  
한마디 말씀도 올릴수가 없습니다

허나 눈물속에 안겨웁니다  
스무해전과 꼭 같으신  
태양의 영상이  
아, 들려웁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달래여주시는 우렁우렁한 그 음성이

비바람 사나운 이국땅에서도  
혁명의 꽃 계속 피우라고

저를 교단에 세워주시고  
중학생이던 저의 딸까지도  
설맞이 꽃무대에서  
아버이수령님께 꽃다발 드리는  
최상의 영광 안겨주시었으니

그 믿음 너무도 크고  
그 사랑 너무나도 뜨거워  
오늘은 딸과 함께  
총성의 교단에 선 저희들입니다

수령님의 사랑어린 손목시계의 초침소리  
언제나 뜨거운 숨결로  
저의 심장에 이어놓고 살았기에  
교원혁명가로 서른해를  
곳곳이 걸어올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수령님의 높은 뜻을 다 받들었다 하리까  
생전에 더 큰 기쁨을 올리지 못하고  
효성을 다하지 못한 그 아픈 마음  
자꾸 눈물로 쏟아집니다

아, 저희들은 이제 슬픔의 눈물 걷으렵니다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이 서계십니다  
수령님께 못다바친 충성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바치며  
애국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가렵니다

천세만세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로  
더 억세게 키워가렵니다

#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창조의 불멸의 기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발표 45 돛을 맞으며-

은종섭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력사는 노래와 함께 시작되고 노래와 함께 승리해온 력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위업이 개척되고 전진해오는 전과정에 언제나 혁명과 함께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승리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시기부터 문학예술을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보시고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장구한 조선혁명발전의 전기간 언제나 문학예술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준엄한 시기일수록 문학예술에 더 큰 힘을 넣어 사람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안겨주시고 혁명적투지를 북돋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당과 국가, 군사의 전반사업을 몸소 이끌어나가시는 그 상상할수 없이 분당한 속에서도 여러차례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여 전시 문학예술이 나아가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문학예술창작에서 제기되는 사상미학적문제들에 몸소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950년 겨울은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중에서도 가장 엄혹한 시기였다. 이때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조직지도하시고 전원회의가 끝난 다음날로(1950년 12월 24일)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날 작가, 예술인들과 하신 담화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제국주의자들과 판가리싸움을 벌리는 가렬한 결전의 시기 우리 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를 명시한 불후의 고전적로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먼저 당시 우리나라에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를 분석해주시고 작가, 예술인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였으며 전쟁의 승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의 주체적력량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 승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선 임무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문학예술의 임무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

작가들의 무기는 붓입니다. 작가들은 훌륭한 작품을 많이 써서 인민들속에서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높이고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불라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며 인민들을 원수를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전체 인민들이 미제와 판가리싸움을 벌리는 결전의 시기 문학예술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전쟁승리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는 투사가 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작가들의 무기가 붓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작가들의 지위,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작가들의 사명과 임무에 대한 심오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작가들은 문학활동을 통하여 전쟁승리에 이바지해야 할 인간정신의 기사들이며 어떤 환경에서나 붓을 무기로 삼고 창작으로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훌륭한 작품을 써서 인민들을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는것이 작가들의 본분이고 기본임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작가들에게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을 안겨주고 혁명적인 창작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작가들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요구에 맞게 붓을 더욱 날카롭게 버리고 전선용사들과 한 전호에 선 자세로 전투적으로 창작할 결의를 굳게 다졌다.

그러면 붓으로 무엇을 어떻게 쓸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작의 다음 부분에서 이 시기 우리 문학이 힘을 넣어야 할 창작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로작에서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과 죄행을 폭로규탄하며 우리 인민들속에서 미제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높여주는 작품을 많이 쓸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람의 탈을 쓴 승냥이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는것은 미제와 치렬한 격전을 벌리고있는 준엄한 전쟁시기 우리 문학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였다. 더우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이르는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제의 치떨리는 만행은 우리 인민과 전세계인민들속에서 극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모든 작가들은 이 귀축같은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려는 치솟는 열망과 작가적사명감으로 심장이 불타고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창작으로 실현하는 문제는 아직 우리 문학에서 청소한 분야였다. 미제의 만행을 폭로규탄하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제기되는 사상미학적문제들에 해답을 주는것은 우리 문학의 시대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조국해방전쟁과 우리 문학의 현실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시여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을 주요한 창작과제로 전면에 제기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요구들에 대하여 심오하고 명백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나타난 사실들만을 폭로할 것이 아니라 그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본성을 폭로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미제가 저지른 야만행위는 어떤 개별적인 악한들이나 몇몇 호전분자들의 야수적기질에 의한것이 아니라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적본성의 발로이며 제국주의자들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포악하고 추악한 현대의 야만인 미제국주의자들의 본질적특성에 기인한것이였다.

그러므로 미제의 만행을 다루는데서는 나타난 사실만을 그럴것이 아니라 미제승냥이들의 본성인 교활성과 악랄성, 포악성과 야만성을 밝히고 폭로규탄하는데 형상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것은 미제에 대한 적개심과 반미투쟁정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이 주제창작의 근본요구이며 생활을 본질적측면에서 진실하게 그리는것을 생명으로 하는 주제사실주의적문학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오늘 조국해방전쟁에서 나타난 사실뿐아니라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저지른 야수적만행을 철저히 폭로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고 그 구체적내용을 밝혀주시였다.

미제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위치와 금은보화를 탐내어 오래전부터 침략적야망을 품어왔으며 19세기중엽에 벌써 침략선 《샤만》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켰다. 그후 오늘(조국해방전쟁당시)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과 약탈행위는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미제는 이 기간에 조선을 틀어쥐기 위하여 갖은 교활한 방법과 수단을 다 썼을뿐아니라 조선사람들에게 악착스러운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지난날 선교사의 탈을 쓰고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던 미제승냥이놈이 조선의 한 어린이가 사과밭에서 떨어진 사과 한알을 주었다고 하여 그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제는 일제의 패망을 우리 나라에 대한 오랜 침략야망을 실현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고 해방후 남조선에 기여들어 인민들이 세운 인민위원회를 총칼로 해산하고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학살하였으며 저들의 앞잡이들로 피뢰 《정부》를 조작하고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또다시 식민지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공화국정부의 거듭되는 평화적조국통일제의를 모조리 거부하고 리승만피뢰도당을 부추겨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인민군대의 단호한 반격으로 전쟁첫날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게 되자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야욕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유엔군》의 간판밑에 15개추종국가무력까지 동원하여가지고 무력간섭을 발발적으로 확대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국제법의 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도시와 농촌, 학교와 병원을 무차별폭격하고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조선에서 저지른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은 인류력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죄악으로 된다.

작가들은 근 한세기에 달하는 침략사에 새겨진 구체적인 사실을 소재로 하여 미제의 야수적본성과 죄행을 려사적으로 폭로하는 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미제의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본성을 적라라하게 밝혀내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라는것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놈들에 대한 불붙는 적개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키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문학예술창작사업을 소설과 연극, 영화와 수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들을 다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널리 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죄행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죄행을 폭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 시기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로 나가면서 재무장되고있었으며 침략야욕을 또다시 이루어보려고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제사회계에서는 패망한 일본반동들의 재생재침의 위협

성에 대하여 응당한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국주의로 나가는 일본반동들의 동향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그에 경각성을 높이도록 경종을 울리시였으며 우리 작가들에게 반일주체의 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킬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미제와 결사전을 벌리는 준엄한 시기 지난날 일제가 감행한 죄행을 널리 폭로하여 인민들을 반일투쟁의식으로 무장시킬데 대한 이러한 사상은 참으로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의 통찰력을 지니시고 미제를 등에 업고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꾀하는 일본군국주의의 검은 속심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하실 수 있는 사상으로서 우리 혁명에서 그리고 우리 문학의 혁명적사명을 다하는데서 참으로 귀중한 의의를 가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업도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조국해방전쟁 첫단계에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렸으며 추종국가무력까지 동원하여 전쟁을 대대적으로 확대해나선 미제와 맞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이 시기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무한한 경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구체적으로 세상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업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신문, 방송과 함께 시와 소설, 실화문학, 영화를 비롯한 문학예술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생동한 모습으로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자부심을 더욱 높이고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작품을 통하여 미제는 반드시 멸망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인민들에게 똑똑히 인식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러한 주제의 작품은 전체인민들이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용감하게 싸워나가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작의 마감부분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할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전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총을 맞대고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처럼 잘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술이 인민들과 함께 싸우는 예술, 조국을 위한 예술,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예술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이 인민들과 함께 싸우는 문학예술,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작가, 예술인들 자신이 혁명가, 영웅적인 투사로 되어야 하며 미제와 총을 맞대고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처럼 전투적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 자신이 혁명가, 투사가 되지 않고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을 창작할수 없는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원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작가, 예술인들은 전쟁의 어렵고 복잡한 매일수룩 학습을 더 잘해야 하며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혁명에 더욱 충실히 복무하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아야 하며 모든 면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며 조국해방전쟁승리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에 접한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 높은 충성의 열정을 안고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미제의 야수적 본성과 만행을 폭로규탄할데 대한 과업은 이 시기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다 실현되였다.

인민군대의 대중적영웅주의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도 미제의 악귀같은 만행에 관한 문제는 영웅적 성격의 계급적기초를 밝히는데 복종되면서 전개된 화폭으로 형상되었으며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에서도 미제의 치떨리는 만행에 대한 묘사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향토를 지켜싸운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에서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을 닦치는대로 학살한 미제의 야수적만행과 승냥이적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는 내용이 주요한 형상과제의 하나로 내세워졌다. 중편소설《싸우는 마을사람들》(1953. 천세봉)과 장막희곡《탄광사람들》(1951. 한봉식)은 그 대표적작품이다.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세기적숙망이던 땅의 주인으로 되고 인간적존엄과 행복을 맞본 우리 농민들이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을 때 이 모든것을 앗으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웠으며 이 과정에 어떻게 사상정신적으로 새롭게 성장하는가 하는것을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에서는 마을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소와 정미기계를 감춘곳과 리일군들이 가있는곳을 대지않는다고 마을사람들을 차레차레 쏘아죽이고 불태워죽이는 치명리는 만행을 전개된 이야기속에서 생동한 묘사로 보여주고있으며 미제침략군장교 존의 형상을 통하여 이러한 극악무도한 살륙행위는 인간중오사상으로 길들여진 미제침략군의 본성의 발로임을 예리하게 밝히고있다.

미제의 야수성을 폭로단죄하는것을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형상한 작품들도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작가들은 미제의 죄행을 다양한 문학예술형식들을 통하여 폭로단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예술적탐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시, 소설, 희곡, 실화문학 등 여러 형태들에서 특색있는 성과작들을 내놓았다.

시문학에서는 미제의 추악성과 야만성을 풍자적으로 폭로규탄한 풍자시작품들이 창작된것이 특징적인 성과로 두드러졌다.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1951.), 《월가의 관병식》(1952.) 등 백인준의 풍자시들이 여기에서 주목을 끌었다.

소설문학에서는 단편소설 《승냥이》(1951. 한철야)가 나왔다.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날 미제가 선교사의 탈을 쓰고 기여들어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짐승도 낫을 불힐 야수적만행을 저지르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사상을 그대로 구현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소설은 외양간오물통에서 고무공을 주운 조선소년 수길이를 공 흠친 도적으로 몰아 무섭게 구타하여 중태에 빠뜨리며 저들의 죄상이 드러날 위구를 느끼게 되자 소년을 교회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전염병으로 몰아 독살해버리는 미국 《선교사》와 《의사》의 형상을 통하여 양가죽을 쓴 승냥이로서의 미제의 진면모와 죄행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또한 미제의 죄행을 역사적으로 폭로규탄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장막희곡 《강화도》(5막7장 1953. 송영)와 같은 성과작이 나왔다.

이 작품은 역사에 《신미양요》로 알려진 1871년 미제의 강화도침입사건을 극적화폭에 재현하면서 우리 인민의 견결한 반미투쟁정신을 보여주고있으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오랜 침략기와 야망을 폭로하고 미제야말로 후안무치하고 야수

적인 날강도무리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임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작품을 쓸데 대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소설가 리기영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의 반일투쟁력사를 폭넓게 반영한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두만강》을 구상하고 자료작업을 한 다음 집필을 시작하였다.

시인 조기천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작품을 써야겠다고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창조적탐구를 심화시켜 시 《조선은 싸운다》를 내놓았다.

시인은 세계의 진보적인류를 싸우는 조선지도 앞으로 불러내고 먼저 그들앞에 도시도, 마을도 모든것이 재더미로 변하고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이 타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인 다음 그 엄혹한 정황속에서도 불사신처럼 살며 싸우는 영웅적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생명도 청춘도 사랑도 모든것을 조국에 바쳐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의 무비의 대종적영웅주의와 불멸의 위훈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시는 제국주의와 맞서 결사전을 벌리는 조선전쟁의 전세계사적의의를 궁지높이 밝히면서 싸우는 조선의 이름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반제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이 시는 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내리막길에 몰아넣은 영웅조선의 불굴의 정신과 기상을 높은 혁명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노래한 작품으로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시문학이 거둔 가장 귀중한 성과작의 하나로 되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미제와 맞서 판가리싸움을 하는 인민군용사들처럼 전투적으로 살며 창작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을 영웅적투쟁으로 고무하는 혁명적인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창조의 지침일뿐아니라 주체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창조의 불멸의 강령으로, 기치로 된다.

특히 미제와 일제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과 야수적 죄행을 폭로규탄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리론은 계급교양주제의 작품, 반미반일투쟁의식을 키우기 위한데 지향된 문예작품창조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으로 된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이후에도 우리 문학예술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죄행을 폭로규탄하는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1960. 백인준)와 장편소설 《성벽에 비친 불길》(1983. 박태민), 《불우한 련사》(1988. 림종상), 영화문

학 《잊지 말라 파주를》(1957. 집체작), 《최학신의 일가》(1966. 백인준), 장막희곡 《침략선〈사만〉호》(1963. 리동춘)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죄행을 폭로규탄하는데 바쳐진 작품들이다.

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는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우리 녀성에게 가한 만행을 소재로 하여 《문명》의 탈을 쓴 미제의 야만적정체를 폭로 규탄한 작품이다. 시인은 미제침략자들이 조선녀성을 벌거벗기고 온몸에 뺨끼를 칠해 거리로 내몰았지만 이것으로 하여 인류의 량심앞에 진자 벌거벗은것은 미제자신이라는것을 예리하게 적발 풍자하고 있으며 추악한 제국주의의 썩은 몸뚱아리를 스스로 드러내놓은 이 《라체의 왕국》, 인류의 문화와 량심에 대한 이 흉악한 도전자들을 조선의 밖으로 지구의 밖으로 내몰것을 절규하고 있다.

영화문학 《잊지 말라 파주를》은 경기도 파주 땅에서 실지 있었던 사실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서 백주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온 마을을 불바다, 피바다로 만든 미제침략군의 귀족같은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일본침략자들의 본성과 죄행을 력사적으로 폭로 규탄한 작품들도 많이 나왔다.

장편소설들인 《두만강》(1, 2, 3부 1954-1962. 리기영), 《서산대사》(1956. 최명익), 《높새바람》(상, 하 1983-1990. 홍석중), 《울릉도》(1990. 리성덕)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계급교양 특히 반제교양 주

제의 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우리 혁명을 압살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때로는 군사적위협을 전면에 내세우고 광란적인 소동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와 《화해》의 보자기를 앞에 걸고 교활하게 접어들기도 하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고 우리 나라를 가로타고앉으려는 미제와 일제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전체 인민들이 미제와 일제에게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해나가는 혁명정신을 지니도록 하는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나라없는 설음도,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현실에서 계급교양, 반제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고있다. 모든 청년들을 계급의식, 사회주의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깊이 명심하고 혁명의 요구,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과 청소년들속에서 계급의식, 반제투쟁의식을 높이기 위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할것이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아이자이아 쿼오 모리슨

죽음의 마수  
우리를 덮칠 때에도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우리과 함께 계시네

강탈 파괴 살인의 위협이  
우리를 노릴 때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과 함께 계시어  
우리 무서움 모르네

사나운 광풍  
몰아칠 때에도  
우리의 영명한 항도성  
**김정일** 동지  
우리과 함께 계시네

전설적위인이신  
찬란한 태양

**김정일** 동지  
우리과 함께 계시네  
우리과 함께 계시네

우리모두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슬픔  
심장마다에 가득차있을 때에도  
인류의 희망이신  
**김정일** 동지  
우리과 함께 계시네

주체위업의 계승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우리과 함께 계시어  
검은 마귀들 제아무리 앞길 막아도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리

(필자는 가나시인임)

## 인민행렬차

안홍운

1994년 9월초현재 연백벌실태를 보고드립니다.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집무실에서 록화테프가 돌아가고있다.

화면에서 제명이 사라지더니 황금파도 일렁이는 무연한 벌판이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서해곡창의 3개군을 포괄하는 벼바다, 연백벌전경이다.

드넓은 벌판에 점점이 널린 야산들과 구릉들이 원무를 하듯 빙글빙글 돌면서 흘러가고 이따금 둔덕의 강냉이밭들과 만가울의 울긋불긋한 과수원들이 언뜻언뜻 지나간다.

벼바다위를 너울너울 날아가는 백학들, 저 멀리 서해바다우에서 마치 회오리바람에 불려오른 락엽들마냥 마구 엉키여 돌아가는 갈매기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집무실에서 록화물을 보고계시였다. 흔히 입으시던 잠바대신 검은색의 단긴 양복차림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날로부터 두달, 그 사이에 마치 10여년의 난파를 헤쳐오신듯 그이의 얼굴은 몹시도 수척해지시였다.

《박동무, 가서 눈을 좀 붙이오.》

장군님께서 벽가의 소파에 앉아있는 또 한명의 시청자인 부관에게 이르는 말씀이였다.

박춘식을 시청자로 보기는 좀 곤란하다, 록화물에는 별로 눈길을 돌리지 않기때문이다, 게다가 자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품이 어딘가 초조하고 지어 편안치 않는 기색이다...

방금전 장군님께서서는 새 로작원고를 추고하고 계시였다.

조선에서 청천벽력의 국상을 당한것은 7월초순이었으며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세상에 발표된것은 11월초로서 약 4개월간의 시간적길이를 가진다.

이 기간에 조선인민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는 지상천하의 대비극속에서도 2년여에 걸친 조미회담의 치열한 외교전을 승리적으로 일단락지음으로써 세상을 다시한번 크게 놀래웠다.

무시로 가슴에이는 비애와 국내외의 천만가지 대소사가 분초를 다투는 정황속에서 최대의 정신적안정과 집중적인 사색을 요하는 고도의 탐구작

업, 로작집필이 동반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세상은 로작의 과학적진리성을 두고 탄복하기에 앞서 조선의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그 불굴의 의지와 적들의 류레없는 《핵소동》과 같은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끄떡않는 담력을 두고 더 크게 경탄할것이다.

상두대우의 록음기에서는 비장한 선율이 흘러나오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하여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새 노래다.

원고를 더듬어나가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아래의 문구에 이르러 거듭거듭 되새겨보고계시였다.

《사회주의정치지도자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녀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정치가 본질에 있어서 인덕정치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문이 열리면서 박춘식이 들어왔다. 다부진 몸매에 준수하면서도 강단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그도 검은색 양복차림이다.

장군님앞으로 다가온 박춘식은 그이의 사색에 방해될세라 두툼한 문건들을 책상우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무슨 문건들이요?》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원고를 훑어보시면서 물으시였다.

《외교부에서 올린 문건입니다. 이달 10일 평양에서 열리는 련락사무소설치와 관련한 조미전문가급협상과 베를린에서 열리는 경수로제공 및 보상문제와 관련한 조미전문가급협상에서 우리가 제기할 실무적방안입니다.》

《낮에 해당 일군들을 불러주시오. 그때 검토하면서 결론하겠소. 또 뭐요?》

록음기가 잠잠해졌다.

장군님께서서는 록음기아래에 놓여있던 가사용지를 들어다 원고우에 덧놓으시고 무엇인가 찾으시는듯 재빨리 글줄들을 훑어나가시였다. 그런즉 그이께서는 동시에 두가지일만 하고계신것이 아니였다.

마침내 그이께서는 가사의 한구절을 찾아 고쳐놓으시고는 그 아래공백에 《이렇게 부르는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토론했보시오.》라고 적어넣

으신 다음 웃공백에 활달하게 필을 달리시였다.

《창작가동지들에게.

가사도 좋고 곡도 좋습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을 잘 반영하였습니다.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정일.**》

물론 친필로 쓰시는것도 박춘식의 보고청취와 동반되였다.

박춘식은 록화테프 한개를 문건들우에 올려놓으며 말씀올리였다.

《이것은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장동무가 올린 연백별실태자료입니다.》

《내가 연백별에 내려보냈던 그 부위원장장동무말이요?》

《예. 연백별실태를 록화해왔습니다.》

《그거 잘했소. 돌려봅시다.》

박춘식은 손목시계를 보고나서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새벽 4시가 다 돼옵니다. 이 록화보고는 50분짜리라고 합니다. 긴급한것도 아닌것만큼...》

《어서 돌려보오. 기다리던 자료요.》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장군님께서는 원고에 가필하시던 필을 놓으시고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무력부장동무입니까? 왜 아직 쉬지 않습니까? 지금 어데 있습니까?...》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그만큼 신신당부했는데 왜 또 나왔습니까? 섭섭합니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하시면서 한손으로는 박춘식에게 록화기를 거둬들여 가리키시였다. 록화테프를 빨리 돌려라는 뜻이시였다.

박춘식은 하는수 없이 구석에 놓인 록화기앞으로 다가갔다.

그이의 전화는 계속되였다.

《그런데 왜 전화합니까?... 미군과 남조선피뢰군의 〈을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이 점점 심상치 않아진다?...》

그러니 우리도 경계태세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까?...》

그이의 안광에서 불이 번쩍하였다.

《아니, 우리 전사들이 신발을 벗고 다리를 쭉 펴고 자게 하시오! 나는 우리의 지휘관동지들과 병사들을 굳게 믿습니다.》

그이의 눈빛은 다시 온화해지시였다.

《그리고 무력부장동무는 곧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매일 임의의 시간에 병원을 찾겠습니다. 그때에 무력부장동무를 보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송수화기를 놓으시는 순간 박춘식은 마치 거센 자석에 이끌려오듯 집무탁앞으로 다가왔다.

《지도자동지! 한두시간만이라도 좀 쉬여주십시오. 록화자료는 그후에...》

장군님께서는 박춘식의 수척해진 얼굴을 몰끄러미 올려다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눈을 좀 붙여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박동무요.》

그이께서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밤새 찌뿌둥해있던 하늘이 끝내 비를 뿌리고있었다. 정원의 외등불빛속에는 부실부실 내리는 비발이 은실처럼 드리워져있었다.

초가을새벽의 그 차거운 《은실》들을 잠시 내다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다시 집무탁으로 돌아오시더니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시였다.

《지금도 수령님동상아래에서 호상서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새벽 두시경부터 수백명이 더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속에는 예닐곱살짜리들까지 대여섯이나 있단 말입니까? 저 찬비속에서...》

그이께서는 비애의 파도가 굽이치던 만수대의 낮과 밤들을 상기하시면서 격한 음성으로 통화자에게 이리시였다.

《안되겠습니까. 그 어린것들까지 찬비를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잘 타일러서 집으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가기는커녕 우산을 주어도 도리머리들을 해서 사람들을 더 울린단 말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신채 비내리는 창밖을 이윽도록 내다보시였다.

박춘식은 불안해졌다. 그 불안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장군님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며 불빛이 하늘을 찌르는 만수대쪽을 창너머로 이윽히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 금시라도 만수대언덕에 나가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실것 같아 박춘식은 마음을 조이였다.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피눈물의 그날로부터 두달이 되도록 언제한번 눈을 제대로 붙여보지 못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어제밤에도 금수산의사당을 기념궁전으로 꾸리는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함께 현지에서 아침해를 맞이하신 그이이시였다.

《지도자동지! 부탁입니다. 오늘만은 한시간만이라도 눈을 좀...》

장군님께서는 난처한 기색을 지으셨다.

《박동무, 좀 생각해보오. 내가 눈을 감은들 잠이 오겠소?》

박춘식은 눈길을 떨구었다. 바재이던 그는 하  
는수 없이 록화기의 스위치를 넣었다. 그리고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어느덧 4시였다. 그는 그만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록화테프는 씹없이 돌아갔다.

잠시후 연백별전경이 지나가자 저 멀리 꽃밭이  
다가온다. 도로의 양옆에 펼쳐진 길다란 꽃밭이  
다.

녀성해설자의 비감어린 조용한 목소리.

《이하 자료는 지난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  
도 로정을 따라 편집한것입니다.》

다가오는 꽃밭아래에 새겨지는 자막.

배천군 수원협동농장 현지교시터.

울긋불긋 화려한 꽃밭을 천천히 비쳐나가는 화  
면, 꽃종류가 어찌나 다양한지 백화원의 축소판  
인듯싶다.

화면은 다시 한쪽 꽃밭의 중간에서부터 작은  
물길을 건너 도로와 논두렁에 가로 놓인 넓다란  
콩크리트다리로 옮겨간다. 란간까지 세운 소박하  
면서도 아담한 다리끝에는 탐스런 벼이삭들이 의  
미심장하게 고개들을 꼭 숙이고있다.

그 다리입구에 서있는 처녀 하나, 연회색작업  
복 차림의 균형잡힌 몸매, 귀인성스럽게 생긴 동  
실한 얼굴, 하지만 역실역실한 두눈에는 침통한  
표정이 어리였다.

인물소개자막, 분조장 한정심.

처녀에게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이 다가간다. 수  
인사뒤에 오가는 대화.

부위원장: 《분조장동무, 지난해에는 여기에 이  
다리가 없지 않았소?》

처녀: 《그렇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이른아침에 찾아오시다보니 저희  
들은 미처 그이를 모실 자리조차 준비 못했습  
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저 논두렁에서 손수 탐스런  
벼이삭들도 쏴어보시고 이삭당 알수도 세여보시  
고 이 넓은 벌판을 둘러보시면서 연백별이 장훈  
을 불렀다고, 이 벌판을 보니 한평생 시름이 다  
풀린다시면서 어떻게나 환히 웃으시는지 온 천지  
가 다 환해지는듯싶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들의 애로도 풀어주시고 농사  
방법까지 가르쳐주시느라고 논두렁에 두시간이나  
서계시였습니다.

그이께서 다녀가신후 저희들은 이 다리를 놓았  
습니다. 올해엔 우리 어버이수령님께서 신발이라  
도 적시지 않으시고 편히 서시여서 벼이삭들을

잡아보실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올해에도 이곳에 또다시 수령님  
을 모실 생각이었소?》

처녀: 《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을 떠나가실  
때였습니다. 너무도 아쉬워서 눈물이 글썽해진  
저희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래년가을에도 또 오시  
겠다고, 그때에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해주셨습  
니다.

그 다정하신 음성이 지금도 귀전에 우렁우렁한  
데 글썽...》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리는 처녀, 잠시 침묵  
후에 계속되는 대화.

부위원장: 《올해 농사작황도 대단히 좋은것 같  
은데 어떻소?》

처녀: 《네. 지난해보다도 훨씬 높은 수확고를  
확고히 내다보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 이 만풍년을 다시한번 더 보여  
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저  
희들에게는 더더욱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포전들에 돌피가 적지 않아서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엔 우리 수령님께 돌피 한대 없이  
깨끗한 벌판을 보여드리자고 온 농장이 펼쳐나섰  
습니다. 그래서 보시는것처럼...》

포전으로 옮겨가는 화면, 돌피는커녕 잡풀 한  
대 없이 깨끗하고 일매진 벼바다가 흘러간다. 그  
우에 울리는 분조장처녀의 울음배인 목소리.

《어버이수령님! 이젠 우리 수원벌에 돌피가...  
돌피가 한대도 없습니다. 한번만 더 이 벌판을...  
보아주십시오!》

...

박춘식은 록화화면에서 눈길을 돌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손수건으로 두눈굽을  
닦고계시었다.

박춘식의 당황한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록화테  
프는 집무실공기에 비감의 농도를 더욱 높이여갔  
다.

...

다시 꽃밭을 천천히 훑어나가는 화면과 함께  
처녀의 침통한 목소리.

《이쪽 꽃밭은 어버이수령님의 지난해 현지지도  
를 기념하여 만든것입니다.》

크게 확대되어 화면에 고착되는 초롱꽃, 눈물  
을 쏟는듯 고개를 꼭 숙인 꽃송이우에 점점 울음  
이 내돋치는 처녀의 목소리.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시는 길에 피워드리자고  
그처럼... 그처럼 정성다해온 이 꽃들을 글썽 가

시는 길에... 영영 가시는 길에 피워드리게 될 줄이야...》

다시 화면에 나타난 처녀, 두볼에 그어져내려간 두줄의 눈물자욱, 터져나오려는 울음때문에 입술을 깨물고있다가 한참만에야 간신히 떠들거리는 소리.

《우리는 이 꽃들을 가꾸면서... 허망한 생각인 줄은 알면서두... 우리가 좀더 정성을 고이구... 애타게 기원하면 혹시... 혹시 우리 수령님께서... 이제라도 다시... 다시 깨어나시지나 않...》

...

잘까, 록화기화면이 불시에 컴컴해지면서 《연백별》이 사라진다.

박춘식은 황급히 꺼버린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손수건을 아예 두눈에 눌러대고계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마침내 두눈을 뚫으시고 의자에서 일어나시였다.

《안됐소. 내가 눈물이 많다보니 동무까지 맘고생이 많구만.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우선 자신의 눈물부터 물려주신것 같소.》

그이께서는 뒤집을 지시고 집무실을 거니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하지만 내 방금 눈물을 흘린건 비통해서만이 아니요. 보시오, 이런 인민이 어느 나라에 또 있겠소!...》

그이께서는 록화기를 가리키시며 더욱 걱정에 넘치시여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자신께 차례진 인민복에 대하여, 이런 인민을 키워주신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감사의 정에 대하여, 이런 인민을 위하여 맹세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데 대하여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였다. 다감하시고 표정이 풍부하신 그이의 안색은 비애의 그늘로 흐려지기도 하시고 환희의 미소로 밝아지기도 하시면서 집무실을 어둡게, 또는 밝게 만들기도 하였다.

박춘식은 방금전의 자기를 통 잊은채 그이를 우러를뿐이였다.

《옛말에 〈인정도 품앗이〉 라고 했소.

수령님께서는 한평생을 인민 위해 바치시면서 눈물을 많이도 흘리시였소. 그 눈물이 오늘은 인민의 눈물로 바뀌어 눈물홍수를 이룬것이요!》

그이께서는 록화기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의 안색은 곧 흐려지시였다.

《돌아켜보면 장장 팔십평생을 줄곧 인민행렬차에 계신 수령님이시였소. 생의 마지막순간마저

인민을 위해 깡그리 불태우시다가 순직하시였소.》

장군님께서는 음성이 탁 갈리시는바람에 말씀을 더 잊지 못하시였다.

박춘식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급히 그이의 곁에 다가섰다.

《지도자동지!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더는 말아주십시오. 하루에도 수십번씩 그렇게 비통해하시니 가슴이 어떻게 견디어내겠습니까!》

그이께서는 가슴이 답답하싯듯 목단추를 벗기시고 손수건을 찾아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였다. 허나 손수건을 미처 꺼내실 사이도 없이 그이의 두눈에서는 더욱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도자동지!...》

박춘식은 그만 탕개가 풀려버리였다. 자기가 먼저 감당키 힘든 비애에 가슴이 터져난것이다. 그는 입술을 꼭 깨문채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씬어삼키느라고 안간힘을 썼다. 동시에 속으로는 애초에 록화테프를 돌린 자기의 실책을 두고 끝없이 후회하고 질책하였다.

아니다. 그것은 결코 박춘식의 실책이 절대로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설사 천만 대적이 달려든대도 눈섭 한대 끄떡 안하시시는분이시다.

하지만 그이는 령도자이시기전에 먼저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기쁨과 슬픔, 효성과 도리, 사랑과 인정... 등 인간감정의 충격앞에서는 순간에 격동하시고 눈물을 쏟으시는 인간중의 인간이시였다.

바로 그 눈물속에 그이의 인정미가 있고 그 인정미속에 그분의 인덕이 있고 그 인덕속에 조선의 인덕정치가 있고 그 인덕정치속에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가 있는것이다.

집무실에는 비통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시면서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어느덧 휘연히 밝아오는 동녘하늘가에는 갈라리 찢어진 구름장들이 바람에 황황히 날려가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 구름장들을 뚫고 아직은 미명의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그 하늘아래에서는 이 시각도 연백별이 하많은 사연을 떠이고 설레일것이였다.

장군님의 눈앞에는 다시금 그 연백별처녀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그 효성의 다리와 충성의 꽃밭이 되살아나시였다.

그러자 또다시 에이는듯 가슴이 저려오시었다. 그것은 연백벌로부터 굴절된 아픔이시었다.

80평생의 그 하많은 갈피들속에 인민들과의 약속을 한번도 어기신적이 없으신 수령님의 한생이시었다. 그런데 연백벌치너들과 하신 약속은?...

그이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터놓으셨던 목단추를 채우시면서 집무탁으로 다가가 마주앉으시었다.

《박동무, 오늘 첫 일정으로 다음의 문제들을 포치해주시오.》

박춘식은 급히 수첩을 꺼내들었다.

《우선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특별렬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발차시간과 로정, 모든 운행은 철저히 지난해 수령님의 연백벌현지지도당시 그대로요.》

류의할것은 단순히 특별렬차의 운행이 아니라 조선의 인민행렬차는 절대로 멈춰서지 않았음을 우리 인민들에게, 온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라는것이요!》

박춘식의 수첩장에는 연필이 다급하게 내달렸다.

《다음,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중앙급기관의 책임일군들에게 나의 의도를 전달하시오.》

...동지들은 특별렬차로 연백벌에 내려가서 대풍을 마련한 연백벌사람들을 열렬히 축하해주고 고무해줌으로써 수령님을 잃고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을 따듯이 위로해주어야 하겠습니까.

한편 농장들과 가정들을 방문하여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아서 농사로부터 가정살림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알아보고 다 풀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절대로 가시지 않으시였으며 아버지의 육친적손길은 예나제나 영원히 변함없다는것을 연백벌사람들이 심장으로 느끼게 하는것, 이것이 이번 사업의 중심이며 기본목적입니다....

연백벌사람들에게 나의 심정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갔으면 좋겠지만 알다싶이 나는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섭섭한대로 내가 찾아간것으로 알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수령님께서 지난해에 연백벌사람들과 하였던 약속을 지켜주신것으로 생각해준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박춘식의 수첩장우에 무엇인가 후두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사이를 두시었다가 계속하시었다.

《일군들이 연백벌로 내려갈 때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는 초상화를 모시고 가도록 특별히 관심해주시오.》

그리고 전천군상업관리소를 비롯하여 수령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겠다던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신 대상들을 료해하여 보고해주시오. 이상이요.》

《알았습니다.》

《잠깐만...》

문앞에 다가갔던 박춘식은 되돌아왔다.

장군님께서는 창밖의 먼 하늘가에 눈길을 주신채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조용하면서도 근엄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해주시오.》

세기와 더불어 달려온 수령님의 인민행렬차를 변함없이 세기와 더불어 달리여가는데, 여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이 있는것이요!

내 사업을 보좌하는데서 모든 특전과 우선권을 인민행렬차에 부여해주시오.》

잠시후 박춘식은 나갔다.

장군님께서는 아까 보시던 로작원고를 당겨놓으시면서 시계를 보시었다. 원고를 보실 시간은 7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아버이수령님의 령전을 찾으시고 다시한번 비장한 각오와 투지를 가다듬으셔야 하실 새날의 아침 시각이 다가오는것이다.

그이께서 필을 드시는 순간 전화종이 울렸다. 시급한 결론을 바라는 전화였다.

장군님께서는 즉석에서 일일이 명확한 결론을 주시었다. 그러시는 동안에도 그이의 눈길은 원고의 글줄들을 자자구구 훑어나가고계시었다.

《사회주의정치지도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지만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배반하여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올수 있다....》

×

이것은 2,400시간중의 한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100일추모기간에 있는 수백가지 일화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조선의 인민행렬차가 변함없이 세기를 이어 질주하는 력사의 기적소리를 울린 한시간이었다.

## 시내가에서 찾은 유물

묘향산력사박물관 일꾼들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들은 묘향산지구에 있는 력사 유적과 유물들을 찾아내기 위한 발굴대를 조직한지 반년이 되어왔으나 별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었다.

깊고 험한 골짜기와 산봉우리들을 살살이 뒤졌으나 애초에 예견했던것보다 너무도 실적이 적었던것이다.

몇군데에서 유적을 찾아내고 몇점의 유물들을 발굴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만족할수가 없었다.

묘향산은 원래 귀중한 문화 유적과 유물들이 많은 고장이었다.

이곳에 있는 비석들에 새겨진 기록에 의하면 벌써 기원 7세기경부터 절이 들어왔기 시작한 묘향산에는 사원만도 360여개나 있었다고 한다.

묘향산 보현사는 3보가 다 있는 사찰로서 불교계에서 이름이 매우 높다고 한다.

예로부터 3대사찰로서 세개의 절을 꼽는데 석가모니의 사리가 보관되어있는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하고 팔만대장경의 목판이 보관되어있던 해인사를 법보사찰 그리고 17명의 왕사국사가 났다고 하여 송광사를 승보사찰이라 하였다.

그런데 보현사에는 3보가 다 있으니 사원중에서 첫손에 꼽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묘향산에는 불상, 불교그림들과 함께 불경목판, 불교의 장품 및 생활도구를 비롯하여 고려나 리조시기 유물들이 매우 많을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문화유산들은 을묘대탕수(1915년에 있는 큰물)와 특히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적지 않게 파괴류실되었거나 손상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하여 유적유물들이 수많은 파괴소각 되었는데 그때 보현사지구에서만도 20여동의 건물과 7천여점의 유물들이 불에 타 없어졌거나 파괴되었다고 한다.

전후 우리 당의 옳바른 민족문화유산보존정책에 의하여 보현사 구역내의 건물들을 비롯한 옛 건축물들이 원상복구되고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 보존되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유물들을 찾아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래 력사박물관 일꾼들은 스스로 묘향산에 묻혀있는 유적유물들을 더 찾아내기 위하여 발굴대를 조직한것이었다.

묘향산력사박물관 책임일꾼은 자신이 직접 발굴대장이 되어 여러곳을 찾아보았으나 성과가 없었다. 군안의 주민들과 나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군중적운동으로 이 일을 벌렸으나 몇점의 유물들을 더 발굴하였을뿐이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박물관일꾼들은 자나깨나 이 생각뿐이었다.

그들은 발굴대를 무을 때 몇가지 유물들은 꼭 찾을수 있으리라고 믿고있었다.

그런 유물들가운데는 유명한 의승들인 서산대사와 사명당이 직접 자필한 필적이 새겨져있는 《사바교주석가세존금골사리부도비》라는 비석도 들어있었다.

파란만장의 기나긴 력사가 비껴있는 이 사리비는 매우 귀중한 력사유물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일찌기 신라의 자장법사가 당나라에 가서 석가모니의 《사리》 100개를 가져다가 더없는 《보물》로 귀히 여기어 경상남도 량산의 통도사에 두었다고 한다.

석가모니의 사리를 가져온데 대해서는 일연이 쓴 《삼국유사》라는 고서에도 기록되어있다.

석가모니의 《사리》는 오래동안 전해내려왔는데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이르러 사명당이 왜놈들의 침해를 받을가봐 넘겨되어 통도사에 가서 이 사리를 두개 함에 갈라넣어가지고 당시 금강산에 있던 서산대사에게 찾아가 어떻게 보관할것인가를 의논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의논끝에 한개 함은 통도사의 본래자리에 도로 가져가고 다른 한개 함은 묘향산 금강굴 앞 내원암에 사리탑을 세우고 그곳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내원암옆에 사리탑을 건설하고 그 내용을 적은 《사바교주석가세존금골사리부도비》를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직접 자필하여 세웠던것이다.

그런데 이 사리탑과 《사바교주석가세존금골사리부도비》는 1915년 《을묘대탕수》때에 무너져내렸다.

그후 세월이 퍼그나 지나서 1930년대초, 몇사람이 사태에 묻혔던 사리탑을 다시 파내어 상원동 불영대앞 룡주봉으로 옮겨 쌓아놓았으나 《사바교주석가세존금골사리부도비》만은 종시 행적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온 나라가 불바다에 잠겼던 조국해방전쟁까지 겪고나니 사리비는 더 찾기 어렵게 되었다.

사리비의 잔편이라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한 발



굴대는 주변을 발각 뒤졌으나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묘향산 보현사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기었다.

보현사 대웅전앞에 있는 8각 13층탑의 풍경들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갑자기 달랑달랑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것이였다.

《거 참 이상한데.》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풍경을 올려다보았다.

풍경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절로 즐거워졌다.

풍경소리가 절로 울리는지 3일째 되는날, 묘향산사람들은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오매에도 그러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묘향산을 찾으신것이였다.

(옳지, 이런 경사를 알리려고 풍경이 울린것이구나.)

사람들은 그제야 머리를 끄덕이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박물관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보현사의 옛 건물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만세루를 지나 뒤뜰안에 있는 석가여래탑(8각 13층탑)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석탑의 풍경들이 일시에 더 크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흔들어대는것이였다.

마치 그이를 맞이한 기쁨에 넘쳐 온몸을 마구 흔들어대는것 같았다.

후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해듣고 그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석탑에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어린 시절에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보현사에 오셨을 때 8각 13층탑의 모서리마다에 달린 풍경수를 세지도 않고 대번에 104개라고 알아맞히신 그이의 빛나는 예지가 깃들어있다.

그런 풍경들이니 친애하는 그이를 맞이한 기쁨이 어찌 각별하지 않겠는가, 그래 풍경들이 여느 때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울렸다는것이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탑을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시였다.

《탑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저 석가여래탑과 같이 조형예술성이 높은 석탑들은 고전미에 손상이 가지 않게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석가여래탑을 올려다보니 그 탑은 갑자기 더 높아져보이고 거기서는 눈부신 빛발이 뿜어나오는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 희한한 현상에 놀라 눈을 홑떴다.

이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보현사를 돌아보신후 상원동에 오르시여 상원암도 보시고 내림길에서 불영대에 들리시였다.

안내자는 불영대앞 룡주봉에 옮겨쌓은 사리탑에 대하여 설명하여드리였다.

사리탑과 사리비에 대한 자상한 내용을 들으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매우 귀중한 유물들

이라고 하시면서

《참으로 아쉽게 되였습니다. 그 사리비가 어디에 있긴 있을텐데...》 하시며 안내하는 일군을 돌아보시였다.

일군은 그 귀중한 유물을 찾아내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금강굴까지 다 돌아보시고 산을 내리여 향산천 기슭에 이르실 때까지도 그이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예전의 양어장근방에서 그날 등산정형을 간단히 총화하시고 박물관 일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 사리부도비를 꼭 찾아내야겠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르다나니 찾기가 매우 힘들것입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그 잔편이라도 있을테니 꼭 찾아내야겠습니다.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이 근방부터 잘 찾아보시오.》

그이의 간곡한 말씀을 들으며 일군은 내심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떠나가신 다음 발굴대는 그이의 말씀을 받들고 양어장주변부터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발굴대는 바로 그다음날 양어장근방 시내가에서 사리비의 잔편을 찾아냈다.

발굴대원 한사람이 향산천기슭을 따라 몇발자국 오르는데 어디선가 반짝하고 강렬한 빛발이 그의 눈에 비껴왔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살피니 저쪽 큰바위돌밑에서 무엇인가 밝은 빛을 뿌리는 물건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손바닥 뒹개 합친것만한 널찍한 돌인데 거기에는 글자가 가득 새겨져있었다.

그 글을 해석하니 그것이 바로 《사바교주석가 세존금골사리부도비》의 잔편이였다.

발굴대원들은 너무도 기쁘고 또 신기하여 그 잔편을 들고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거기에 새겨진 글발은 서산대사의 필적이였다.

애국적인 의승인 서산대사는 리조시기 10대명필의 한사람으로 서예에서도 이름이 높았다.

이 비문은 바로 그가 83살에 쓴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서산대사의 유일한 필적이라고 한다.

이 귀중한 사리부도비의 잔편은 지금 묘향산력사박물관에 진열되어있다.

어떻게 되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다녀가신 그다음날 그것도 그이께서 찾아보라고 하신 바로 그자리에서 사리비의 잔편을 찾아냈을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이께서 사리비의 잔편이 있는

곳을 미리 아시고 발굴대원들에게 그자리를 대주  
신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이께서  
《사바교주석가세존금골사리부도비》가 없어진데  
대하여 몹시 아쉬워하시자 땅속에 묻혔던 사리비  
의

잔편이 솟아올라 빛을 뿌리어 사람들의 눈에  
떠우게 하였다고도 한다.

하여간 《사바교주석가세존금골사리부도비》의  
잔편을 찾아낸 유래는 들을수록 신기하기만하다.

## 그냥 가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총련) 로진용

이제라도 조용히 눈을 뜨시여  
이역의 이 아들을 찾으실듯  
이제라도 문득 일어나시여  
잘 왔다 포근히 안아주실듯  
주무시는 수령님, 어버이수령님

력사의 진눈까비 먼저 맞으시여  
혁명의 폭풍우를 선잠 뚫으시며  
80 평생 인민 위해 바치신 수령님  
오늘은 잠시 눈을 붙이셨습니까

혈전의 나날에는 군복을 입으신채  
차디찬 눈별우에 쪽잠을 자시고  
복구의 그 나날엔 인민복을 입으신채  
흔들리는 차칸에서 단잠도 당기셨는데  
행복한 오늘에도 양복을 입으신채  
주무시는 모습에 마음은 찢어집니다

언제 한번 편안히 주무신적 있었습니까  
인민생활 높이시는 그 로고속에  
조국통일 바라시는 그 심려속에  
이역땅의 우리 위한 그 걱정속에  
우리는 모릅니다 어버이수령님  
언제 한번 편안히 주무셨는지

잠시 눈을 붙이신 어버이수령님  
우리는 갑니다 그냥 갑니다  
빈손으로 찾아온 가책을 안고  
큰 절만을 올리고 그냥 갑니다

만나뵈운 영광속에 그냥 갑니다  
따사로운 손을 잡고 그냥 갑니다  
뜨거운 포옹 안고 그냥 갑니다  
왜 깨우지 않았는가고 왜 그냥 갔느냐고  
노여워마십시오 어버이수령님  
다시 뵈올 우리가 아니옵니까!

깨어나신 그때는 우리를 못만났다고  
아쉬워 마십시오 어버이수령님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다시 뵈올 그때는 어버이수령님  
두팔 벌려 한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여주십시오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고  
큰 일을 하였다고 기뻐하여주십시오

그러기에 그러기에 어버이수령님  
그냥 가는 무례를 부디 용서하십시오

시초

## 수령님과 함께 오셨다

원현호

### 수령님과 함께 오셨다

오시였어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머나먼 동해기슭  
여기 너성해안포중대에  
수령님 오셨던 그길로  
수령님처럼 환히 웃으시며

오시였어라  
하루에도 그 몇번  
수령님 그리움에 젖어드는 가슴  
수령님 모습으로 꼭 채워주시며

목메여 우러르니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아, 어쩌면 그리도  
수령님과 꼭 같으실가  
품으신 생각도  
옮기시는 걸음걸음  
우렁우렁한 그 음성까지도...

조금도 다름없구나

포진지며 식당...  
들리시여선 우리 생활  
그처럼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우리의 친근한 김정일동지

어쩌면 그리도  
수령님과 꼭 같으실가  
병사들을 귀해하시는 그 천품  
배푸시는 사랑도  
안겨주시는 그 믿음도

정녕 그이는  
수령님과 꼭 같으신분  
그이의 밝으신 모습에서  
수령님의 미소어린 모습 뵈나니

혼자 오시지 않았어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한모습이신 그이  
그이는 수령님과 함께 오셨다

### 그 쌍안경 들면...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병사들에게 주시였어라  
아버이수령님 존함 모신 쌍안경  
아버이수령님 뜻으로 전방을 살피라고

그 쌍안경 들면  
지척에 보이더라  
수평선너머 물길 만리  
점으로 밀려오는 해적선들도  
천만 파도 그 이랑속에 숨은  
원썬들의 검은 흉계도  
그놈들을 단방에 소멸해야 할  
승리의 비결도

보이더라  
통일의 축포 오르는 그날  
환희의 물결 출렁이는 남해의 백사장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기다려  
한껏 향기를 아껴온  
한떨기 아름다운 동백꽃도

그래서 오, 그래서  
병사-  
우리의 눈은 밝아라  
우리의 조준점은 정확해라  
우리의 사격술은 백발백중이어라

## 위대한 두 심장의 대화

20여년전 그날  
아버이수령님  
너성해안포병들과 함께 찍으신  
뜻깊은 기념사진

불멸의 그 화폭앞에  
숙연히 걸음 멈추신 최고사령관동지  
깊으신 추억속에  
마음속 대화를 나누시는듯

-수령님  
제가 왔습니다  
수령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시여  
저에게 말기고 가신  
병사들이 보고싶어...

아 우리 수령님  
제일 사랑하신 병사들  
그들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아버이수령님 위업  
주체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지난날과 다름없이  
앞으로도 병사들과 함께 화약내도 말고

포연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생사고락 같이하실  
승고한 결심 다시시는듯

그이의 그 뜨거운  
심장의 고동 들으시였는가  
만면에 반가운 미소 지으신  
사진속의 아버지수령님

생전에  
만나시는 사람마다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자고  
자신께서도 힘자라는껏  
적극 도우시겠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전사들속에 계시며  
중대를 일당백으로 꾸려놓으시고  
**김정일** 동지를 맞이하시는듯

-고맙소  
**김정일** 최고사령관동지가  
여기에 오실줄 알았소  
돌아보면 만족하실거요  
라고 하시며 기쁘시여  
기쁘시여 웃고계시는듯

## 총, 너는 무엇인가

총  
총은 무엇인가

장군님 안겨주신  
그이의 존함 빛나는 총  
혁명의 성스러운 무기여

정녕  
너는 무엇인가  
당과 혁명을 수호하는 길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벗  
생사를 같이하는 총이여

수령님 유훈지켜  
하나로 이어야 할  
이 땅의 무게가 실려있고  
자자손손  
**김일성** 민족이 누려야 할  
참된 삶과 행복을 담보하는 총

오 너는  
그 모든것 통채로 맡겨주신  
장군님의 우주같은 믿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이여라

## 불변의 자욱

한걸음  
또 한걸음  
수령님 다녀가신 그길로  
초소를 돌아보시는

그이의 자욱자욱...  
한치도 드림없구나  
중대에 술소조공연을 보시여도  
수령님 모시였던 그자리에 앉으시고

임무를 주시어도  
수령님 유훈교시 관철하실  
오직 그 한마음뿐이신  
그이의 자욱자욱...

아 그 자욱  
수령님 자욱 이어  
저 멀리 희망찬 미래에로  
곧바로  
순결 무구하게 새겨지는  
위대한 자욱  
불변의 자욱

지구가 깨어지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영원히 한길에 이어진 길  
수령님 열어주신 주체의 길  
수령님 가리키신 승리의 길

오 확신하노라  
경애하는 장군님 자욱 따를 때  
우리는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 영광 떨치고  
내 나라 내 조국은  
수령님의 뜻으로 부강번영하리

## 동행자의 금지

석광희

가슴을 펴고  
머리를 쳐들고  
내짚는 발걸음  
힘과 신심에 넘치도다

그렇노라  
영원한 동행자라 하시며  
한번 굳게 잡으시고  
세월이 가도 변치 않으시는  
장군님의 손길이 이끌어주시기에

헛눈을 팔지 않노라  
한자욱도 헛디디지 않노라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허나 마음 한구석에  
섬섬함이 때로 머리 드는것은  
내 나이 덧없이 먹기만하고  
70 고개 눈앞에 다가온것

언제나 그이결에 서있는 이 마음은  
나날이 열정에 끓고  
천년을 모시고 만년을 따르고싶은  
불같은 일편단심인데

오호  
사정없는것이 세월인가  
무정하구나  
이 머리우에 서리만 끼었고 가는것이

하건만 내 결코  
짐이 되지는 않으리

붓을 천 손 힘이 부치면  
목소리라도 가다듬으리

옥처럼 닦고닦는  
내 마음이어 깨끗해지라  
변함없이 끓고끓는  
나의 피여 더욱 맑아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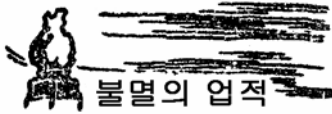
그렇게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좋은 날의 백날보다  
어려운 날의 하루를  
더 중히 여기며 따르는 마음

오늘에 내짚는 걸음  
어제와 조금도 다름이 없고  
래일에 떼는 걸음 또한  
오늘보다 더 역세게 해다오

하여 결전의 노래를 부르던  
그날의 넋이 살아숨쉬는 이 가슴  
다음번 화점은 내가 막을  
결사의 맹세 타끓거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사를 동지라 불러주시는 믿음을 안고  
미거한 이 제자가  
은사를 동지라 부르는 영광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과 함께 가는  
동행자의 걸음걸음  
세월의 늪음을 차던지며  
영원한 청춘을 숨쉬는도다



## 또 한편의 서사시가 전하는 이야기

우리의 시가문학은 구가하는 시대의 폭이 넓고 그가 담고있는 철학적인미가 깊으며 창작적대가 확고히 서나감으로써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하고 있다.

시대의 념원이며 인민의 지향, 수령과 령도자의 고결한 품모와 위대한 사상감정을 완벽한 경지에서 그려낸 시대의 명작들이 련이어 태어나 우리 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주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시가문학을 이끌어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헤아려보곤 한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기념비적명작으로 태어난데 이어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가 또한 세계적인 명작으로 세상에 올려나왔다.

9월의 첫아침.

온 나라 아이들의 등교길에 축복의 다발로 엮여지며 울리던 감동깊은 서사시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조선의 미래를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력사를 세상에 노래하였다.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일생의 행복관, 미래관, 후대관으로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서사시는 그대로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다.

친아버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안겨오고 다심한 사랑이 미쳐와 눈물로 가슴적서주는 서사시.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과 공산주의자들의 후대관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새겨져있는 이 시는 우리의 시문학이 올라선 높이를 보여주고있는 또 하나의 성과작이다.

영원무궁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축복의 찬가인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도 우리 작가들에게 창작의 나래를 끊임없이 펼쳐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마련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작가들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작활동을 벌려나갈수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당의 령도밑에서만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대로 문학창작활동을 해나갈수 있다.

창작의 나날을 회고할 때면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던 나날 은혜로운 손길아래 비약한 작가적성장의 그날을 잊지 못하곤한다.

지난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시창작과 작가들의 창작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날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돐을 맞으며 나온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이 시는 단수가 높고 철학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시구성자체가 폭이 넓고 주체적대가 확고하게 선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가 잘 반영되였다는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주신 평가의 말씀은 그대로 오늘 우리 문학이 올라서야 할 기준문제였고 작품에 담아야 할 사상적높이, 철학적깊이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제시로 되였으며 작가들이 작품을 단수가 높게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환히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발전하는 현실과 높아진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 감정은 서정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철학적깊이에 있어서도 불변의 진리가 심어진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올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적해주신 문제들은 우리의 시문학이 다시한번 뛰어오를수 있는 발단으로 되는 현명한 가르치심 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날 당의 배려를 많이 받았다고 하여 좋은 글을 쓰는것도 아니며 행복하다고 하여 글을 잘 쓰는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재능있는 인재를 인민대중속에서 나온다고 크나큰 믿음으로 평범한 작가들의 창작적열의를 북돋아주시고 신심과 담력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전달받은 작가들의 사색은 새롭게 시작되였고 예전과는 다른 창작기풍으로 작품을 쓰려는 열의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당의 숨결로 호흡하는 작가가 되자. 당의 사상이 철철 넘치는 작품을 쓰자. 하나의 문장에도 경애하는 그이의 의도가 맥맥히 흐르는 글줄을

박아넣자.

이것은 모든 작가들의 하나같은 결심이었고 든든히 자리잡은 배심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시문학의 높은 봉우리를 보는것만같아 흥분해있던 작가에게도 신심은 솟구쳐올랐다.

그는 따사로운 태양의 해빛아래 꽃으로 피어 행복을 노래하는 이 나라의 밝은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바쳐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을 불멸의 서사시로 아로새기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아이들이 없이 한시도 못사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이 없이는 순간도 못사는 우리 아이들.

내 나라에 펼쳐진 어버이와 친자식간의 이 혈연적연계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화폭이고 무궁한 내 조국의 모습이 아니던가.

경애하는 그이께서 안겨주신 믿음과 담력을 안고 기성리론을 깨뜨리며 작가는 청년시인의 얼굴을 가지고 대담하게 창작활동을 벌려나갔다.

아이들이 있는곳이면 그 어디에나 사랑의 자욱이 새겨진 그 길을 따라 편답의 길을 걸을수록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로고가 가슴뜨겁게 안겨들었다.

그때마다 시상은 섬팡처럼 비껴들어 작가는 붓을 달리고달렸다.

모든것을 아이들을 위하여!  
언제나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앞자리는 어린이들에게!  
이것이 이 나라의 국가시책  
이것이 우리 당의 최고정책

그렇다  
만고풍상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아이들을 위한 한평생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아이들을 위한 한평생

그는 40여일동안 불철주야 흥분속에서 창작의 날을 보내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이 빛을 뿌리는 문구,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미래관, 사랑관이 안겨오는 시어들.

고르고 다듬을수록 그이께서 세워주신 창작의 높이가 얼마나 작가를 성장시키고 작품의 철학적을 부여해주게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은 작가에게서 창작의 틀이었고 재능이 솟아오르게 하는 원천이었다.

작가는 한껏 나라를 펼친 상상과 열정으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1995년 8월 23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을 바치시며 그가 창작한 서사시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를 보여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서사시를 아주 잘 썼다고 하시면서 작가를 높이 평가해줄데 대한 크나큰 믿음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서사시를 첫 개학날에 발표하도록 하시고 작가에게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작품이 올라야 할 사상정서적높이며 작품의 격을 높일수 있는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을 뿐아니라 작가에게 신심과 담력까지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창작된 작품의 자그마한 성과를 그토록 값있게 여겨주시며 작가를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은 진정 끝이 없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품은 영원무궁할 조국의 미래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안겨자라는 어머니품이며 우리의 시문학이 끊임없이 개화만발해가는 위대한 창조의 품인 것이다.

하기에 작가는 격동된 심정을 안고 자기의 창작과정을 이렇게 말하고있다.

《미래를 위하여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과 오늘도 한두시간의 밤잠마저 뒤로 미루시며 일을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로고를 학부형의 한사람으로서 조금도 풀어드리지 못하는것이 나의 안타까움이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새로운 시창작의 도약대우에서 그이께서 안겨주신 시인의 담력과 배심을 가지고 터쳐본 심장의 웨침이 이 서사시로 된것이다.

지금 그 도약대우에 올라선 우리의 시가문학이 모두 이렇게 날아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로창일**



## 인민이 웃어야 웃으신다

인민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인민과 교락을 함께 나누는분이다.

그이께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인민과 함께 하신다.

1969년 1월 9일이였다.

이날 증산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날 오전에 돌아보신 증산군 식료품상점의 실태를 놓고 심려의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증산군 식료품상점에 들러보았는데 부식물매대도 그렇고 여느 식료품매대도 그렇고 변변치 못했다고 하시면서 군일군들이 상점에 자주 나가보지 않는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정에서 주부들이 생활조치를 잘하지 않으면 부식물이 생겼을 때에는 많이 먹고 없을 때에는 조금만 먹게 되듯이 군을 책임진 일군들이 주부노릇을 잘못하면 증산군과 같이 식료품상점에 부식물 하나 변변히 내놓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시였다.

무거운 안색으로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곳 인민들이 말을 안해 그렇지 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하겠는가고 하시며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공급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즉시 해당 일군들에게 대책을 세우도록 과업을 주시였다.

이런 조치가 있은후 증산군 일군들은 군안의 인민들을 발동하여 식료가공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들은 하나의 원료기지사 사료기지를 꾸려도 한두해 덕을 보다 집어던질 그런것이 아니라 대를두고 덕을 볼수 있게 든든히 꾸려나갔다.

일은 힘들었지만 마음먹고 달라붙으니 결실을 보게 되어 얼마후부터는 이곳 주민들에게 남새, 물고기를 비롯한 갖가지 부식물을 떨구지 않고 공급하게 되였다.

이고장 사람들은 한결 윤택해진 식생활을 두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시름을 놓으신듯 밝게 웃으시며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희

귀한 상품이 골고루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어느해 동해안지구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느날 일군들과 함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보시였다.

잠간사이에 펄펄 뛰는 고급생선을 수많은 잡으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이런 고급어족에 속하는 생선을 상점에 직송하여 인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인민들을 잘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 인민들이 일반 물고기는 좀 사먹지만 고급어족은 맛보기 어려울것이라고, 고급어족을 한번에 많이 팔아주지는 못한다 해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잡아서 팔아주느라하면 인민들이 골고루 맛보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일군에게 **《내가 수산물직매점을 하나 내오려고 하는데 동무네가 여기에 고급어족을 매일 대줄수가 있겠소?》**라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이 능히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만족을 표시하시며 나는 동무가 그렇게 대답할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 시장수산물직매점은 바로 이렇게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여러달이 지난 1983년 3월 3일이였다.

이날 몇몇 일군들을 부르시여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해에 보통강구역 서장동에 수산물직매점을 내오고 거기서 여러가지 물고기를 팔아주도록 하였는데 물고기를 사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상점안에 발을 들여놓을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수산물직매점을 내온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속에서 좋은 반응이 많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고급어족을 사다먹을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감사편지까지 보내오고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모두 기뻐한다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인민들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한없이 고매한 품모를 말해주는 이야기는 이뿐이 아니다.

1967년 11월중순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께서 대동군 덕화리 비름골이라는 외진 골짜기를 찾으신적이 있었다.

덕화리는 대동군치고 제일 깊은 산골에 자리잡은 두메마을이고 비름골은 거기서도 제일 막바지 골짜기였다.

성곽처럼 앞을 둘러막은 높고낮은 산발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뜻밖에도 깊은 골안에 두채의 살림집이 있는것을 보시게 되었다.

한동안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오늘까지도 이런 한적한곳에서 살게 해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군도 그렇고 도와 군의 일군들도 그렇고 다 차를 타고 돌아만 다녔지 이런곳에는 한번도 와보지 못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두 집에 다 늙은이들만 사는데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고집을 부려 문화주택마을로 이사시키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자기 부모라면 그대로 두었겠는가고 하시며 주인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문화주택마을로 옮기든지 여기에 집을 다시 지어주든지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자리를 뜨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덕화리 비름골의 두 세대 로인들을 문화주택마을의 새집으로 이사시켰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반가운 소식이기기는 하지만 한편 위구심도 없지 않으시였다.

그 로인들이 조상대대로 살던 그 비름골에서 떠나기 싫은것을 당의 배려를 마다하지 못해 이

사를 했을수도 있었기때문이였다.

이런 마음을 지우지 못하고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후 한 일군이 대동군쪽으로 가게 되자 그에게 아무리 일이 바빠도 꼭 덕화리에 들러 비름골에서 살던 로인들이 문화주택마을에서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알아보고 오라고 과업을 주시였다.

대동군에 나갔던 일군은 잠을 내여 그 로인들을 찾아갔다. 로인들은 일군이 자기들을 찾아오게 된 사연을 알고 어쩔바를 모르다가 진정을 터놓았다.

《우리가 글썄 로망을 했댔수다. 옛말에 우물안개구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꼭 그격이지요.

그 골짜기에서만 살다보니 천지개벽한것을 모르고 거기가 꼭 제일이라고만 여겼으니깐요.》

《우린 지금 비름골에서 적적하게 살다가 여기에 이사와서 세월가는줄 모르고 사우다.

매일 유치원에 나가 살다싶이 하지요. 글썄 어린것들이 재롱스럽게 노렐 부르구 춤을 추는걸 보느라면 이 주름살이 다 퍼지는것 같다니깐요. 이젠 외롭게 살던 비름골을 생각하기도 싫수다.》 로인들은 저들의 웅고집때문에 몇해는 실히 밀렸다고 하면서 즐겁게 웃었다.

일군으로부터 비름골에서 살던 로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로인들이 좋아한다니 나도 기쁘다고 하시며 만족하게 웃으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인민에게 끝없이 성실한 인민의 아들이시기에 인민의 기쁨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며 인민이 웃어야 자신께서도 웃으시는것이다.

## 가사

### 오산덕기슭의 작은 초가집

정문선

회령천 푸른 물도 감돌아 흐르는

오산덕기슭의 작은 초가집

우릴 반겨 사립문은 열려져있고

백살구나무잎은 정답게 설레네

아 오산덕기슭의 작은 초가집

김정숙어머님의 고향집이어

가난한 살림에도 웃음이 넘쳐나던

깨어진 물동이도 그대로 있는데

정가로운 샘물가에 걸음 멈추니

어머님의 그 미소가 한가득 어려오네

아 오산덕기슭의 작은 초가집

김정숙어머님의 고향집이어

키낮은 추녀아래 마당은 좁아도

온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집

충성의 해발이신 어머니 우러러

오늘도 우리 마음 뜨겁게 불타네

아 오산덕기슭의 작은 초가집

김정숙어머님의 고향집이어

# 영광을 드리노라 어머니 우리 당에

김송남

10월의 이 아침

당이어

그대 걸어온 자욱을 생각하는

뜨거운 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오는 그 모습은

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은

자애로운 어머니

자식에겐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다 있다고

인민에게도

어디에나 어머니가 다 있으랴

그대는 우리 인민에게만 있는

세상 자애로운 어머니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그대는 백두의 붉은 기폭에

나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

뜨겁게 감싸안고

갈래많은 세상길에서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우리를 이끌어준 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인민을 위하는 그 좌우명으로

사랑이라는 말의 참뜻을

이 세상 처음 그대만이

가장 깨끗하고 뜨거운것으로 정화시켰나니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을 위해

붉은 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었어라

그대는

우리모두의 심장을 모아

하나로 뛰는 큰 심장

그대 없이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조국도 민족도 없으리

몰아쳐오는 모진 바람에

나의 집 기둥이 뿌리채 뽑히우고

따뜻한 아래목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우리 웃음도

찬서리 찬눈속에 식어버리리

하기에 50년 길고긴 날

그대 품에 안겨살며

그대 손길 따르며

우리 가슴속에 자리잡은 오직 하나의 생각은

그대를 떠나서는 순간도 못산다는

이 진리

그대는 민족의 운명이며 인민의 생명

우리의 미래라는

이 신념

영광을 드리노라

감사를 드리노라

당이어 그대에게 드리는

오늘의 이 영광은

한평생 것처럼 숭고한 사랑을

다 부으시여

우리 당을 인민의 가슴에 깊이 심어주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창건자

아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영원한 영광

수령님의 높이신 뜻

위대한 령도의 자욱으로 이어가시며

정으로 사랑으로

혼연일체의 혈맥을 더 굳게 이어주시는

인덕정치의 위대한 령도자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

안겨살아온

반세기의 이름으로

끝없이 안겨살

천세기 만세기의 이름으로

그대만을 따라갈 충효일심의 맹세를 안고

영광 영광 영광을 드리노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이어 영원한 우리의 어머니시여!

(1995. 10. 4)

# 위대하여라 불멸의 탑이여

리종덕

10월,  
10월의 저 푸른 하늘에 추켜든  
마치와 낫과 붓!  
오, 당창건기념탑이여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가슴은 승엄해지고  
생각은 끝없이 깊어져  
마음속으로 쓸어보고 쓸어보며  
다시 우러르는 탑

저 마치는  
당을 영원히 받들고 따르는  
로동계급의 신념  
저 낫은  
내 어머니가 어린 나를 키우며  
한생을 놓지 않은 근로의 무기  
저 붓은  
내가 역세계 틀어잡은  
영원한 동행자의 상징

이 담은  
이 땅에 내가 태어나기도전에  
권리없는 로동자  
땅없는 농민  
갈길 몰라 헤매이던 지식인들을  
붉은기아래 내세워주며  
우리 수령님 내려주신  
《ㄷ.ㄷ》의 역센 뿌리에서  
억척같이 솟아오른것

못잊을 10월의 그날부터  
인민을 한품에 안고  
세월의 만고풍상  
혁명의 모진 시련 다 헤치시고  
혁명의 모든 승리 다 안아오신  
수령님의 그 자욱자욱  
불멸의 그 위엄이  
영광의 탑으로 솟아올랐나니

끝없는 생각의 노를 젓노라  
그러면 어느덧 머나먼 천만리  
아버이수령님 빛내이신  
우리 당의 찬란한 력사  
그 력사를 이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가슴에 새겨지여라

오 여기서는 들을수 있구나  
우리 당의 최고강령의 빛발을 안고  
실레이던 무포의 그 청신한 물결소리  
여기엔 다 비껴있구나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의 당으로 빛내이시며  
그이 열어오신  
그 모든 날의 새벽노율이

백두의 거센 바람으로  
혁명의 나래를 펼쳐  
주체의 한길우에 붉은기 높이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치며  
강철의 당을 이끌어오신  
우리 당의 령도자 **김정일**동지!

나는 정녕 이 탑에서  
그이 걸으신 거룩한 자욱을 보노라  
혁명의 활력을 뿜으시는  
그이의 위대한 심장의 숨결을 듣노라  
그이의 사상, 그이의 신념, 그이의 의지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 령도해주신  
헤아릴수 없는 그이의 낫과 밤을 다 새겨안노라

당도  
인민도  
군대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철통같이 다진  
일심단결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불패의 위력을 떨치게 하여주신  
**김정일**동지의 그 위엄 하늘에 닿았나니

오오, 당창건기념탑이여  
우리 당 주체사상의 승리탑  
우리 당 령도의 승리탑  
우리 당 인덕정치의 승리탑

영원불멸하라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위대한 인민과 함께  
조선의 하늘가에 솟아빛나라  
당창건기념탑이여!

(1995. 10. 4)

#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림금단

야영의 바다가에서 돌아온 아들  
나를 반기며 집으로 들어설 때  
소년공전무대에서 돌아온 딸애  
다정히 부르며 내 목을 감싸안을 때  
내 뜨겁게  
가슴뭉클 젖어드는 생각이 있어라

누가 내 아이들을  
이렇듯 대견하게 키워주었던가  
걸음걸음 사랑을 기울여  
기쁨과 행복만을 꽃피워주는  
당의 은정 생각할수록  
눈굽이 뜨거워져라

내 젊은 시절  
첫 아기 태어났을 때  
걱정도 많았더라  
이해를 어떻게 키울가

허나 그것은 공연한 근심  
아기이름 짓기도전에  
건강관리부가 먼저  
머리말에 와있었더라

아직은 아이키우는 일 서툴어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는 날  
그리도 당황했건만  
탁아소에 들어서자  
보모들 네 아기 웃음속에 받아안고  
젖은 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이 어머니 수고를 대신해주었어라

세월은 빨리도 흘러  
유치원 배그네에서 웃던 애들  
배움의 창가로 불러주어  
내자식 공부시킬 걱정 하나 몰랐어라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나라 어머니들모두  
그대 품에 아이들을 떠맡기고  
큰 시름 작은 시름 다 놓으며  
처녀시절처럼 마음껏 날고날아  
영웅도 되었어라  
박사도 되었어라

진정 그 사랑의 품은

꿈결에도 달려가 안기고싶은  
못잊을 내 어머니의 품  
보채는 아기를 업고  
온밤 서성거리다가도  
단잠 든 숨소리 고르롭게 들리면  
피곤이 몰렸던 눈에 웃음을 짓던  
친정어머니의 그 품이었어라

아, 당이여  
어머니들의 이런 행복  
그대 품이 아니라면  
우리 어찌 생각인들 할수 있으랴

그대 품이 없다면  
저주롭던 그 세월  
밭고랑에 태를 묻고  
허리굽은 엄마등에서  
해종일 빈주먹 빨던 나처럼  
우리 아이들도  
주린 창자를 달래야 했으리

사회주의가 무너져버린  
어지러운 저 세상처럼  
어머니가 된것을 통탄하며  
우리도 벌써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제 손으로 목숨을 끊은지 오랫동안

아, 당이여  
은혜로운 품이여  
이 나라 천만 아들딸들을  
모두 말아안고  
그들 한점 없이 키워주는  
그대의 로고 너무도 크고커서  
자식가진 어머니조차 다는 몰라라

감사를 드리노라  
그대만이 지닌 그 진정  
그대만이 줄수 있는 그 사랑에 목메여  
그대를 위대한 어머니라 부르며  
10월의 이 아침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노라

(1995. 10. 4)

## 명제해설

《소설의 사회적가치는 결코 그 부피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단편이라고 하여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있으면 얼마든지 명작으로 될수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소설의 사회적가치는 그 부피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작품의 사상예술적내용의 심오성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소설의 사회적가치는 시대력사적의의에 관한 문제이다.

문학은 시대를 반영한다. 문학이 시대와 그 시대 인간들의 생활속에서 가장 의의있고 본질적인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옳은 사상미학적 해답을 줄 때 사람들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한다고 할수 있다.

자기 시대 인간들의 운명개척에 어떻게 이바지하였고 그 시대의 문학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으며 력사에 길이 남아 전해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작품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소설의 사회적가치는 결코 작품의 부피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부피가 큰 장편소설이라고 하여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세월의 망각속에 묻히게 된다.

소설의 사회적가치는 작품의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관련된다. 비록 단편소설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이라면 당대문학의 얼굴이 될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재부, 인류의 재부로 남을수도 있다.

단편소설 《불타는 섬》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 단편소설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전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의 명령을 지켜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의 산 모습이 생동하게 그려져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생활의 참된 진리가 있다. 또한 소설에는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영웅전사들의 영생하는 삶, 사회정치적생명에 관한 새로운 인생철학이 있으며 소설문학에서 혁명적비장성에 대한 새로운 개척이 있다. 바로 이러한 사상예술적성공과로 하여 작품은 비록 단편소설이지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 남아있게 된것이다.

단편소설 《길동무들》, 《〈해주-하성〉서 온

편지》, 《백일홍》을 내놓고 천리마시대의 현실주제소설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자기 위치 앞으로》를 내놓고 사회주의대건설시기의 소설에 대해 논할수 없는것도 그렇다.

그러므로 소설은 장편인가 단편인가 하는 부피에 의해서가 아니라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있는가, 못한가 하는데 따라 작품의 사회적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사회적가치가 큰 작품만이 세월이 흘러도 인민의 기억속에 남아있게 되고 시대의 명작으로 불리워진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다.

국제무대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가 좌절되었던 나라들에서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재생운동이 활발해지고있으며 제3세계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지역적 단결과 협조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현명한 령도로 미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이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이 바라는것은 오직 하나 아버지수령님의 유훈대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의 령도따라 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성취하려는것이다.

소설작품들에서는 시대의 이러한 흐름과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큰 규모의 소설작품과 함께 짧은 형식의 다양한 소설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읽을수록 다시 읽고싶고 강한 여운을 안겨주는 작품, 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단편소설, 짧은 형식의 소설을 창작하려면 우리의 소설가들이 시대의 본질을 꿰뚫어볼수 있는 예리한 정책적안목과 높은 지성세계, 자기식의 독특한 단편구성능력과 밀도 높은 언어구사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 은정의 메아리

정 렬

## 1

해방을 맞은 인민의 감격  
땅우에 넘치고  
하늘에 닿아  
그 첫해가 저물어가던  
1945 년의 12 월

제 나라의 푸른 하늘  
흙냄새 구수한 땅이  
그처럼 정답고 소중한줄  
사람들은 처음 알았고  
어디나 다시 찾은 춤노래로  
흥성이는 강산

내리는 눈송이조차  
반기며 속삭이며  
송이송이 꽃이 되어  
산천을 수놓았거니

부모처자와 생리별당한  
마음의 아픈 상처우에  
기다려 잠 못들던 거리와 마을우에  
기적소리 목메여 울던 그 낮과 밤

시련을 넘어  
슬픔을 넘어 펼쳐진  
기쁨의 바다  
환희의 바다  
사람마다 울고 웃으며  
거리에서 봄비는 평양에  
김정숙어머님께서 돌아오시였어라  
항일의 불바다를 헤치신 그 걸음  
해방된 조국땅우에 이어가시며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바쁘신 나날을 보내신 어머니

그 자욱 쓰다듬으며  
해방산기슭의 눈은  
티없이 순결하고  
새들도 은방울목청 굴러라

아침이면 보초소에  
밀영의 그날처럼  
생신한 첫노을 펼치시고

저녁이면 달이 지도록 손님들 맞으시며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셨거니

진정 평양의 아침은  
어머님 계시는  
해방산기슭에서 시작되고  
아름다운 별들도  
해방산기슭에서 다정히 내리는듯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배낭에 정히 간수해두셨던  
자신의 군복을 줄여  
분옥에게 해입히신 어머니  
따뜻한 손길로  
옷매무시를 바로잡아주시여라

-분옥이  
이 옷을 입고  
오늘은 대동문인경도 구경가고  
할아버님도 만나보지요

-네?!  
아직 기별도 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너무도 뜻밖이어서  
말끝을 얼버무리는 분옥이

너그러우신 미소를 담으시고  
나직이 타이르시는 어머니  
-분옥인 벌써 잊었나봐  
평양역에서 우리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래두?!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일없어요  
산보삼아 거리구경도 하면서  
어서 가자요

앞서 걸으시는 어머니를 따라  
기쁨과 걱정의 갈림길에서 마음은 헤매이고  
발길 옮기는 분옥이  
눈앞으론 밀물처럼 파도쳐와라  
잊지 못할 감격의 그날이...

...

어제는 작별의 역두  
오늘은 상봉의 역두  
그속엔 있었다.  
어머님을 마중하러 나온  
쌍태머리 처녀 분옥이도

세월의 눈비에  
지붕은 퇴색되었어도  
인민의 푸른 희망처럼  
처마가 들린 평양역사에  
크나큰 경사의 날이 왔어라

키 흰칠한 경위중대장을  
영문도 모르고 따라나온 분옥이  
김정숙어머님께서 오신다는것을  
역에 나와서야 알았으니

이 일 어쩌면 좋으랴  
수수한 단별 무명웃이건만  
다림발도 세우지 못하고  
어머님을 맞게 되는 안타까움

대동문옆 움막에서 사는  
종지기 할아버지  
그토록 당부하였건만  
어머님의 도착을 알리지 못했으니  
아 이 일 어쩌하면 중단 말인가

착잡한 생각속에  
분옥의 의문은 파문처럼 커져라  
어머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데  
환영의 꽃바다를 왜 펼치지 못했는가  
환영군중은 왜 이다지도 없는가

그의 속마음 헤아린듯  
나직이 타이르는 경위중대장  
-분옥동무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도착을  
평양시민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소  
그래서 동무에게도  
역에 나와서야...

어머님의 평양도착을  
어째서 알리지 말아야 하는가  
어째서? ...  
분옥은 분하고 서운하면서도  
자꾸만 갈마드는 생각

정말 오실가  
오신다면 이렇게 불시에?

그렇다면 할아버지에게 알려야지  
그러다가 렬차가 도착하면...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만 조이여라

객차지붕우에도 사람들 하얗게 붙어  
구내에 들어서고 떠나가는  
렬차를 이윽도록 바라보는 분옥이  
다시 번지는 생각

어머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종지기 손녀  
나를 알아보실가  
조선의 자랑이신 어머님께  
첫 인사를 어떻게 올릴가

평양에 오시는 이 뜻깊은 날  
어머님께서는  
어떤 렬차를 타고 오실가

진주보석을 수놓은 특별렬차  
인민의 간절한 소원속에  
꽃보라 날리는  
꽃렬차에 모셨을가

너성의 몸으로  
눈보라 사나운 만주광야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장군님처럼 축지법 쓰시고  
5리밖의 엽전도 쏘아맞히시는  
명사수라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연설도 잘하시는 정치가  
조국광복의 위대한 공로자라고

거리의 가게방에서도  
마을의 우물가에서도  
어머님을 칭송하는 말들이  
전설처럼 전해졌더라

려로의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어제는 숨죽은 공장들에  
건국의 불길 지펴주시고  
오늘은 농민들의 탈곡장도 찾으시며  
쉽없이 걸으신 그 자옥자옥

기나긴 력사의 년륜을  
이끼 푸른 성벽에 두른

고구려의 이름높은 성지여  
오 평양성이여

어서 세월의 자락을 말아올리며  
하늘높이 추녀를 추켜들라  
대동강물은 포석을 닦아내고  
모란봉은 머리 단장하고  
크나큰 경사를 맞으라

가없이 열린 하늘이 흔들리고  
은빛 지붕들이 흔들리며  
두줄기 철길우에  
은은한 기적소리 울린다

해방된 환희에 넘쳐  
끝없이 설레이는 거리에  
웃음이 구슬지는 창가마다에  
기쁨을 더해주는 희소식인듯  
기적소리 울린다

력사의 시각을 기다리며  
세차게 가슴 울렁이는 분옥이  
순간 제눈을 의심하며  
다시 다시 바라본다, 두줄기 철길을

착- 착-  
증기를 뿜으며  
구내에 들어서는 렬차  
특별렬차도  
려객렬차도 아닌  
유개화차가 아닌가

(저런 유개화차로 오실수 없지)  
분옥이는 꿈속인듯 어리둥절하여  
다른 렬차를 기다리는데  
급히 손목을 이끄는 경위중대장  
-분옥동무  
왜 그러구 셤나  
어머님께서 도착하셨소

(아니  
어머님께서 도착하시다니...?)  
분옥이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아  
못박힌듯 서있는데

나직이 일깨워주는 경위중대장  
-려객렬차를 내드렸지만  
어머님께서는 굳이 사양하시고  
저 유개화차로 오셨소

오, 사람들이여  
력사여 기억하는가  
일일천추 산천이 기다리고 인민이 기다리는  
경사의 날에  
수수한 유개화차를 타시고  
군복차림의 어머님께서 돌아오셨음을

아 얼마나 기다리던 날이나  
얼마나 얼마나 바라던 오늘이나  
분옥이는 저도 모르게 웃기 여미며  
다급히 발길 옮기는데

다정한 미소를 담으시고  
유개화차에서 내리시는 저분이  
봄빛처럼 환하시고 돋보이시는 저분이  
우리의 김정숙어머님이시란 말인가

강직하시면서도  
단정한 군복차림  
그지없이 너그러운신 고매한 인품  
단번에 온 넋을 끌어당기시여라

따뜻한 미소를 뿌리시며  
활달하신 걸음 옮기시는 어머님  
마중나온 경위중대장과  
뜨겁게 인사를 나누시는 첫 말씀  
-장군님께서 건강하세요?

준엄한 격전장에서나  
먼 후방밀영에서나  
언제나 동지들과 나누시는  
어머님의 그 첫인사

사슬이 우는 철창속에서도  
먼 지하공작의 길에서도  
어머님의 마음속 깊은곳에서  
언제나 뜨겁게 울리신 그 말씀

아 항일의 혈전만리  
어머님의 품에서 시작하여  
백두밀림에 굽이치던 그 충성  
삶의 철리로  
광복된 조국땅우에 안고오셨거니

경위중대장은 정중히 손을 올려  
거수경례를 붙인다  
항일의 날 그 자세로  
-장군님께서 건강하십니까

어머님께서 천만시름



다 풀리신듯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눈길 드시여 바라보시여라

다소곳이 머리 숙이고  
얼굴 붉히는 분옥이를 가리키는  
서글서글한 경위중대장  
-이 처녀가 분옥입니다  
장군님께서 데려다 저택에...

분옥이는 눈물이 펴 돌았다  
미처 인사의 말씀도 올리지 못한채  
속연히 머리숙여  
큰절 올리는데

어머님께서 급히 마중오시며  
살뜰하게 건넌시는 말씀  
-그러지 말아요  
다 들었어요  
자, 우리 혁명군식으로 인사합시다

씨원씨원하게 말씀하시며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는 어머님  
친딸처럼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시여라  
-분옥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대동문종각결에서 살았다지요

-네  
-장군님께서  
평양에는 문화유물이 많다고 하시면서  
대동문옆 인경이야기를  
늘 들려주셨어요

분옥이  
우리 함께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인경도 함께 가보지요

너무도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고생속에 살아온 분옥이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랐기에

너그러우신 그 손길에서  
다심한 친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울먹이는 분옥이  
아련한 그 얼굴에 피운 웃음  
티없는 꽃처럼 아름다워라

-어머님!  
뜨거운 걱정예 목메여  
품에 안기는 분옥이  
-그럼 우리 약속하였어요  
다정히 어깨를 다독여주시며  
정답게 하시는 어머님 말씀이여

인민의 품안에 돌아온 평양  
유정한 산천을 바라보시며  
어머님께서 말씀하시여라  
-정말 감회가 새롭군요  
장군님께서 숙영의 우등불가에서 돌려주시고  
밀림의 달빛아래 그려보던  
그리운 평양으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아 어머님께서  
항일의 초연에 그슬린 군복에  
오각별 군모를 쓰시고  
잊을수 없는 자옥을 남기시며  
역구내를 걸어가신다

분옥이는 가슴이 찢어질듯  
하늘처럼 높이신 업적 쌓으시고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안으시고  
혈전만리 헤쳐오신 김정숙어머님

오신 길에  
하늘의 별을 따다 수놓아드리고  
가시는 길에  
보석주단 꽃방석 펼쳐드린들  
아까울것 있으면만

이 경사의 날에  
환영의 꽃보라도  
인민의 환호도 없고  
그리도 혼한 광목천 한치도  
깎아드리지 못한 안타까움  
가슴 저미는 자책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어머님을  
이렇게 모셔야 하는가  
이렇게밖에 모실수 없단 말인가  
분옥의 가슴은 미여지듯 아파라

하건만 력사의 그날을  
아는 사람 많지 못했으니  
이 세상 가장 겸허하시고  
위대한 어머님  
례사롭게 평양에 오시었고  
또 기별도 소문도 없이

노을비긴 포석도우를  
조용히 걸어가시였어라  
보통사람들과 다름없이

## 2

승용차도 마다하시고  
분옥이와 함께  
전차에 오르신 어머니  
대동교옆에 이르러  
분옥과 함께 내리시는 그 모습  
마치 다정한 형제같아라

강반에 우렁이 솟아있는  
고구려의 옛성문 대동문  
어머님께서는 고색찬연한 유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여라

오랜 세월의 화강석축대우에  
우아하고 화려한 단청은  
애국의 넋과 슬기를 말해주는가  
저 이끼푸른 기와지붕아래로  
그 얼마나 많은 전란이 비껴갔더냐

그옆에는 평양종각  
강성대국의 존엄높은 넋인양  
부각상이 력력한 인경에서  
금시 장중한 음향이 울릴듯

아 저것이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들려주시던  
자랑높은 그 평양종이구나  
구름우에 솟은 대성산마루에서  
봉화가 타오르면  
천군만마를 일떠세우는 우뢰같은 울림으로  
강토를 부르던 그 인경이구나

사랑하는 평양을 지켜  
전장에 선혈을 뿌리던  
돌격의 함성소리  
군마의 투레질소리  
세월을 넘어 들리는듯

어머님께서는 무수한 성돌처럼  
가슴에 쌓이는 생각 안으시고  
천천히 종각으로 다가서시는데  
웃은 비록 람루하여도  
백발의 성성한 늙은이  
땀에 흥건히 젖어  
종각에 무겁게 매단

인경의 추를 담고있어라

한발 앞서가던 분옥이  
어느새 청제비같이 종각에 뛰어오른다  
-할아버지!

구부정한 허리를 두드리며  
언뜻 머리드는 로인  
손녀를 알아보고  
기다린듯 반기더니  
사방 두리번거려라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하는 로인의 귀속말  
-애야  
항간에서는 항일의 녀장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떠도는데  
그게 정말이나  
-정말 아니구요  
챙챙한 분옥의 대답  
-뭐?!  
사실이라구  
놀라는 로인

당황한듯  
분옥이는 감빰 얼굴을 떨구고  
코고무신만 내려다보는데

대뜸 노여움에 떨리는  
로인의 거센 목소리  
-내가 그만큼  
오시는 날을 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할아버지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두눈에 눈물이 가랑대는 분옥이  
-그것두 말이라구 하느냐  
화가 동하여  
짚신발로 땅을 구르는 로인

-이 계집애야  
이 종각에 오셨던 장군님께서  
내 눈굽을 닦아주시고  
너를 품으로 데려가지 않았느냐  
의지할데 없는 너를 아버지처럼...

장군님께서 나라를 광복하시고  
조국에 개선힌하는 날  
이 늙은게 주책머리 없다가니  
인경을 울리지 못했구나

그것이 내내 가슴에 걸려  
항일의 녀장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날  
꼭 인경을 울리자고  
낮이나 밤이나  
종을 반들반들 닦아왔다

그런데 너는 할애비의 속을  
그렇게도 몰라주느냐  
로인의 진정이 담긴 말은  
마디마디 눈물에 젖어라

어머님께서는  
풍상서린 세월의 이랑을 번지시며  
이끼낀 돌층계를 오르시는데  
곁에 다가와 아뢰는 분옥이  
-늙으신 저의 할아버지입니다

-아 그래요  
반기시는 어머님  
손녀와의 상봉을 지켜드리시며  
혈육의 정을 느끼시던 어머님

-뉘이신지  
이 늙은게 눈이 어두워놔서...?  
어리둥절해하는 로인  
-할아버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은방울 목청을 굴리는  
분옥의 목소리

로인은 귀가 벋쩍 열리었으나  
꿈인지  
생시인지  
황망히 자세를 곧추 세우며  
두손을 공손히 앞으로 모아잡는다

-백두산에서 천만교생을 다하신  
너사님을 몰라보다니...  
이 늙은것의 실수를 용서해주십시오  
로인은 황송하여  
깊이 머리 숙이는데

-할아버님  
나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얼른 다가가시여  
부축해드리시는 어머님

눈물의 샘이 그득 고여  
녀사의 두손을 부여잡는 로인  
-녀장수님

녀장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력사의 날도  
인경을 울리지 못했으니  
이 늙은것의 죄가 큼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 늙은이의 외람된 청을 받아주십시오  
너사께서 나라의 대통운이 틀  
복을 안고 오셨는데  
온 삼천리에 경사를 알리게  
인경을 치게 해주십시오

이 인경밑에서  
소년기와 청춘기  
피눈물의 한생이 덧없이 흘러  
이제 남은것이란  
인생의 쓸쓸한 락엽밖에 없는 로인

이 인경밑에서 자라  
의병으로 떠나간 아들도 잃고  
마누라마저 굶겨 잃은 종지기

《한일합병》의 치욕의 날엔  
사대망국의 슬픔을 안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마지막으로 피눈물의 인경을 울리지 않았던가

가슴 저미는 아픔을 안고  
인생의 난바다를 헤쳐오며  
온갖 세파에 부대궂어도  
로인의 가슴속 진정의 샘물은  
얼마나 뜨겁고 깨끗한것인가

후회와 자책으로 몸둘바를 모르는  
로인의 정상에서  
깊고깊은 심중을 읽으신 어머님  
뜨거운 선혈이 숨배이고  
로인이 것처럼 소중히 지켜온 인경을  
오래도록 쓰다듬으신다

-할아버님 고맙습니다  
평양종은 나라의 귀중한 유물인데  
나를 위해 처서야 됩니까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을 위해 처야 합니다  
그래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장군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조국이 광복되어  
뜻깊은 첫설을 맞는 설달 그믐날밤

온 나라가 다 듣게 인경을 치도록  
장군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너사님!

로인의 강마른 가슴에서  
인생의 봄비가 내리고  
환희의 무지개 비끼는가  
쏟아지는 눈물의 소나기로  
흰수염발 화락이 젖어라

작별의 인사를 나누신 어머니  
서문거리를 지나 보이지 않아도  
로인은 황홀한 눈을 들어  
오래도록 바라보아라

찬란한 노을속에  
유구한 력사의 종각이 솟아오르고  
하늘땅은 꽃밭처럼 아름다워라  
인경을 스쳐가는 바람도  
숨결처럼 뜨거웁고  
대동강은 춤을 추며 노래불러라

인생의 황혼기에  
로인은 청춘을 되찾은듯  
힘이 약동하고  
고색찬연한 대동문추녀는  
영광으로 들리워  
하늘끝에 나래퍼누나

로인은 분명 듣고있었다  
너사께서 가슴속에 먼저 올려주신  
인경의 우아한 울림을  
그것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신비로운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메아리였고  
새 삶의 아름다운 노래였거니

구새먹던 가슴에 인생의 향기를 되찾고  
황홀경에 심취되어  
허연 수염발 쓸던 로인  
무릎을 철썩 쳤네

-울거니

종과 함께 피터지도록 가슴을 치며  
하늘에 빌던 눈물겨운 기원과  
종지기의 순박한 꿈을  
한꺼번에 이루어주셨으니  
너사님은 과시 위인중의 위인이시구나!

뜻깊은 그믐밤 12시  
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위병인양 거느리고  
력사의 교대가 시작되는가

못잊을 추억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1945 년을 바래우며  
영광과 희망의 새해  
1946 년이 다가오는 그 시각

땡- 땡-

력사의 교대를 알리는듯  
고구려의 옛성문  
수천년 전란의 력사가 잠들은  
대동문의 지붕을 흔들며 깨우며  
제야의 종소리 울린다

땡-땡-

해방의 환희속에  
첫설을 맞는 수도의 거리에  
집집의 창문가마다에  
기쁨의 활력을 주며  
평양종이 울린다

너덕너덕 기운 누데기웃에 짚신을  
난생 처음 벗어던지고  
숨을 두툼히 둔  
하얀 명주옷을 갈아입은 종지기로인  
신이 나서 인경을 친다

천대와 굴욕 속에 구겨져  
때앓은 토스레웃이면 고작이던 로인을  
그 뉘가  
저렇듯 새롭게 내세워주시는가

새옷을 해입으시라고  
투사들이 올린 소중한 천으로  
째째이 바느질하신 어머니  
로인의 새옷을 지어 신발과 함께  
분옥에게 보내주셨거니

하얀 명주바지저고리에  
고무신까지 받쳐신은 할아버지 모습  
너무도 돋보이고 자랑스러워  
다시다시 눈여겨보며  
분옥이는 곁에서 울고

가슴속 깊은곳에서  
분출하는 격정의 샘으로

무거운 추를 적시고 새옷을 적시며  
종을 치는 로인의 모습  
아 그것은 해방된 인민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늘가 아득히 감돌아 흐르며  
인경이 울린다  
신기한 그 메아리는  
종지기로인이 한평생 부르고싶던  
기름진 노래였고  
잃어 어린날을 되찾은 분옥이  
다 커서 감상하는  
정서깊은 자장가였거니

경위대원들과 함께  
별빛을 어깨 우에 받으시며  
보초소를 순찰하시던 어머니  
아드님의 손목을 다정히 잡으시고  
정원가에서 종소리를 들으신다

불밝은 창가에서  
저술에 여념이 없으시던 장군님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밖으로 나오신다

-숨을 죽였던  
평양의 숨결이 살아났소  
대동문쪽을 바라보시며  
더없이 기뻐하시는 장군님

-망국의 종소리를 들던 인민들이  
해방의 종소리 들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정중히 말씀올리시는 김정숙어머님

세월의 막바지에 막돌처럼 던져졌던 인민을  
력사의 한복판에 세워주시기 위해  
천만 아픔과 슬픔을 넘으시여  
우리 장군님  
얼마나 먼먼 길 걸어오셨던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힘겨울 때나  
언제나 충성의 일편단심으로  
장군님을 받들어오신  
어머님의 눈가에 소리없이 흐르는  
행복한 미소여

눈보라 혈전만리  
사령부를 웅위하여  
총칼의 숲을 헤쳐간

그날의 수림을 흔들던 심장의 나팔소리  
이 인경소리에 합쳐 울리는것인가

산설고 물선 이역땅에서  
오늘을 못보고 떠나간 전사들  
백두산쪽에 얼굴 돌려달라던  
전우들의 그 뜨거운 숨결  
이밤에 이어져 숨쉬는것인가

더없이 기뻐하시며  
감회를 금치 못하시는 장군님  
-우리가 얼마나 듣고싶던 해방의 종소리요  
참 뜻깊은 밤이요

장군님의 큰 기쁨속에  
어머님의 기쁨이 어리고  
장군님의 미소속에  
어머님의 티없는 미소가 피어나는 밤이여

참으로 잊지 못할 력사의 밤이었다  
장군님과 김정숙동지  
나란히 자옥을 남기시며  
함께 걸으시는 정원길

참으로 행복한 밤이었다  
처음으로 인민들과 함께  
해방된 땅  
새해의 첫기슭을 걸으시는  
위대한 두분의 숨결을 안고  
환희의 나래를 퍼는 조국이여

-저 종소리를 듣지 앓구  
우리 분옥이가 어디 갔소?  
장군님의 그 물음속에  
다정히 대답을 울리는 어머니  
-할아버님께 새옷을 가지고 갔으니  
이제 곧 올겁니다

이때 정원밖에서  
타박타박 발자욱소리  
정원등밑을 지나 급히 달려오는  
저기 분옥이 아닌가

-범이 제 소리하면 온다더니  
우리 분옥이가 오누만  
마주 걸어가시며 반기시는 어머니  
두손을 마주 잡아  
다정히 안아주신다

치마자락 눈굽에 가져가며

노래인듯 굴리는 분옥의 말  
-어머님께서 해주신 새옷을 갈아입고  
할아버지는 지금 울면서 인경을 칩니다

-그렇게도 인경을 치고싶던 로인인데  
왜 울지 않겠소  
장군님의 생각깊으신 말씀  
-로인과 함께  
우리 인민의 오랜 숙원이 풀린 날입니다  
어머님의 감동어린 말씀

치욕의 세상이 물러가고  
활짝 열린 조국의 하늘을  
은은히 흔들며 흔들며  
장중한 음향이 흐른다

그 음향을 호흡하고  
모멸과 수모 속에 시들었던  
만물이 다투어 일어나며  
소생의 숨을 쉬는가  
저 멀리 수없는 전란이 비낀  
대성산 모란봉도  
속연히 머리드는가

나라가 망하던 치욕의 그날에  
마지막으로 피울음처럼 울리던 종소리  
오늘은 역사앞에  
세계앞에  
새 조선 탄생의 고고성을 울리나니

아, 해방된 조국땅우에  
처음으로 울린 인경소리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어머님께서 안겨주신  
기상이 넘친 새 조선의 숨결소리  
온갖 시름과 슬픔이 가셔진  
인민의 가슴에서 분출하는 행복의 환호

그것은 오, 그것은  
창창한 새 조선의 래일을 기약하는  
장엄한 선언이었어라

사람들이여  
길이 잊지 마시라  
력사의 그날 그밤을 깨운 제야의 종소리  
그것은  
《이민위천》의 리념을 안으시고  
20 성상 피어린 혈전의 언덕을 넘어  
광복의 봄을 안고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어머님 우러러 터뜨리는  
력사의 환호였음을

기쁨에 넘친 평양의 하늘가에  
조국의 력사우에  
사라지지 않는 여운을 남기며  
인생의 새봄을 노래한 인경소리  
흘러가는 이 땅의 세월에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던  
잊지 못할 은정의 메아리여

김정숙어머님의 그 은덕 전하며  
번영하는 내 나라의 하늘가에  
오늘도 영원한 삶의 노래로  
인간사랑의 찬가로 울리는 메아리여

## 가사

# 내 마음 언제나 당을 위해

고영수

이른아침 붉게 타는 노을을 보면  
내 마음도 불타라 저 노을처럼  
아,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  
내 마음 한빛으로 물들이고싶어

정가로이 솟아나는 샘물을 보면  
내 마음도 맑아라 저 샘물처럼

아 우리 당에 효성을 고여  
내 마음 티없이 바치고싶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  
내 한생 빛내리 저 별빛처럼  
아 우리 당을 받드는 길에  
내 한생 위훈의 금별이 되리

## 누리에 올려퍼지는 신념의 찬가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에 대하여-

신경애

노래는 혁명승리의 상징이다.

지금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에서 혁명의 붉은기가 내리어지고 슬픔과 비판, 실망의 한숨소리가 터져나올 때 혁명의 붉은기가 변함없이 창공에 휘날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기쁨과 행복, 혁명적락관에 넘쳐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가 힘차게 메아리치고있다.

지구의 한끝까지 높이 올려퍼지는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한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이 한편의 가요야말로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거세찬 숨결이 그대로 맥박치는 노래, 우리의 앞길에 승리를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감명깊은 노래라고...

### 붉은기에 대한 철학적해명의 심오성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비상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메아리로 높이 울리고있는것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를 시기적절하게 포착하고 그에 옳바른 철학적해명을 주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사람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진군을 고무하면서 온 사회에 혁명적분위기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섰다.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와 오늘의 세계정치사를 보아도 수령의 서거이후 수령의 후계자를 잘 내세우지 못한탓에 세계혁명운은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으로 하여 강하던것이 약해지고 혁명의 길이 여러갈래로 갈라지기도 했고 붉은 기발에 온갖 색조가 물들여졌다.

하여 온 세계가 조선을 주시했다. 과연 사회주의보루인 조선에선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잃고 어떤 변화가 일겠는가. 그러나 조선은 그 어떤 동요와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조선은 크나큰 슬픔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념을 천백배로 가다듬고 수령님

께서 가리키신 사회주의한길로 꺾이지 않아갈 맹세드높이 혁명의 붉은기를 그 어느때보다 더높이 추켜들었다.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는 수령의 혁명위업이 빛나게 계승되여나가는 오늘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거기서 시대의 주도적감정, 인민의 사상정서적지향을 뜨겁게 노래한 명작이다.

가요는 붉은기를 종자로 하고 소박하면서도 무게있는 시형상세계를 통해 우리 붉은기는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의지따라 나아갈 인민의 붉은기라는 심오한 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붉은기, 이 얼마나 발견이 새롭고 풍부한 서정을 안고있는 종자인가.

붉은기에 깃든 심오한 사상의 예술적해명! 여기에 가요형상의 철학적깊이가 보장되고있다.

붉은기는 각양각색의 기발들중에서 진정으로 력사발전을 고무추동하는 기발이다. 피압박근로대중의 반항과 혁명투쟁의 산물로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붉은기는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의해 고수되고 그 승리의 력사와 더불어 사회주의진두에 나뭇긴 성스런 정의의 기발이다. 하여 지난 시기 나온 많은 노래들에서는 붉은기가 오래동안 혁명투쟁의 전기간 공산주의자들의 신념의 상징, 승리의 표대로 노래되여왔다.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는 지난 시기 나온 노래에 비할바없이 붉은기에 더 큰 사회정치적의의를 부여함으로써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새롭게 고찰한 혁명의 붉은기에 대한 심오한 사상이 웅심깊게 울려나온다.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에서 노래한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붉은기는 어떤 붉은기인가.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있다  
높이 들자 붉은기 맹세로 불타라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가요는 아버지수령님의 한생,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령도업적을 혁명의 붉은기와 결부시켜 붉은기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예술적형상으로 노래하였다. 여기에 가요의 형상적매력이 있

다.

우리의 붉은기는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붉은기이다.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혁명의 불바다, 피바다를 헤치시며 모진 고초를 다 이겨내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한생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안겨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력사에 류례없는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오시는 과정에 붉은기를 지켜오시고 그것을 혁명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로 빛내여오신 불멸의 업적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한평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세우실것을 혁명의 붉은 기발앞에 엄숙히 맹세다지시었다.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다진 맹세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었다.

혁명투쟁의 전기간 우리 수령님께서 당하신 가슴아픈 희생은 얼마며 겹쌓인 난관과 험산준령은 그 얼마였던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은 마음속깊이 묻어두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기에 축한을 만나 신음하시던 북만원정의 길에서도 **《반일전가》**를 부르시며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시였으며 해방후 종파분자들의 검질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주체의 혁명적당, 인민의 국가, 인민의 군대도 창건하시였으며 전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빛나게 지켜낼수 있었던것이다. 이처럼 **《이민위천》** 사상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기에 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혁명의 붉은기를 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한생을 불같이 살아오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의 붉은기를 안고가신것 아닌가.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높이 추켜드신 혁명의 붉은기는 그 어떤 색소에도 물들지 않고 력사의 온갖 진탕속에서도 영원히 탈색을 모르고 더욱더 붉게만 물드는 기발로, 언제나 백전백승의 기치로 휘날려왔다.

가요 1절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과 업적은 붉은기에 시적으로 집약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가사의 종자해명에 이바지하고있다.

력사의 준령을 헤쳐넘으며  
승리만을 기복에 새기여왔다  
높이 들자 붉은기 신념의 이 기발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우리의 붉은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의 상징이며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한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가 그대로 새겨져있는 승리의 기발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력사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한 승리의 력사이다.

꼭절많은 조선혁명이 엄혹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의 길에서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언제나 백전백승의 력사를 창조할수 있는것은 수령님께서 혁명의 붉은기를 주체사상으로 더욱 붉게 물들이시여 우리 혁명의 표대로 내세워주셨기때문이다.

수령님의 사상의지로 물들여진 붉은기가 있어 인민은 언제나 필승의 신념, 미래에 대한 혁명적 락관에 넘쳐 가장 간고하고 준엄했던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민의 새 세상, 사회주의부강조국을 일떠세웠으며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에도 끄떡없이 혁명의 붉은기를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수령의 위업은 참다운 후계자에 의하여 대를 이어 계승완성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우리 인민을 주체위업의 높은 평마루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수령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는가, 못드는가 하는것은 신념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데서 령도자의 결심과 신념이 중요하다. 령도자가 강하면 인민도 강하고 령도자가 흔들리면 인민도 흔들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무한히 충실하고 수령님에 대한 지극한 충효심을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백두에서 개척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었다.

하기에 사회주의운명과 인류의 전도가 결정되던 그 엄혹한 시기, 수령님을 잃은 슬픔에 눈물의 폭우를 쏟으며 목놓아울던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님의 환하신 영생의 모습을 안겨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 일으키시였다. 또한 수령님의 서거이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는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과 인



류가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우리는 친애하는 그이의 로작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운명을 두고 생각하시면서 비겁한자들은 혁명의 기발을 버리고가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갈것이라고 엄숙히 말씀하신 그이의 신념을 받아안게 된다.

높이 들자 붉은기!

이것은 오늘 지구상에 배신과 변절의 검은 바람이 몰아치고 우리 혁명을 고립말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지는 속에서도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드시어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시려는 친애하는 그이의 사상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오직 어버이수령님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혁명의 붉은기를 대를 이어 높이 추켜드신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수령님의 유훈교시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섰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의 한길로 곧바로 달려나가고있다.

이렇듯 가요는 정치적대를 확고히 세워 현시기 우리 당이 바라는 절실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종자로 하고 그것을 개성적인 예술적형상으로 꽃피워나감으로써 붉은기에 깃든 철학적인 사상을 보다 심화시켜 노래하고있다.

가요 3절은 1, 2절의 사상감정을 전인민적사상감정으로 승화시켜나가고있다.

이 기발 들고서 당을 받들고  
이 기발 지키며 내 조국 빛내리  
높이 들자 붉은기 주체의 한길에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그 시각부터 우리 인민의 가슴들에 더 세차게 끓어오르던 충성의 맹세를 대변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해 수령님께서 드셨던 혁명의 붉은기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더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길이 우리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조국을 부강하게 하며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길임을 절감하였다.

붉은기를 지키면 승리이고 붉은기를 버리면 죽음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피눈물속에서도 붉은기를 더 높이 들었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창건 50돐경축행사에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가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시위하였고 혁명의 길에 불바다가 펼쳐지고 지뢰밭이 놓여있다해도 오직 장군님만 따라갈 충성의 맹세도 더 굳게 다지였다.

3절에 구가된 붉은기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수할 우리 인

민의 계속혁명의 정신이 맥박쳐 세차게 휘날리는 신념과 의지의 기발이다.

이처럼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는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높은 형상적기교로 숨씨있게 노래함으로써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대도 혁명에 다진 맹세를 변치 않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신념이 어려있는 붉은기를 천세만세 휘날려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요는 우리 당과 혁명의 요구, 인민의 사상감정을 새롭고 진실하게, 절절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 큰 감화력을 발휘하고있다.

## 가사와 곡의 밀착

가요의 사상정서적견인력은 인민대중과 완전히 결합될 때 발양되는 법이다.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가 비상한 정서적감화력을 가진 시대의 명작으로 널리 불리워지는것은 가요의 전반적형상이 인민성을 띠고있는 노래라는데 있다.

가요형상이 인민성을 띤다는것은 가사의 사상적 내용이 인민대중의 정서와 구미에 맞는 형상요소들과 서로 밀착되어있다는것이다.

절가형식의 가요창작에서 감정조직, 서정구조를 잘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적대를 튼튼하게 하고 사상정서적감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가요는 혁명의 붉은기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정서의 흐름을 일관시켜나감으로써 가사형상의 초점을 명백히 하고있다.

특히 매절의 전반부(1, 2행)들에서는 붉은기에 대한 전폭적인 정서를 주고 후반부(3, 4행)들에서는 그로부터 환기되는 사상감정을 정서의 높은 마루로 이끌어가고있다. 또한 시형상전체를 놓고 볼 때도 붉은기에 대한 새로운 감정의 축적에 기초하여 3절에서 붉은기를 더 높이 들고나갈 신념의 맹세를 최고조에서 폭발시켜 작품의 종자를 예술적으로 꽃피우고있다.

서정을 본도로 하는 가요창작에서 기승전결의 흐름새에 맞는 감정조직을 치밀하게 엮어나간것은 가사와 곡의 밀착을 마련할수 있는 전제로 된다.

또한 기요 《높이 들자 붉은기》는 서성구조와 더불어 평범하면서도 발견이 있고 소박하면서도 철학적깊이가 있는 생활적인 시어와 시적표현들로 형상된 명가사이다.

절별로 상대적독자성을 띠면서 기승전결의 형식을 취하는 가사창작에서 음악적흐름에 맞는 시어와 시문장조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가사와 곡을 밀착시키는가 못하는가 하는 첨예한 문제이다.

특히 《붉은기》, 《한생》, 《맹세》, 《신념》, 《높이 들자》 등 시어와 시적표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귀익은 생활어이고 소박한 표현들이다.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다》는 시적표현은 비록 짧은 두행의 시이지만 거대한 폭과 깊이를 가진 내용이 함축되고 발견이 새로운 시적표현이다. 또한 가요의 사상적 대를 더 굽게 해주는 표현이다. 이외에도 가요의 구절구절을 새기면 새길수록 붉은 기폭에 어린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시련 많고 준엄했던 년대들에 대한 련상들이 수없이 떠오르고 깊은 사색과 강한 정서적여운속에 잠기게 된다.

명가사들이 그러하듯이 이 가요는 직선적인 표현을 람발하지 않고 미사려구와 군더더기가 없이 깨끗하고 음악적률동성도 함께 내포하고있는 명가사이다.

가요는 이런 시어들을 민족적운물로 시문장을 조직함으로써 시어와 선률이 잘 밀착되고있다.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는 명가사에 맞게 명선률로 충만되어있다.

가요는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민족적선률이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노래하는 웅심깊고 점잖은 인민적인 시어와 하나의 정서적호흡속에 밀착되어있다.

가사내용의 철학적깊이에 따르는 무게있고 기백있는 선률을 선택한 여기에 가사와 곡을 훌륭히 밀착시킨 이 가요의 형상적매력이 있다.

가요는 단순하고 통속화된 대중적인 선률이 은

근하게 흐르다가 점차 격동적이고 량단적인 선률로 고조되어 전투적이고 기백있는, 철학적무게를 안은 선률의 개방으로 터침으로써 가사의 사상적 내용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격정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이렇게 가요는 시대와 인민의 사상적지향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사내용의 심도에 맞게 유순하면서도 무게있고 기백이 넘치는 선률을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누구나 다 쉽게 부를수 있는 대중가요로 되고있다.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는 창작가들의 형상적기교로 창작된 가요라기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가사, 명곡창작리론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용암처럼 끓어번지던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시대의 명작이다.

이 노래를 부르노라면 수령님의 혁명사상,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신념으로 더욱 붉어만지는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위업 완성으로 도도히 굽이쳐가는 불패의 일심단결의 대오를 보는듯하다.

어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적기가》를 부르며 혁명의 폭풍우를 달려온것처럼 우리는 90년대의 《적기가》를 높이 부르며 주체의 한길로 굳세게 걸어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와 같은 당이 요구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노래만을 안겨주기 위해 더욱더 분발해야 할것이다.

## 가사

# 혁명과 총

리명근

저 멀리 걸어온 투쟁의 길에  
언제나 함께 있는 우리의 총대  
혁명의 붉은기 높이 날리며  
나란히 함께 걸은 길동무라네  
아 총이어 우리 운명 총이어  
  
조국을 찾을 때도 지킬 때에도  
생사를 함께 해온 우리의 총대  
혁명의 불바람 헤치어가며

끝까지 함께 걸은 동지이라네  
아 총이어 우리 신념 총이어  
  
내 나라 사회주의 지키는 길에  
절대로 변함없는 우리의 총대  
혁명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순간도 놓지 않고 굳게 잡으리  
아 총이어 우리 승리 총이어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사람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진군을 고무하면서 온 사회에 혁명적분위기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김정일

##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는 당창건 50돐을 맞으며 우리 문학예술대오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올린 또 하나의 훌륭한 선물이다.

명가사에서 명곡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가!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다  
높이 들자 붉은기 맹세로 불타라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가사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이 가사는 비록 짧은 글이지만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이 어리어있고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력사가 담겨져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서 주체의 한길로 붉은기를 휘날려갈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반영되어있다.

군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은 법이라고 한것처럼

이 가사는 간명하게 씌여진 명가사이다. 독특하게 찾아쥔 종자를 가지고 튼튼하게 세운 정치적 대에 개성적으로 선택된 시어로 단 한마디의 군말도 없이 명백하고 통속적으로 엮여진 명작중의 명작이다.

우리는 한편의 작품을 써도 이렇게 써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쁨은 우리 인민의 기쁨이다.

이 노래를 들으며 나는 우리 시인들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한다. 사회주의보루를 지켜선 우리 조선의 시인된 궁지와 엄숙한 임무를 자각하고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기 위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

시인 리건구

##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것 같은 노래

오늘 우리 인민은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를 높이 부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즐기치게 투쟁하고있다.

10월의 대축전을 앞두고 힘차게 울려퍼진 이 노래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시대의 명작으로써 수천만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아안게 되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것과 같이 가슴이 후련해진다. 참으로 이 노래의 가사는 시대의 명가사이다.

가사 1절에서 시인이 노래한바와같이 우리의 붉은기발에는 조선혁명의 닦을 올리던 백두의 기슭에서부터 80여성상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온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한생이 어리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것처럼 높이 평가해주신 이 노래의 가사를 심장에 새겨볼수록 저의 가사문학을 담당한 책임일군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우리 시인들모두가 이와 같은 명작을 창작하도록 하는데 저의 적은 힘이나마 깡그리 바치고싶은 마음이다.

저는 시대가 요구하고 당이 바라는 명작을 보다 더 많이 훌륭하게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한 창작지도사업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키며 붉은기를 더 높이 들고 붉은

기아래서 순직할 신념의 각오를 안고 언제나 붉은기앞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빛나게 살겠다.

시인 전병구

## 90 년대의 《적기가》로 높이 부르며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시대적명작으로 창작발표되어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있다.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명가사에 명곡창작리론을 훌륭히 구현하여 종자가 명백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우리 시대의 명작으로 우리 나라 가요예술의 특출한 또하나의 성과작이다.

노래가 명곡으로 되자면 가사의 내용이 철학적깊이가 있어야 한다.

이 가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 당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문제를 사상적알맹이로 틀어쥐고 붉은기에 깃든 심오한 뜻을 사색적깊이가 있게 시적으로 완벽하게 일반화하고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추켜드셨던 붉은기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따라서 계속 힘차게 휘날려가리라는 우리 인민들의 충효

일심의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노래는 가사와 선율이 훌륭히 밀착됨으로써 부를수록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이 노래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창작되어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혁명적고조제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이처럼 시대적명작이 창작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다.

저는 가사시인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더 힘차게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과 온 세계 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90년대의 《적기가》로 이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명작창작을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시인 한관호

## 대지동 어머니

김도환

류다른 회의였다. 참가자들속에는 노동자와 농민이 있는가 하면 군인과 사무원들도 있었으며 지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가두녀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틀테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크나큰 배려와 관심속에 진행되는 성대한 군민련환모임이라고 할수 있었다.

부드러운 형광등이 은은히 빛을 뿌리고있는 넓다란 인민문화궁전 회의장에는 일종의 열광이 흐르고있었다.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지난 기간 온갖 성의를 다하여 인민군대를 원호한 가지가지 자랑과 경험들을 이야기했다.

그 어조들은 각양각색이었으나 한결같이 감동적이어서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었다. 매토론자들은 자주 터져오르는 박수로 하여 몇번씩 말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북산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축산과장 박덕삼은 손이 열열하게 박수를 치는속에서도 앞줄에 앉은 차성녀어머니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차성녀는 앞줄 등반이 가름대를 두손으로 꼭 잡은채 의자끝에 불편스레 나앉아있었다.

덕삼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다치면서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편안히 들어앉으십시오.》

차성녀는 몸을 움직지려 의자등반이에 기대는 듯 싶더니 어느사이엔 또 의자끝에 나앉았다.

덕삼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저으기 답답하게 느껴져 부지중 미간을 찌프리었다. 몸에 어울리는 약산단 꽃치마저고리가 거북스레 느껴져 저러는것은 결코 아닐것이였다.

덕삼은 그가 왜 저리도 안절부절 못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평양에 올라와서 이틀째되던 날이였다.

뜻밖에도 차성녀가 집에 내려보내달라고 제기하여왔다.

(아니, 회의에 참가하다말고 돌아가겠다니?)

그때 덕삼은 놀라운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디 몸이 아픈가, 혹시 영예군인인 집령감이 걱정되어서 그러는가고 물었으나 그는 머리를 흔들뿐이였다.

그래서 회의에 일단 참가한이상 그렇게 하여서

는 안된다고 꼭 눌러놓았는데 오늘아침 회의 시작전에 또다시 집에 보내달라는것이 아닌가.

《웬일이십니까?》

《글쎄... 내려보내주시우.》

《어머니, 떠나올 때 군당책임비서동지도 일체 집걱정은 말고 회의에 잘 참가하고 오라고 당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렇긴 한데...》

《다시는 그런 제기를 입밖에 내지 마십시오.》

덕삼은 정색한 표정을 짓고 더 말을 못하게 밀막아버리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오전회의 첫 휴식시간에 또다시 덕삼이를 찾아와서 사뭇 절절한 어조로 간청했다.

《축산과장, 제발 좀 힘써주시우.》

덕삼은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는데도 입이 무거운 어머니가 이처럼 자주 제기할 때에는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것이 틀림없다.

《혹시 집에 불상사라도 생긴것이 아닙니까?》

《아니, 불상사는 무슨 불상사...》

《그럼 대체 무슨 일입니까?》

덕삼은 저도 모르게 연성이 높아졌다. 그래도 어머니는 말하기를 몹시 저어했다.

《일없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내용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지 하지요.》

어머니는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어서요.》 덕삼은 다우쳤다. 어머니는 그제야 마지못해 떠듬떠듬 입을 여는것이였다.

《이런 제기를 하기는 참 안되었는데...다른것이 아니라...집에 있는 어미돼지가...오늘래일...새끼를 낳을것 같아서...》

《네에?!》

덕삼은 한동안 눈을 껌벅껌벅하며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그만 《허허...》 웃고말았다.

《참 어머니두... 그런걸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는줄 알았지요. 정말 괜한 걱정을 하십니다. 그 일때문이라면 올라올 때 마을사람들이 다 도와주도록 대책까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글쎄 곁에서 도와주기가 하겠지... 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편안치 않구만.》

《됐습니다. 됐습니다. 마음을 꼭 놓으십시오.》

중요한 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런 회의에야 백사를 제쳐놓고서라도 꼭 참가하셔야지요.》

모름지기 이번에 차성녀를 비롯한 숨은 공로자들에게 큼직한 평가사업도 있을것이었다.

어머니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것이다. 그런데도 내 노랑병아리만 내놓으라는격으로 한사코 집으로 내려보내달라고 하니 세상에 이처럼 답답한 일이 있는가. 돼지새끼를 받는 일이 아무리 중하다고 해도 어찌 쉽게 차례질수 없는 그 영광의 시각과 바꿀수 있단말인가.

사실 덕삼이가 차성녀어머니의 평양회의참가때문에 은근히 원심을 쓴것도 집으로 내려보내달라는 제기를 무작정 밀막아버린것도 미구에 있게 될 그 영광의 시각때문이라 할수 있다.

어머니는 웅당 만사람의 축복속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숨은 공로자였다.

인민군대를 원호하는데 바쳐진 어머니의 그 정성을 생각할 때마다 덕삼은 매양 가슴이 뜨거워오름을 금할수가 없었다. 지금도 몇해전 돼지우리건설문제때문에 복산군 오봉리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서 차성녀와 처음으로 만났던 일이 떠올라 이상하게 가슴이 젖어왔다.

그때 덕삼은 오봉산골짜기를 빠져나오다가 어디선가 《꿀-꿀꿀》 하고 돼지를 부르는 농촌아낙네의 특유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마치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듯 근심과 걱정이 비껴있는 그 부름소리를 듣자 더는 그대로 지나갈수 없었다.

소리나는쪽을 찾아가보니 웬 녀인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풀덤불속을 정신없이 헤치고있었다.

《돼지를 잃었습니까?》

《새끼돼지를 받아가다가 그만 놓쳐버려서...》

녀인은 안타까운 심정이 복받치는지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빈배낭을 들고서있는 녀인의 두팔은 맥없이 커지고 주름살이 간 고동색얼굴은 온통 땀에 젖어있었다.

덕삼은 시름에 겨운 녀인의 모습을 보고 측은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녀인과 함께 돼지새끼를 찾아 골짜기를 뒤졌다. 나무그루터기에 발목이 걸려 허양 나뭇그라지기도 하고 물이끼가 한벌 덮인 웅덩이에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곁에서는 돼지를 찾는 녀인의 애라는 부름소리가 쉬임없이 울리었다.

두사람이 그처럼 신고하여 골짜기를 뒤졌으나 돼지새끼는 땅속으로 찾아들었는지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인젠 찾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날이 어슬어슬해지자 덕삼은 옷에 게발린 푸르

죽죽한 물이끼와 덩불을 털며 이렇게 말했다.

골짜기안의 모든것이 어둠속에 잠겨 검게만 보였다.

《손님은 길이 바쁘시겠는데 어서 가보시우. 수고를 끼쳐 참 안됐수. 내 좀 찾아보다가 내려가리다. 골짜기어귀에 친척집이 있으니 걱정마시우.》

덕삼은 참으로 딱하였다. 함께 마저 찾아보고 싶었으나 한시빨리 읍으로 들어가야 할 일이 있었던것이다.

《그럼 어머니, 제 먼저... 찾다가 없으면 그냥 내려오십시오. 아무래도 찾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새끼돼지는 제가 책임적으로 얻어드리지요... 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축산과장입니다. 꼭 찾아오십시오.》

덕삼은 만날 장소와 시간까지 약속하고 녀인의 결을 떠났다. 등뒤에선 홀로 남은 녀인의 《꿀-꿀꿀》 하고 부르는 소리가 그냥 들려왔다.

근심과 걱정이 어린 그 목소리는 어두운 공간에서 길게 여운을 끌며 메아리처럼 울리었다.

문득 덕삼은 어릴적 저녁 늦도록 강변에서 뛰놀던 자기를 찾아 《덕삼아-덕삼아-》 하고 찾던 어머니의 부름소리가 귀전에 들리는것만 같아 마음이 이상스럽게 찌르르해졌다. 저렇게 온밤 소리치다가 혹시 목이나 상하지 않겠는지...

덕삼은 어머니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다음날 그 시간에 새끼돼지를 마련해놓고 기다렸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찌된 일인지 찾아오지 않았다. 한달후인가 쟁쟁고개길에서 돼지물을 실은 손달구지를 밀고가는 어머니를 우연히 만난 덕삼은 왜 찾아오지 않았는가 물었더니 그는 시뭇이 웃으며 《새끼돼지를 찾았습지요.》 하는것이였다.

《찾았다니요?》

덕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자 어머니는 그 이른날에도 골짜기를 헤매다가 혼련나온 인민군대동무들이 도와주어서 끝내 새끼돼지를 찾아낸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신의 수고보다 군대들을 고생시킨것이 못내 미안하다고 몇번이고 거듭 외쳤다.

덕삼은 온밤 골짜기를 헤매며 고생하였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그를 마지막까지 도와주지 못한 자신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덕삼이 축산과장으로서는 어머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은후부터였다.

알고보니 어머니는 두팔이 없는 영예군인과 함께 살고있으면서도 매해 한톤이상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인민군대안의 여러 구분대들에 보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들이 다 자는 이른새벽에

손달구지를 끌고 읍내 식당이란 식당은 다 돌아다니면서 돼지물을 얻어들이기도 했고 집뒤에 있는 야산에 호박산과 칙산을 꾸러 한해에 여러 달 구지씩 돼지먹이를 따들이기도 했다.

성녀어머니가 돼지를 어찌나 잘 길러냈던지 그가 살고있는 대지동을 돼지동이라 부르기까지 했다. 그래서 《대지동어머니》라 불리우는 그를 《돼지동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흑간씩 나타나곤 했다. 여하튼 돼지를 기르느라고 대사집 맘머느리처럼 분주히 지내온 어머니였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가 어찌된 일인지 처음에는 이번 회의에 참가할 명단에 들지 못했었다.

덕삼은 이 사실을 매우 언짢게 생각하면서 군내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성녀에 대해 흥분에 넘쳐 말했었다.

백번 듣기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돼지목장을 방불케 하는 그의 집에 가보라. 어미돼지칸 밑으로는 살림방처럼 거울에도 춤지 말라고 온돌까지 놓았는데 새끼나이를 할 때에는 아예 거기서 떠나지를 않는다.

바로 그렇게 일심정성을 다해 키워낸 돼지를 고스란히 인민군대에 원호하곤한다. 그것도 한부대만 아니라 매번 부대를 달리하며 원호하기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것이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해놓고도 말이 없고 자랑할줄 모르는 어머니란 말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우리 일군들이 찾아내고 내세워주지 않는다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차성녀는 평양으로 올라오게 되었던것이다.

덕삼은 평양에 올라온후에도 어머니를 여러모로 각근히 보살펴주었다.

어머니는 주체사상탑이며 3대혁명전시관을 참관하느라 평양의 거리를 거닐 때 놀라운 눈길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곤했다. 그때마다 덕삼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를 참 잘했다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금치 못했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시골티가 흐르는 어머니의 옷차림새를 보고 지나쳐가던 두명의 멋쟁이처녀가 키득거리며 웃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격분하여 그들을 쏘아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1

(어머니를 함부로 비웃지 마오. 인민군대에 보내줄 돼지고기를 생산하느라 동무네들처럼 언제 한번 화려한 옷을 입어보지 못하고 지내온 어머니란 말이요!)

그러다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돌아볼 때였다.

그때 차성녀는 머리에 탄약상자를 이고 싸우는 고지대로 오르는 한 녀인의 동상앞에 굳어진듯

오래도록 서있었다. 동상에 어찌나 심취되었던지 차성녀는 참관대오에서 떨어지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참 어머니, 뭘하십니까? 빨리 갑시다.》

덕삼이 이렇게 소리쳐서야 차성녀는 동상앞에서 물러나 참관대오를 따라잡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성녀의 눈굽이 축축이 젖어있었다. 차성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듯 머리를 꼭 수그리고 걸어갔다.

(왜 저럴까?)

덕삼은 커다란 눈을 습벽이며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동상앞에서는 누구나 충동을 받기마련이지만 차성녀의 그 거동만은 너무도 류다르지 않는가. 혹시 동상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될 무슨 사연이라도 있단말인가?

덕삼은 후날에 가서야 그 까닭을 알게 되었다.

그때 차성녀는 탄약상자를 이고 달려가는 녀인의 모습에서 뜻밖에도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것이다!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타래치던 준엄한 시절이었다. 그때 량태머리쳐녀였던 차성녀는 치마허리를 질끈 동이고 머리에 탄약상자를 이고 달려가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싸우는 고지에 오르 고있었다. 앞뒤에서 포탄이 작렬하고 화광이 번쩍거렸다. 눈앞에서 땅이 뒤집히는듯한 그 찰나였다. 《엎드렷!》 웬 병사가 어머니에게로 날아들며 벽력같은 소리를 질렀다. 온몸에 덮씩워진 흙먼지를 털며 차성녀가 량태머리를 뒤로 넘겼을 때 그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정경에 그만 무서운 비명을 질렀다. 이름모를 병사가 온몸으로 어머니를 덮고 있었는데 병사의 두팔소매는 여지없이 찢어져 피가 질벅하였다.

《군인동무! 정신차리세요!》

차성녀는 너무도 억이 막혀 두손을 잃은 병사를 부여잡고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병사는 성녀의 어머니가 무사한것을 확인하고서야 얼굴을 고통스레 찡그리며 입을 열었다.

《나는 일없습니다. 어서 빨리 고지에 탄약을!...》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차성녀는 병사를 돌쳐업고 야전군의소로 달리고 어머니는 성녀의 탄약상자까지 이고 고지로 치달아올랐다. 가렬치절한 날이었었다. 누가 누구를 하는 판가리 결전장이었다.

어느날 한발 늦게 탄약상자를 이고 고지에 오른 차성녀는 군인들의 애끓는 부름을 받고있는 어머니를 보고 허둥지둥 다가갔다.

어머니는 적탄에 치명상을 입고도 끝끝내 고지

에 탄약상자를 올려다놓고서야 쓰러졌던 것이다.

이윽고 눈을 뜬 어머니는 눈물 흘리는 전사들을 사랑어린 눈길로 둘러보다가

《울지들 말게 …미국놈을 쳐야지…》 하고는 남쪽하늘을 노려보며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 어머니!》

병사들과 처녀의 피타게 울부짖는 목소리가 싸우는 고지의 전호가와 골짜기들에 여운처럼 오래 동안 남아있었다. 세월이 제아무리 망각의 이끼를 덮고덮는다 한들 어찌 차성녀의 뇌리에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지워버릴수 있으랴.

탄약상자를 이고 달려가는 녀인의 군상, 그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서있는 차성녀, 그것은 정녕 어머니와 딸의 눈물겨운 상봉이었다.

그때 두팔을 잃은 그 병사가 다름아닌 차성녀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덕삼은 다시한번 뜨거운 충격속에 머리를 끄덕였다.

요란스러운 박수소리에 덕삼은 자기 생각에서 깨어났다. 분계선도시의 어느 피복공장 지배인이 토론하고있었다. 그의 토론에 또한 감동되어서인지 성녀어머니는 웃고름으로 눈굴을 찌고있었다.

(어머니, 어머니도 그에 못지 않게 일을 했습니다. 가슴을 쭉 펴고 머리를 번쩍 쳐드십시오!)

덕삼은 어머니를 향해 속으로 부르짖었다.

오전회의 두번째 휴식시간이었다. 홀에 나와서 사람들과 신이 나서 회의감상을 주고받는데 누군가 슬그머니 옷자락을 잡아당기었다. 돌아보니 성녀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덕삼의 팔을 잡으며 조용한 구석쪽으로 끌었다.

왜 이렇가. 또 그 문제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닐가.

《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기대를 안고 쳐다보는 어머니의 눈길에서는 결정적으로 아귀를 지으려는 확고한 결심이 어려있는것 같았다.

《헛참, 어머니도 답답합니다. 우에서 그런 제기를 받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덕삼은 진정으로 안타까와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의 생각을 드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 과장이 못제기하겠으면 나한테 알려주시우. 누굴 만나면 되겠는지…》

덕삼은 문득 어머니가 자기 결심을 단념하지 않으리라는것을 그리고 그를 설복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하자고 하는 일은 기어이 하고야마는 어머니라는 생각이 뇌리를 쿵 찢었던것이다. 덕삼은 입을 다시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가 모두숨을 내쉬었

다.

《정 그렇다면 어찌겠습니까. 우에 제기는 해봅시다. 그러나 승인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덕삼은 더 할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머뭇머뭇 하더니 《그럼 과장이 마저 수고해주시우.》 하고 죄송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다가 저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덕삼은 측은한 눈길로 어머니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결심한듯 입을 꼭 다물고 홀과 련결된 복도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얼마후 이마가 벗어지고 몸이 뚱뚱한 해당일군을 만난 덕삼은 어머니의 제기를 사실대로 보고했다.

《조직적으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밤에 려관에서 몰래 도망쳐서라도 잡습니다.…그 어머니는 그런 분입니다.》

점심시간에 려관복도에서 성녀어머니를 만난 덕삼은 우선우선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제기했으니 저녁쯤해서는 무슨 소식이 있을겁니다. 내려가라든지, 가지 말라든지…내려가는 차는 밤 열시에 있지요.》

어머니는 마침내 희망을 얻은듯 두눈을 빛내이고있었다.

오후회의는 정각 3시부터 시작되었다. 아직 회의 시작전이어서 불빛이 휘황한 넓다란 장내는 가벼운 소음으로 차있었다.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정무원과 인민무력부의 책임일군들이 주석단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자 소음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일종의 긴장한 정적이 깃들었다.

장내가 정돈되자 회의 집행일군이 연락에 나와 장내를 한번 휘둘러보더니 여느때없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후회의에 앞서 한가지 집행부의 의견을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장내는 일순간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었다. 마이크를 통해 집행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퍼지었다.

《지금 이 회의장에는 복산군에서 올라온 차성녀어머니가 참가하고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난 십년간 해마다 한톤이상의 돼지고기를 인민군대에 보내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회의도중에 집에 내려보내달라는 제기를 하여왔습니다. 리유인즉 집에 있는 어미돼지가 오늘래일 새끼를 낳게 되었다는것입니다.》

갑자기 온 장내가 술렁거리었다. 덕삼은 아찔하였다. 일이 이렇게 번져질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결과를 조용히 알리어 처리할줄 알았는데 이처럼 만사람앞에 공개하다니?!



《그래서 회의집행부는 차성녀어머니의 제기를 받고 토론하던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시다.》

모두가 숨쉬기를 저어하며 호기심어린 눈길로 연락을 주시했다. 덕삼은 온몸이 그대로 귀가 되는것 같았다.

집행자의 목소리가 유난스레 찌렁찌렁 장내를 울리었다.

《차성녀 어머니는 응당 만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영광의 자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오늘중으로 집에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아니라도 동네에서 돼지새끼를 잘 받아내겠지만 제 손으로 받아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겁니다.

인민군대에 보낼 돼지를 어찌 남한테 맡겨두고 자기는 편안히 앉아있겠는가 하는것이 바로 차성녀어머니의 심정입니다.

동지들! 얼마나 귀중히 사야 할 보석같은 마음입니까? 이런 어머니는 응당 회의주석단에 모셔야 한다는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순간 장내를 들었다놓는 우뢰같은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덕삼은 그만 가슴이 터질듯한 격정에 휩싸였다.

(아, 아, 일이 이렇게 되다니!)

《북산군에서 올라온 차성녀어머니, 어서 주석단으로 올라와주십시오!》

주석단에서 찾는 소리에 맞추어 장내에 울리는 박수소리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어머니는 몸을 웅송그린채 꼼짝않고 그자리에 앉아있었다. 덕삼은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 성녀어머니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주석단에서 부릅니다!》

덕삼은 어머니의 몸을 부축해 일으켜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두손을 내저었다.

《제발 이러지들 마시우. 원 내가 무슨 한 일이 있다구.》

덕삼은 무작정 후들후들 떠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일어섰다. 어머니는 제 정신이 아닌듯싶었다. 자신을 향해 모두가 박수를 치는것이 너무나도 분에 넘친다고 생각되어서인지 머리를 들기를 부끄러워했고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했다.

그런 어머니를 앞으로 밀다싶이하며 걸음을 옮겨나가는 덕삼이 역시 자기의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 몰랐다.

주석단에 앉아있던 간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조심스레 부축해서 가운데자리로 모셔갔다. 어머니는 너무도 황송하여 어쩔바를 모르고 두손을 앞에 모아권채 머리를 숙여 사방에 자꾸 인사를 할뿐이었다. 박수소리는 더욱 세차게 장내를 뒤흔들었다.

문득 덕삼은 자신이 이제껏 것처럼 내세워주지 못해 마음을 썼던 그자리와는 비할바없이 그런 아득한 높이에 어머니가 서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자리야말로 차성녀어머니같은분들이 앉아야 할 자리라는것을 크나큰 감격과 환희속에 깨달았다.

이때 토론연단으로 한 인민군군관이 달려나가고있었다. 연단에 나선 그 군관은 가슴속에서 터져오르는 격정을 참지 못하는듯 손을 연방 내흔들었다.

《차성녀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차성녀어머니와 같은 이런 어머니들의 보석같은 귀중한 마음에 떠받들려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무서울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백전백승할것입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어머니의 그 애국적인 지성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입니다.》

감격과 흥분을 담은 우뢰같은 박수가 폭풍처럼 장내를 휩쓸었다. 그것은 하나의 일념으로 불타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격동된 심장과 심장들의 분출이었다.

덕삼은 뜨거운 불덩어리같은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짹 막는것 같았다. 코마루가 저려나고 눈곱이 뜨끈뜨끈해지며 눈물이 쿵 솟아올랐다. 머리를 들어 바라보니 성녀어머니의 주름진 량볼에서도 굵다란 두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있었다. 덕삼은 그만 달려가 수수하고 소박한 그 녀인을 불안고 목이 터지도록 웨치고싶었다.

(어머니! 대지동어머니!)

이제야 덕삼은 그 부름속에 조국의 모든것을 떠받들고있는 대지와도 같은 어머니의 참모습이 비껴있음을 똑똑히 보게 되는것이였다.

이 순간 돌이켜보고싶은 추억인들 얼마나 많으랴. 하지만 그 많은 추억들대신에 이상하게도 언제인가 어두운 골짜기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던 어머니의 그 애뜻한 목소리가 덕삼의 귀전에 들려오는것이였다. 《꿀-꿀꿀》, 《꿀-꿀꿀》

시초

## 오늘도 그날처럼

(총련) 허옥녀

### 오늘도 그날처럼

두팔 벌려  
포근히 안아주듯  
정답게 맞아주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앞에 서니  
잊지 못할 그날이 생각납니다

다섯해전  
함박눈 소리없이 내리던 설맞이날  
이제나저제나 울렁이는 가슴 안고  
아버이수령님 만나뵈울 그 순간을  
기다리고기다리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폭풍같은 환호속  
환하게 웃으시며 걸어오신 수령님께서  
흐느끼기만하는 저의 손을  
뜨겁게뜨겁게 잡아주신  
꿈같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수령님, 아버지수령님  
오늘도 그날처럼 목메여 찾는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부르고불러도 다시 부르고싶은 분이시여

내 가슴속에 꼭 차계시는 분이시여  
  
그날처럼 저를 곁에 세워주시여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고  
그날에 다 못올린 천백마디 말  
다시 정겹게 들어주십니까

내 순간이나마  
그날의 사랑을 잊고 살았다면  
그날의 맹세를 저버렸다면  
다시는 설수 없는 이자리

내 오늘 복받은 소년궁전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국의 한길 걸어가는 나의 앞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을!

똑똑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국떠나 이역만리에 살아도  
태양의 축복속에 안겨살  
자신의 앞날을!

### 조국의 아침

물안개 피여오르는  
꿈속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아침  
이름모를 새들의 지저귀에 홀리어  
대동강반을 천천히 거닐었더니  
여기서도 저기서도 글 읽는 소리

조용조용 속삭이듯 노래부르듯  
은은히 울려오네 글 읽는 소리  
  
일터로 향하는가 끝 끝한 청년도  
애기 업고 분주히 걸어가는 아낙네도

한손엔 가방, 한손엔 책을 들어  
무슨 글을 외우는지 결눈도 안파네

지금 그대들의 마음은  
어느 리상의 밝은 언덕을 걷고있는가  
간밤에 채 모르익히지 못한  
발명의 상상봉으로 치닫고있는가

그대들의 모습에  
제국주의압살에도 끄떡없이  
위대한 장군님따라  
자기의 한길을 걸어가는  
조국의 모습이 비껴있구나

조국의 숨결이 비껴있구나》

너무나도 레사로운 아침이건만  
거치른 이역에서 찾아온 나에겐  
황홀하기만 하구나  
가슴뜨겁기만 하구나

뿌얀 안개가 서서히 걷힌다  
푸르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다  
이역에서도 결코 어지러워질수 없는  
자기의 신념을 심어준 아침이여  
해쏜는 조국의 아침이여

## 하얀 치마저고리

내 조국땅을 밟으니  
더더욱 마음속에  
정답게 안겨오는 그 모습  
천만사람들의 가슴에  
백의민족의 소박한 모습으로 새겨진  
박용길녀사여

서울을 떠날 때부터 당신은  
수정같이 맑은 한마음 안고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으셨습니다

지구를 돌고돌아  
평양에 도착한 력사적인 순간에도  
흰눈처럼 깨끗한 한마음 안고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으셨습니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오매에도 흠모하던 어버이수령님께  
큰절을 삼가 올리셨을 때도

문익환목사의 소망까지 합쳐  
온 민족이 우러러바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는  
최상의 행운을 지냈을 때도

당신은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으셨습니다  
천지의 물처럼 백록담의 물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한마음 안고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으셨습니다

원한의 분계선을 두발로 짓밟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을 랑손으로 떠받들고  
통일조국 만만세를 소리높이 부르실 때도  
이해가 가기전에 통일을 이루자고  
통일의 비둘기처럼 옷자락 날리며  
육탄이 되어 분계선을 넘어설 때도  
아, 당신은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으셨습니다

그 하얀 치마저고리는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충효의 도리를  
심장에 지닌 사람만이 입을수 있는것  
총칼도 두렵없이 통일맛이 봄길을  
한껏 열어갈 사람만이 입을수 있는것

아, 당신이 입으신 하얀 치마저고리는  
수령님을 받들고 장군님을 받드는  
담넉땅 인민들의 껴이지 않는 지조!  
온 나라 겨레들의 송죽같은 절개!  
통일을 이루고야말 7천만의 맹세!

그 누구도 더럽히지 못하리니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리니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통일의 천사》로 력사에 우뚝 솟은  
박용길녀사여

파쑸의 살풍이 불어치는 철창가에서도  
위대한 민족의 태양만을 따르며  
순결한 민족의 넋을 안고  
오늘도 당신은 거연히 서계십니다  
그날의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으시고...

## 우리 행복을 두고

리종성

무릇 인간은 평범한 날들에 안겨지는 기쁨속에서 행복의 크기를 새롭게 깨닫는 모양이다.

보통날과 다름없이 출근길에 오른 나는 궤도전차에 앉아 오늘호 당보를 펼쳐들었다. 신문 1면을 펼치던 나는 저도 모르게 《아!》 하고 가벼운 탄성을 질렀다.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최전연 초소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이 거의 한면을 다 차지하였기때문이다. 장군님을 모시고 한가정처럼 오붓하게 둘러앉아 사진을 찍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끝없는 행복감이 어려있었다. 그 전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나는 깜짝 놀라 신문을 눈앞으로 가까이 끌어당겨 눈여겨보았다. 틀림없이 나의 동생이었다. 집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한상한상 늘어날 때마다 자기는 꼭 장군님의 전사가 되어서 영웅이 된후 그이를 모시고 사진을 찍겠노라 으시대던 막내동생이었다. 군사복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그애가 장군님을 모신 뒤줄에 서서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띠우고 의젓하게 서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눈곱이 뜨거워오며 눈앞이 뽕양게 흐려와 얼른 눈가로 손을 가져갔다. 옆에 앉아 같이 신문을 보던 과학자풍의 장년이 웬일인가 하여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는 이 기쁨을 그저 물어둘수 없어 동생을 가리키며 내동생이라고 조용히 말하였다.

그러자 옆에 둘러섰던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기쁨인듯이 너도나도 신문을 들여다보고는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정말 기쁘겠습니다.》, 《아주 의젓한 동생을 두었군요.》 모두가 한마디씩 인사를 하는데 마치 내가 꼭 친애하는 그이를 모시였던 당자였던듯이 나의 손을 잡고 흔들며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었다. 그속에서 나는 어쩔바를 몰라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었다. 이때 과학자풍의 장년이 생각깊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것이 어찌 이 동무네 가정에만 찾아든 기쁨이겠소. 전달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녀성군인들의 해상훈련을 지도하시었는데 우리 조카애가 그이를 모시는 영광을 지녔답니다.》

그렇다. 어찌 이런 기쁨이 우리 한두가정에 차례진 기쁨이라고만 할수 있으랴.

올해 설명절날부터 시작해서 경애하든 그이께서는 얼마나 많은 현지도도의 길을 걸으시며 초소의 병사들을 찾으셨고 병사들과 또 얼마나 많은 기념사진을 찍으셨던가.

설명절아침에는 친부모들도 미처 초소의 아들

을 생각지 못하고있을 때 초소의 군인들을 먼저 찾아주셨고 찬바람 부는 2월의 그날에는 조국의 관문을 지켜신 최전방부대의 녀성해안포병들을 찾으시여 바다바람에 튼 처녀들의 얼굴을 걱정하시며 사랑의 약크림까지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러시고도 평양견학을 하고싶다는 처녀병사들의 작은 소원까지 헤아려 중대전원을 평양으로 불러주시고 평양 시내 모든 극장들과 영화관, 사적지와 전람관들을 다 돌아보게 하셨으며 국가적 행사만 하는 목란관에서 이름없는 병사들에게 큰 연회까지 차려주시였다. 외국의 수반급들만이 앉던 의자에 보통 수수한 병사들을 앉혀주시고도 매 병사들에게 천연색으로 된 사진첩을 만들어 주라고 하셨으며 사진첩이 다 된 다음에는 몸소 한장한장 번져보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빈장들까지 마저 채워주되 첫장만은 이다음에 애인이 생겨 함께 찍어붙일수 있게 남겨두라고 세심한 가르침을 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은정깊은 사진첩을 받아든 처녀들은 《우리 장군님 만세!》,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라고 격정을 터뜨렸고 눈물속에 서로 얼싸안았다.

그 어떤 다른 말로 더 표현할수 없어 터친 《우리 장군님 제일》이라는 이 웨침은 정녕 그들의 심장의 웨침인것이다.

친부모인들 어찌 이보다 더 살뜰하고 이보다 더 다심할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열의인, 정의인, 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배풀수 있는 뜨거운 은정인것이다.

이런 불같은 사랑이 병사들을 키우기에, 이런 세심한 사랑속에서 한결음한결음 걸음마를 떼여왔기에 우리 병사들은 적들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함이 없이 장군님 사상을 지켜 장군님 노래를 부르며 장군님 품을 찾아 영웅적으로 싸우고 돌아오지 않았던가. 이런 웅심깊은 어버이사랑속에서 자란 병사이기에 단 한방의 명중탄으로 미국놈비행기를 쏘떨군것이며 불붙는 병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안아내오고 터지는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아 동지들을 구원하는데 청춘도 서슴없이 내대는것이리라.

자기를 키워주는 사랑에 불같이 펼쳐일어나 대답하는 병사들, 이런 병사들을 품어주고 키워주는 품, 아니 병사들만이 아닌 수천만 우리 인민들을 따듯이 품안아 온갖 사랑을 다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에 너도나도 우리모두

가 다 안겨있는것이 아닌가.

나의 생각을 깨뜨리며 전차방송에서 힘있는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

아 **김정일**장군 따르는 길에  
우리모두 영웅이 되자 영웅이 되자

...

《저게 바로 우리 병사들의 목소리란 말이요.  
위대한 령장을 모시지 못했다면 저렇게 긍지높고  
배심든든한 웨침이 어떻게 나올수 있겠소!》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  
던 과학자풍의 장년이 누구에게라없이 생각깊은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정말 그렇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를 모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저처럼 자량과 긍지  
에 넘쳐 행복에 넘쳐 사나운 폭풍우도 불바다도  
두려움 없다고,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만이 있다

고 노래할수 있을것인가.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장군님을 모시고 오붓이  
둘러앉은 병사들을 눈여겨보느라니 그들의 가슴  
마다에서 금별메달이 번쩍이는듯싶었다. 또 금별  
메달을 빛내이며 고향집에 들어서는 동생의 모습  
도 눈에 삼삼 안겨오는것이였다.

아니 나는 확신하고싶었다. 군사 교범과 명령  
으로 전사들을 다스리기전에 이 세상 그 어느 어  
머니도 따를수 없는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으로  
병사들을 보살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버이품  
에 안겨있기에 그들은 모두 영웅이 되리라고...

궤도전차가 떴어섰다.

나는 평범한 날 아침에 받아안은 기쁨속에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행복의 크기를 새롭  
게 느끼며 출근길을 다그쳤다.

머리위에 빛나는 태양은 기쁨속에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더더욱 밝은 빛을 뿌리는  
듯 싶었다.

## 산촌풍경

신병윤

하늘아래 첫 동네  
예가 아닌가  
쳐다보면 가파로운 아슬한 산밭  
내려다보면 깊이깊은 아찔한 계곡  
어디서나 사과나무, 배나무  
가지가 휘도록 열매 주렁진 산간마을은

집집마다 울안엔  
갓가지 꽃들이 활짝 피여웃고  
뒤뜰엔 윤기나는 밤알이 쏟아져  
한겹으로 짙 깔렸구나

천길벼랑을 뛰어내리는  
폭포수의 장엄한 음향  
하이얀 자갈을 싹싹 씻어내리는  
물소리 유정한데

강건너 머루나무숲사이로 펼쳐진  
아담한 학교마당엔  
산뜻한 교복입은 처녀애들  
웃음소리, 노래소리 들리는듯마는듯

절경이로다  
불타는 단풍나무숲사이에 파묻힌

기암괴석들이여  
너는 병풍처럼 이 마을을 둘러치고  
어버이수령님의 농촌체제 빛발아래  
이교장을 가꾸어온 사람들의 성실함을  
엄숙히 증언하는듯

닭들은 꿩들과 한마당에 어울려 모이를 쫓고  
집집마다 살찐 돼지들과 소들의 영각소리  
아침저녁 연기자옥히 피어나는  
풍요한 산간마을이여

뉘라서 말을 할가  
낮선 손님인 우리  
제 손으로 향기로운 과일을 따고  
뒤뜰안의 밤알 마음껏 주어도  
그리고 물 한그릇 청하면  
달디단 산꿀까지 풀이 권하는  
이교장 사람들의 후한 인심이여

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에 안기여  
나날이 행복이 무르익는  
세상에 살기 좋은 내 나라에선  
어딜 가나 떠나고싶지 않아라  
어릴 가나 내 나라 위한 사랑을 더해주는구나

# 빛나는 구간

박원식

하루하루 가을은 짙어가고있었다.

단풍이 피빛으로 빨갭게 불타는 배차령을 누비며 아득히 뻗어올라간 두줄기 철길을 따라 동덕영기관사는 런 사흘째 조용히 혼자 걸었다.

이번에 어버이수령님의 유혼대로 배차령구간이 새롭게 중량화된것만큼 그에 맞게 응당 기관차의 견인력도 높여야 했다. 하지만 구래의연한 방법으로는 더이상 기관차견인력을 높일수 없다는 건 불보듯 뻔했다. 지나친 욕망의 분출로 리성을 잃은 모험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리상적인 새 운전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동덕영은 렬차가 지나갈 때마다 기관사들과 손짓으로 제어기 단수도 알아보고 철길을 힘있게 밟고 지나가는 차바퀴도 유심히 살피면서 수십장의 도면이 모두 보풀이 일도록 애를 쓰는데 좀처럼 되지 않았다. 그때문에 동덕영은 지금 마음이 천근같이 무거운데 집에선 또 왕청같은 전화련락이 와서 기분을 잡치게 했다.

래일은 60돐 생일날이니 어떻게하나 집에 내려와달라는것이였다.

60돐?! ... 어처구니가 없었다. 안해가 지금 제 정신인가? 도대체 이럴수가 있는가?...

동덕영은 자기가 무언가 오해하고있는것 같아 머리를 젓다가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시던 울봄에 안해가 자주 외우던 소리가 되살아나서 가슴을 아프게 훑어내렸다.

《차에서 내리라면 내리우다나. 년로보장생활은 또 그것대로 재미가 있답디다. 우린 뭐 만날 늙어 죽을 때까지 철길우에서만 숨박곡질하면서 살겠수? 이젠 좀 우리두 인생의 궤도를 바꿔타봅시다. 손주랑 데리고 뽀트도 좀 타면서...》

그때는 통으로 웃으며 받아주었던 안해의 그 말이 오늘은 이상하게 60돐이라는 말과 합쳐지면서 가슴에 가득차있는 슬픔을 아프게 건드렸다. 동시에 안해에 대한 원망과 함께 참을수 없는 울분을 자아냈다.

일생을 배차령구간에서 철길건늬길감시원으로 일해온 안해는 지난날 가정에서보다 철길우에서 남편을 더 많이 기다려온 녀자였다. 언제나 기발을 들고 차렷자세로 남편이 돌아오는 렬차를 맞고 지나보내는 일에서 더없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온 안해였다.

기관사와 건늬길감시원! 근무교대시간이 서로

다른 그들 부부는 자주 철길우에서 엇갈리며 출퇴근했지만 아직 누구도 그 생활에 짜증을 느껴본적은 없다. 그런데 이제와서 안해가 그런단 말인가?!...

동덕영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해가 인생의 마지막구간에 와서 자기와 다른 궤도에 옮겨앉으려 한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배반자》라는 욕설이 자꾸만 입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다.

동덕영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옷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가 즐겁고 피로던 심중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버릇처럼 꺼내보는 수첩이였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덕영은 첫장부터 펼쳤다. 그러자 감격에 흐느끼는 글자들이 앞다투어 달려오며 잊을수 없는 그날을 불러왔다.

1957년 X월 X일

활짝 핀 봄빛은 무더운 여름을 하루하루 끌여당기고있었다.

철썩!... 처철썩!...

조금만 달려가면 동해의 푸른 물에 퐁덩 몸을 잠그고 시원하게 미역을 감을수 있었건만 동덕영은 좀처럼 그럴짬을 낼수가 없었다. 조사와 함께 석탄재를 덜어야 했다.

《이렇게 더운날 불앞에서 정말 수고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우렁우렁하면서도 다정한 음성이 한껏 땀에 젖은 등을 어루쓸며 들려와 동덕영은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섰다.

《아!》

동덕영은 그만 쇠장대를 툄씩 떨구며 감격에 겨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언제나 초상화만 우려려보며 마음속에 그리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고 서계시는게 아닌가.

며칠전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여기 동해지구 공장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고계신다는건 알고있었지만 이렇듯 기관차앞에까지 오실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동덕영은 기름묻은 손을 어디다 어떻게 건사해야 할지 몰라 모자를 벗고 그속에 감추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 그렇지 뭐랴오. 자 한번 잡아봅시다.》

수령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동덕영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고나서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동무는 언제부터 기관사가 됐소? 나이는 아직 어린것 같은데 ?》

《스물두살입니다. 기관사가 된지는 며칠밖에 안됩니다.》

《그렇소? ! 그런데 몸이 좀 약하구만!... 그래 부모님들은 뭘하시오?》

수령님께서는 기관사가 된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 했을 부모의 심성을 헤아려서인지 아니면 동득영의 약한 몸에서 그 어떤 사연이 있다고 생각되어 그러시는지 미간에 알릴듯말듯 주름을 지으시고 주의깊게 대답을 기다리셨다.

동득영은 머리를 숙이며 부모는 없다고 대답을 했다.

《고향은 어디요?》

(아! 수령님께서 고향을 물어주신다! 나의 고향을!... 그러니 나는 이제 어떻게 대답해올려야 한단 말인가?!...)

동득영은 터질듯 가쁜숨을 몰아쉬며 더욱 깊이 깊이 머리를 숙이었다.

(도대체 나의 고향은 어딘가? 나서 자란곳이 고향이라고 했는데 나는 어디서 나서 어디서 자랐던가? 내가 울음을 터치고 태를 묻은 고장은 어디며 꼭꼭 숨어라 머리칼이 보인다 하고 철없이 뛰놀던 유년시절의 발자취는 과연 어디다 찍어봤는가?!)

해방전 어느해 가을이었다.

아침노을이 불그스레 물든 이슬젖은 철길을 누비며 달리는 화물열차방통안에서 때아니게 한 여인이 몸부림치고있었다.

부모없는 고아로 지주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동가성을 가진 기관차화부와 짝을 이룬 불쌍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지주집에서 쫓겨난 여인은 갈곳이 없었다. 죽어도 남편곁에서 죽고싶다는 그 애절한 소원을 뿌리칠수 없었던 기관조사는 그만하면 《행복》했다. 오늘 승무가 끝나면 어느 다리밑에라도 움막을 치고 안해의 거처를 마련해줄 생각이었다. 했건만 그는 그때까지 참아내지 못했다.

구슬픈 황소영각소리와 같은 증기기관차의 피상한 기적소리에 놀랐는지 아니면 와당탕 거릴 때마다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세멘트 가루에 숨이 막혀서였는지(그가 타고있던 방통은 세멘트를 실었던 유개화차였다.)여인은 때이르게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여인을 감싸고도는 뽀얀 먼지와 사정없이 안정은 파괴하는 덜커덩소리 그리고 쇠진한 기력을 깡그리 뺏어가며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주정뱅이같은 화차의 역스러운 흔들림은 한 인간을 출생시키기에는 너무도 당치 않았으나 배속의 아이는 싫든좋든 세상밖에 나와 태를 뚫어야 했다.

동득영은 이렇게 숨가쁘게 령을 뚫아오르는 화물열차방통안에서 세상밖에 나왔다.

그날 마음씨 무뎠한 차장과 철도선로반사사람들의 동정으로 그들의 기구한 목숨은 끊기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그 후탈로 한달도 못살고 저 세상 사람이 되고말았다.

달리는 열차우에서 태를 뚫어 철길우에 던지고 암담한 세상에 태어난 동득영의 목숨이 석탄가루와 구리스기름이 찌들어붙은 아버지잔등에 업혀 가물가물 끊기지 않고 해방될 때까지 연명해 간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였다.

나이 열살에 해방을 맞은 동득영은 아버지손목을 잡고 기관차에 올랐다. 그는 같은또래 아이들보다 목이 형편없이 가늘퍼서 이제 겨우 여덟살도 못되어보였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했다.

득영은 기관차승무원들과 철도합숙에서 함께 먹고 자기도 하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자꾸 달려가기도 하였다. 가끔 기관조사아저씨들이 잠든 득영의 코밑에 석탄덩어리로 팔자수염을 그려놓아 뺨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르게 만들기도 했으나 그까짓건 그저 그때뿐이였다. 그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일러바칠 든든한 보호자가 뒤에 있었던것이다. 얼굴에 화상자리가 가득한 세포위원장이라고 하는 기관차수리공아저씨였다.

그 아저씨는 언제나 자기 점심밥을 제일 많이 득영이한테 덜어주었고 아버지가 반동놈들 총에 맞아 철길에 쓰러졌을 때에도 누구보다 먼저 팔을 걷고 제피를 뿜아 아버지를 살리자고 나섰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뒤 어느날 아저씨는 공책 두권을 베보자기에 싸서 득영이한테 지우고 학교로 갔다.

그날 득영이 곁에 앉은 학생은 목이 가늘고 감실감실한 눈이 예쁘장하게 생긴 처녀애였는데 세포위원장의 딸이라고 했다. 학교에서는 이상스럽게 그 어린 현경이가 자주 보호자격으로 나서곤 하였다. 아버지가 준 분공이라던지... 하지만 벌써 동정받는데 습관된 득영은 보통이상으로 자기를 위해 애써주는 사람이 아니고는 본체도 안했다. ...

《그러니까 기관사동무는 제가 나서 자란 고향이 어딘지조차 모른단 말이지?!...》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신듯 득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주시고나서 칠퍼리리며 역구내를 빠져나가는 열차를 묵묵히 바라보시였다. 그러자 득영은 가슴을 휘잡아흔드는 강렬한 걱정이 온 몸을 달구며 무엇인가 긴히 말씀드리고싶은 욕망

에 불탔다.

《수령님, 전 부모도 없고 고향도 없지만 그대신 이 기관차가 있습니다.》

《부모도 없고 고향도 없다?! ... 고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우리 조선속담에 정든곳이 고향이라는 말도 있지 않소. 그대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어지는 그렇게 정든곳이 기관사동무한테 없단 말이요?!》

수령님께서는 득영의 어깨를 짊 잡고 흔드시며 힘주어 물으시었다. 그러자 득영의 가슴 맨 밑창에 고여있던 눈물동이가 왈칵 그대로 온몸에 쏟아졌다. 그는 땀과 눈물이 한데 엉키며 줄줄이 흐르는 얼굴을 목에 두른 가제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고나서 수령님을 우러러볼뿐 감격에 겨워 아무 대답도 해드리지 못했다.

《이걸루 기관차승무원들이 차굴안에서 가스내를 막겠구만!》

《예?!》

동득영은 어마지두 놀라며 고개를 떨구고 수령님께서 손수 만져보시는 가제수건을 내려다보았다.

때물이 올라 새까매진 가제수건 한끝이 가슴앞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부드러운 손에 건뚫 들려있었다.

동득영은 또다시 뜨거운 그 무엇이 울컥 목으로 넘쳐오르는것을 느꼈다. 아직 누구도 기관차승무원들이 왜 목에 가제수건을 두르고 다니는지 물어 봐준적도 없고 알려고도 안했다. 그저 몸에 탄가루가 들어갈가봐 그러는줄로 알고있을뿐이었다.

기관차승무원들이 차굴안에서 가제수건을 입에 물고 질식을 막는다고 누가 짐작이나 하고있었으랴!... 그런데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아신다. 너무나도 속속 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흥분하신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 그래서 우린 앞으로 온 나라 철도를 모두 전기화하려고 하오. 그러니 동무들도 그때 가서는 꼭 전기기관차를 모는 문명시대의 새로운 전기기관차 기관사가 되시오. 그러자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하오. 그리고 우선 동무는 룡양부터 가야겠소. 당위원장동무가 책임지고 꼭 보내주시오.》

《수령님!》

동득영은 저도 모르게 어버이수령님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득영은 자기 눈에 이처럼 눈물이 많은줄을 너무도 모르고 살아왔다. 눈물! 줄줄이 도랑물처럼, 대하처럼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득영은 어

쩔수 없었다.

그날 한밤중에 집에 들어온 동득영은 가슴속 흥분을 더듬더듬 힘들게 쏟아놓았다.

《난 꼭 꿈을 꾸었던 같아. 아! 글썄 우리 증기기관차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실줄이야!...》

《아니?! 당신 이제 뭐라고 했어요?! 어서 빨리 말해요! 예, 어서요!》

안해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득영의 팔에 매달려 아이들처럼 킁킁 뛰며 줄라댔다. 남편이 천성그대로 그이상 입을 쏙 다물어버릴가봐 겁이 나서 그러는지... 하지만 동득영은 벌써 본래의 자기를 잃었다. 그는 흥분이 절정에 오르자 이제 웬 일인가싶게 말도 잘했다.

현경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아 그러는지 처음 한 동안은 그저 멀뚱멀뚱 서있기만했다. 그러다가 동득영의 두눈에 핑그르 눈물이 돌고 입술을 이상하게 실룩거리며 오열을 못참아 애쓰는걸 보자 폴짝 그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싸쥐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어서 수첩이나 하나 잘 만 들어주요.》

《수첩이요?! 그건 왜요?》

현경은 처음 받아보는 남편의 부탁이 너무도 반가와 눈물을 거두며 얼굴을 들었다.

《오늘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안은 사랑을 영원히 기록해놓고싶어서 그래!》

동득영은 입술을 가늘게 떨며 흥분해서 말했다.

《그래요?! ... 정말 잘 생각했어요. 내 오늘밤중으로 꼭 만들어드리겠어요. 꼭!...》

그날밤 현경은 수첩을 정성들여 만들면서 남편이 자기를 속태워주던 지나간 이야기도 소곤소곤 재미나게 펼쳤다.

전쟁이 끝나고 동득영이 기관조사가 되어 첫 승무길에 오른 그날이었다.

현경은 아직 망울을 채 터치지 못한 들국화와 다리아꽃으로 다발을 호함지게 만들어가지고 배차령구간에 달려나갔다. 그는 어제날 거기서 동득영이와 함께 자주 소꿉놀이를 하면서 기차를 물고올 아버지들을 기다리곤했던것이다.

철다리건너 산굽이를 돌아 귀청을 찢는듯한 기계소리가 울려올 때 득영은 환희에 넘쳐 현경이 손목을 잡아끌고 《아버지!-》 하고 소리쳐부르며

달리곤하였다. 하지만 오늘 현경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감상에 잠겨 조사자리에 시뚱해서 앉아 있을 동득영을 기다렸다. 그런데 좀처럼 기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현경은 레루장에 귀를 살근히 가져다대고 무슨 소리가 나는가 해서 들어보았다. 어릴 때 득영이하고 철길에 나



와 놀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레루장에 귀를 대보곤하던 일이 생각나서였다. 득영은 레루에 귀를 대보면 멀리서도 기차오는 소리가 재롱재롱 들린다고 했다. 자기는 그렇게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는데 현경이 너도 아버지가 보고싶으면 그래 보라고 하였다.

그가 시키는대로 해보니 실통했다. 어떤 때는 득영이가 귀에다 돌맹이를 감추고 몰래 재간을 피우는 때도 있었으나 현경은 그걸 알면서도 우정 속는것처럼 짝자그르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왜서인지 어쩌다 득영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을 꺼지게 만들고싶지 않아서였다.

그들은 자주 철길에 나가놀곤하였다. 무겁고 차게만 느껴지는 철길에서 노는것이 시내가에 종이배를 띄우거나 방쪽에 나가 잠자리를 잡고 딸기를 따먹는 재미보다 나을순 없었으나 철길은 그대신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다가 만나는 기쁨을 주었다.

쨌렁쨌렁 레루가 울렸다. 현경은 발딱 일어섰다. 드디어 켱 ! 하고 요란한 기적소리와 함께 시커먼 기관차가 눈앞에 나타났다.

팡당팡당!... 그것이 기차의 진동인지 아니면 현경의 마음속 심장의 박동인지 알수가 없다.

증기가 잘 오르지 않아 그러는지 증기기관차는 사람이 달리면 따라잡을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기어왔다.

창턱에 한팔을 의젓하게 올려놓고 기적변을 슬쩍 당겼다놓는 득영은 제법 어른스러웠다.

《득영오빠! -》

기차가 눈앞에 다가오자 마음이 구름처럼 부푼 현경은 소리쳐부르며 발을 굴렀다. 했으나 득영은 이쪽으로 고개 한번 안돌렸다. 현경은 들고있던 꽃묶음을 운전실에 획 올려던졌다. 득영은 급작스레 날아든 꽃묶음에 흠칫 놀라는듯하더니 마뜩잖은 눈길을 이쪽으로 한번 힐끔 던지고는 그만이었다.

칙칙 폭폭!... 기관차는 안간힘을 쓰다못해 막혔던 증기를 마구 토해버리며 바퀴공회전을 거듭하였다.

현경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다. 기관차는 더이상 용을 써볼 힘이 진했는지 몇번 더 칙칙거리며 악을 써보다가 끝내 뒤걸음치고말았다.

타력속도를 얻기 위해 멀리 평지를 찾아 뒤걸음쳐 내려갔던 기관차는 한참만에야 다시 증기를 올려가지고 돌진해왔다.

기차가 평마루에 거의 올라섰을 때 현경은 눈을 딱 감았다. 탄가루가 묻어 새까매진 얼굴에 땀을 철철 흘리며 화실에 탄을 퍼넣던 동득영이가 갑자기 비칠거리며 조사자리에 가서 쓰러졌던

것이다.

《득영이! 물을 마시고 힘을 내라!》

저쪽 반대편자리에 앉아 가감변을 잡고있던 기관사가 소리쳤다.

칙칙 폭폭!...

어느덧 증기기관차가 남기고 간 기적소리의 가는 여문만이 옥내천 물소리와 함께 현경의 산란해진 가슴을 휘저어놓았다.

현경은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거리에 나섰다.

(남은 증기가 잘 오르지 않아 죽을 고생을 다하고있는데 그잘난 꽃묶음만 쥐고 흔들여대고있었으니 내가 얼마나 한심해보였을가?...)

현경은 걸음을 옮길적마다 가슴속에 자신에 대한 미운 생각이 서리서리 엉켜돌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그러나 누구도 고개를 꼭 숙이고 눈물을 떨구며 집으로 돌아오는 열여덟 어린 처녀의 마음을 짊어 보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나 바빠 뛰고 서돌렸다.

거리에 넘치는 전후복구건설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알쏭달쏭한 감상에 잠겨 꿈의 회롱에 말려들어가던 처녀의 쪽잡을 대번에 깨워주었다.

아버지는 배차령구간의 철길만 좋으면 얼마든지 타력을 잘 리용해서 수송계획을 하고도 남겠는데 그런다고 자주 안타까운 소리를 하곤하였다.

현경은 철길에 나가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처녀의 몸으로 철길일을 한다는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랴앞에서 비칠거리다가 조사자리에 가서 맥없이 쓰러지던 동득영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그때마다 힘을 냈다.

그러나 동득영은 여전히 저혼자 강 저쪽에서 타고난 성미그대로 묵묵히 살았다.

현경이와 결혼한 후에도 그는 마찬가지였다.

현경은 하루가 아니라 한달이 가도 남편한테서 말 세마디 들어보기가 힘들었다. 득영은 집에 들어오면 그저 덤덤해있는가 하면 책이나 신문도 별로 보지 않고 지냈다. 찾아오는 친구도 없었고 그 또한 누굴 찾아다닐줄도 몰랐다.

단 한번도 안해를 울리거나 옷길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동득영이었다.

현경은 술을 좋아하는 남편때문에 속을 태우는 녀자들이 부럽기까지 했다. 차라리 집에 들어와 술주정이라도 하는걸 봤으면 좋을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은 술을 못하는지 아니면 우정 안하는지 입에 전혀 대지 않았다. 그저 담배만 령감들처럼 풀썩풀썩 피우다가 꼬꾸라져 잔다. 그는 홀웃에 아무리 찬눈이나 비를 맞아도 감기 한

번 얹은적 없으니 남편의 이마를 짚어보며 따뜻이 간호해볼수 있는 《행복》마저 현경이한테는 차례지지 않았다. 고아로 거의 별거벗다싶이하고 차디찬 쇠붙이우에서만 덩굴며 자란 그한테 감기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누구를 사랑할줄도 미워할줄도 모르고 오직 남한테서 동정받는데만 습관되어온 그한테 설사 간호해줄 일이 있다 한들 어땠단 말인가? 녀자들이 시집가면서 남편한테 바라는건 직위도 돈도 아니다. 깨물수록 달고 향기로운 생활의 진한 즙액이 끝없이 저절로 솟는 행복한 가정을 둘이 손잡고 꾸리는것이다. 그러나 현경은 남편한테서 담배연기밖에 받아안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역시 가장 속일수 없는건 생활이고 사랑이다. 이런 남편하고는 평생가야 아무런 의사소통도 감정의 교차도 있을수 없다는걸 뒤늦게나마 느끼기 시작한 현경은 남편없이 살수 있어도 사랑없이 살수 없다고 세상밖에서 불쑥 토설해버릴것만 같아 겁이 났다...

《그만해!》

동득영은 안해의 말을 듣다못해 울컥 뺨을 쓰며 일어났다.

《내가 뭐 머저린가 하는게지?!》

그 순간 훌쩍 따라일어선 현경의 얼굴엔 환희에 넘친 웃음이 활짝 피었다.

《왜 성났어요?》

동득영은 그만 꽃꽂해졌던 눈길을 어디다 거두어둘지 몰라 허둥거렸다. 크고 정기도는 눈에 물기를 머금고 남편을 애정이 폭폭 솟아넘치는 산들한 눈매로 올려다보는 안해는 너무도 아름다웠던것이다.

《여보, 이 수첩에 제목을 뭐라고 달가요?》

제목?!... 동득영은 잠깐 생각해보다가 안해한테서 수첩을 받아들고 푸른 뚜껑에 《나의 고향, 나의 기관차》라고 썼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뜨겁게 안겨주신 아버지사랑을 수첩의 갈피마다에 적어넣으며 부르짖었다.

《정녕 이게 꿈은 아니겠지?!...》

그렇다! 꿈은 아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곧 이 나라 철길우에 꿈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펼쳐놓으시고 건강을 회복한 동득영이를 《붉은기》호 전기기관차에 태워주시었다.

그날 첫 승무를 마치고 현경이가 일하는 감시초소에 달려간 득영은 흥분해서 입을 열었다.

《현경이! 난 오늘 비관을 받았소. 기적을 필요 이상 자주 울린다구!》

《비관을 받다니요?》

현경은 영문을 몰라 꽃밭에 물을 주다가 놀란 눈길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증기기관차는 산업혁명 시기에 쓰던것이지만 전기기관차는 공산주의시대에 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만든 전기기관차이름을 〈붉은기〉라고 이름지어주시었는데 〈붉은기〉가 울리는 기적소리는 뭘겠소? 우리는 공산주의를 향해 달린다! 하는 신호나팔이거든. 그러니 그런 중요한 신호나팔을 당신이 보구싶다고 아무때나 막 울려서야 안되지. 내기 비관을 받아 마땅하단 말이야! 하하, 난 이제 짐을 더 끌고 정시로 배차령을 넘을 때만 당신을 찾는 그런 긴 기적을 울리겠소!》

후르르! 무엇에 놀랐는지 감시초소위에 서있는 백양나무 우듬지에서 참새떼가 날아올라 해가 저가는 서쪽으로 날아갔다.

분명 참새떼를 놀래운 봄바람이 아카시아 꽃향기를 숨막히게 몰아왔다. 그대로 바람이 조금만 더 불면 꽃향기에 취해서 넘어질것 같다.

현경은 그때문인지, 아니면 너무도 달라진 남편을 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 그러는지 숨이 차서 고운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속삭였다.

《전 매일 그 기적소리를 기다리며 영원히 이 초소를 지키고있겠어요.》

《하하, 당신이 제일이요, 제일! 하하!...》

동득영의 그 활짝 터친 웃음소리가 또하나의 행복을 끌어당겼다. 아들이 생겨났던것이다.

건강넙친 어머니의 젖과 조국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버지처럼 고아로 살지 않을 행복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아들앞에서 동득영은 넘쳐나는 삶의 희열을 느꼈다.

유개화차 철관우에서 타래쳐오르는 세멘트먼지를 먹으며 변변히 울어도 못보고 태어난 동득영은 해빛밝은 병원을 들었다

놓는 아들의 우렁찬 고고성에 감격하여 저도 모르게 전기기관차에 달려가 기적을 마음껏 울렸다.

뿡!- 트럼베트소리같은 《붉은기》호 전기기관차의 맑고 경쾌하고 아름다운 그 은은한 기적소리는 동득영의 마음속 축복을 한껏 대신해주었다.

《붉은기》호 전기기관차의 탄생과 함께 새 궤도에 오른 동득영은 아름다운 정서와 꿈을 안해앞에서 마음껏 풀어헤쳤다.

그때부터 현경은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다짐작업을 도맡아 억척스레 해제끼곤하였다. 진정 남편이 돌아가는 《붉은기》호 전기기관차를 떠받드는 하나의 고임돌이 되고싶어 그러는 그를 득영은 마다하지 않았다.

배차령구간의 다짐작업까지 스스로 맡아하면서 기발을 들고 차렷자세로 건늌길감시초소를 굳건

히 지켜서있는 현경의 아름다운 모습은 《5.18무사교정시건인초과운동》에 나선 동독영기관사한테 없어서는 안될 가장 큰 타력의 원천이었다. ...

뽕-

깊은 심연속에서 헤치고나와 온 산판을 들었다 놓는것 같은 기적소리가 수첩을 들고 추억에만 잠겨있는 동독영의 가슴을 두드려 깨웠다.

철길로반을 덮을듯 바투 다가왔은 덤불속에서 정오의 따뜻한 해빛에 무르녹은 보라빛 머루와 파아란 다래가 후둑후둑 떨어졌다.

그러거나말거나 렬차는 소나무 이깔나무가 바다처럼 설레는 배차령을 누비며 피빛 단풍으로 빨갛게 불길처럼 타번지는 뽕죽봉오리를 단숨에 꿰치르며 질풍처럼 내달렸다.

(로친도 이젠 늙었어. 그렇다고 마음까지 늙으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도대체 이 철길을 떠나 우리한테 무슨 다른 재미가 있다는건가? 손주를 안고 그네타는 재미?! 헛참!)

동독영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머리를 저으며 수첩의 다음장을 번지였다.

1994년 7월 9일.

순간 가슴 한끝이 예리한 칼끝에 찢리기라도 한것처럼 참을수 없는 진통이 온몸을 휩싸고돈다. 잊을수 없는 뼈아픈 날이다.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그 가슴터지는 비통함을 어찌지 못해 배차령 굽이굽이를 목멘 기적소리로 가득 채우며 이 나라 아들딸들의 피눈물과 아우성치는 곡성을 더더욱 아프게 해주던 그날을 어떻게 잊는단 말인가.

동독영은 너무도 슬픔이 커서 그날만은 수첩에 기록해놓지 못했다. 대신에 안해가 울면서 그날의 하루일기를 겨우 써놓았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는지, 아니면 불수록 슬픔만 자꾸 더해줘서 원망스럽다고 해야겠는지...

독영은 가슴을 들먹거리며 읽었다.

...

나는 건늬길 감시근무를 서면서 남편이 물고울 화물렬차를 안타까이 기다렸다. 남편은 오늘 강한 타력으로 400톤의 짐을 더 달고 배차령을 넘는 대담한 시험운전을 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왜 아직 나타나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혹시 배차령을 오르지 못하고 뒤걸음친게 아닐까?... 아! 기적소리! 분명 남편이 울리는 기적소리다! ... 이제야 배차령을 넘은가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남편의 기차가 정신없이 기적을 울리며 달려오고있지 않는가?! 하늘땅을 안타깝게 잡아흔들며 목메어 울부짖는 기적소리는 배차령구간을 다 지나갈 때까지 순간도 끊기지 않았다. 사고다! 사고

도 보통사고가 아니다. 아! ... 나는 눈앞이 아득해져 비칠거렸다. 그리고 다시한번 정신을 차려 앞길을 살펴보았다. 저앞에 목숨을 내대고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라도 있어 그런다면 얼마나 다행이라. 그런데 그런것조차 없으니 사고는 피할수 없는 그런것이란 말인가? 목숨을 주고도 피할수 없는?! ... 아! 이 일을 어쩔단 말인가?!...

나는 언제 근무를 인계하고 어떻게 헤덤비며 기관차대 사령실에 들어섰는지 몰랐다.

《난 믿을수 없소! 믿을수 없단 말이요! 빨리 평양에, 평양에 전화를 걸어 다시 알아봐주요.》

당비서의 옷자락을 잡고 통사정을 하고있는 남편의 주름깊은 두볼로는 굵은 눈물줄기가 거침없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당비서는 좀처럼 전화걸 생각은 않고 남편이 잡아흔드는대로 몸을 맡긴채 같이 울고있었다.

왜 저런단 말인가? 언제한번 남편의 부탁을 외면해본적 없는 당비서다. 그런데 남편이 저렇듯 운명을 걸고 안타깝게 애걸하는데도 저런단 말인가? 그러고보면 그도 남편을 구할 방도는 없다는 건가? 야속하다!

나는 동정을 바라는 심정에서 결사당들을 돌려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누구나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역구내에는 렬행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흠에 내려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있지 않는가?

출발신호기는 떨어졌으나 렬객렬차는 떠나지 못하고 뿌어엉- 뿌어엉- 목갈린 울음만 거둬 터치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것처럼 철도수송문제를 풀기 위해 심려하시다가 순직하셨으니 우리한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수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지 말아주십시오. 우린 한몸을 바쳐서라도 수송문제를 풀겠습니다. 수령님!》

수령님의 초상화앞에서 남편이 터치는 애절한 곡성을 듣고야 나는 하늘이 울고 땅이 통곡하는 렬사에 없는 이 상실의 아픔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동독영은 축축히 젖어든 눈굽을 손수건으로 짊어내고 수첩을 정히 옷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해의 처사가 리해되지 않았다. 안해도 울면서 이 글을 써놓았겠는데 어쩌면 그럴수 있단 말인가!...

독영은 생각할수록 기분이 언짢아 씨엉씨엉 발걸음을 크게 옮겼다. 그때 로반밖으로 굴러떨어져나간 몇개의 자갈돌들이 눈에 띄었다.

진한 회색빛의 주먹만한 자갈돌들이 누렇게 죽어가는 잔디풀우에 누워서 한잎두잎 떨어지는 가랑잎에 묻히고있었다.

득영은 자갈돌들을 주어 로반어깨에 올려놓았다. 저쪽에 어떤 자갈은 벌써 흙속에 절반나마 파묻혀 본래의 반짝이는 진회색빛을 잃고 어지러워져서 그대로 철길에 놓을수 없었다. 득영은 그런 자갈돌들을 골라들고 차굴안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도랑물에 깨끗이 씻었다. 그러느라고 안해가 코앞에 다가와선것도 몰랐다.

회색철도정복을 꼭 맞춰입은 안해는 등애다 목직하게 배낭을 졌는데 오늘은 별스레 젊어보였다.

《어떻게 된 일어요?!》

동득영은 노여움이 서린 목소리로 툭해서 물으며 배낭을 받아주었다.

《아니 내가 온게 반갑지 않수? 원 참! 당신이 보구와 왔수다!》

동득영은 입을 꼭 다물고 외면했다. 말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

《자, 식사나 하자요.》

현경은 철길옆 잔디우에 찾아가 보를 깔고 음식을 차렸다.

안해는 무슨 들놀이라도 하러 나온것처럼 동득영이 좋아하는 찰떡, 돼지고기 그리고 무엇무엇해서 잔뜩 벌려놓는다.

그리고는 회색정복 옷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느라고 애썼다.

《그건 뭐요?!》

《수첩이지 뭐겠수.》

현경은 밥그릇앞에 나앉으면서까지 굳은 낯을 풀지 않고 툭해서 그러는 남편이 야속했던지 저도 불부는 대답을 했다.

《어디 좀 봅시다.》

득영은 신통히도 크기나 모양은 물론 색깔까지도 자기것하고 똑같이 생긴 수첩을 보면서 의아해하였다.

《속엔 아직 아무것도 적어넣은게 없수다!... 령감 수첩에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나도 수첩을 품구 우리 수령님...》

현경은 말하다 말고 흑- 하고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럼?!...》

동득영은 무언가 자기가 아직까지 안해를 잘못

생각하고있었었다는 죄스러운 마음에서 얼굴에 먼구스러운 웃음을 짓고 말했다.

《내가 너무 당신의 심정을 몰라봤구만!... 난 솔직히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자고 온 나라가 일떠선 때에 내 60똥소리를 하는 당신이 정말 리해되지 않더구만. 그래서 난 오늘 종일 당신 생각만 했소.》

동득영은 옷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안해가 만들어온 새 수첩우에 덧놓으며 저도 모르게 눈곱이 뜨거워나서 철길쪽으로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난 당신이 60똥 생일날까지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보낼 생각을 하니 왜선지 60년동안 당신이 살아온 지나간 나날이 돌이켜집디다. 그래서 나도 회상해 봤지요. 지나간 나날들... 왜 당신이 그때 어버이수령님께 내 심정까지 합쳐서 우린 죽어서도 버릴수 없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싶은 정든 고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그게 뻗혀서...》

현경은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어깨를 떨며 동득영이 주는 수첩을 받아안았다.

어디선가 시원한 가을바람이 일며 싹살하면서도 달크무레한 숲의 향기를 몰아왔다.

《고맙소! 우린 이 철길을 떠나선 순간도 행복하게 살수 없다는걸 알아야 돼. 제 정든 보금자리 하나 목숨걸고 지키지 못할바에야 그게 무슨 사람이겠소. 나이가 많아 차를 못타고 감시초소에서 있을수 없게 되면 뭐라오. 우린 기관차도 정비해주고 이렇게 흘러내린 철길에 자갈도 올려놔주면서 수령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면 돼. 거기에 우리 사는 재미가 있는게 아니겠소?! ... 자, 식사나 하지요. 그래 술은 안가져왔소?》

동득영은 헉헉하게 기분을 풀며 나앉았다.

《왜 안가져왔겠수, 가져왔수다! 그런데...》

《그런데 뭐요?》

《령감이 새 운전법을 찾아낸 다음에 드리겠수다.》

《걱정마오. 배차령구간은 날 버리지 않을거요!》  
뿡! -

또다시 기적소리가 울린다.

동득영은 렬차맛을 준비를 서둘렀다.

# 우리의 소원

-조청일군의 수기중에서-

(총련) 김 금 녀

## 1. 파혼

화려한 무리등이 달린 높은 천정, 빨간 용단이 깔린 폭신한 마루- 손색없는 결혼식장에서 이날 결혼식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어갔다.

엄숙하게 진행된 1부가 끝나 옷을 갈아입은 신랑신부가 밝은 조명을 받아 재입장하자 박수소리, 축하소리가 온 장내를 울렸다.

음식물이 나르어지고 여기저기서 맥주를 따르고 따라주며 건배를 올리니 결혼식장은 말그대로 축하연회장으로 화하였다.

마이크를 든 사회자가 나와 이날의 결혼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하고 자신도 한곡조 목청을 뽑아 장내의 흥을 한결 돋구었다.

《다음에는 우리 OO 가무단 녀동무들이 축하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소개에 따라 다섯명의 가무단원들이 앞에 나오며 손퐁금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분홍색 치마저고리를 가튼히 차려입고 노래부르는 속에 류정임의 얼굴도 보였다. 고운 눈매며 좀 오희한 코, 작지만 살이 포동한 입술-스무살안팎, 한창 고운 나이의 처녀들속에서도 그의 용모는 결코 빠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남달리 눈을 끄는 화려한데도 없었다. 말하자면 압전하고 소박한 그 성미가 그대로 용모에도 나타났다고 할가.

중창이 끝나자 정임은 혼자 남아서 독창을 했고 재청에 응하여 또 한곡을 부르코야 자리에서 물러섰다.

가무단원들을 위해 마련해준 뒤편의 자리에 앉자마자 정임은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리는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린 그는 후닥닥 그자리에서 일어서며 공손히 인사를 하였다.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아버지의 한고향친구인 김아저씨였다.

《그래, 노래를 멋들어지게 잘 불렀어.》

기쁜듯이 말하며 정임의 손을 잡은 그는 그 다음 말에 더욱 힘을 주었다.

《...헌데 언제까지 남의 결혼식에서 노래부를 작정이나? 훌륭한 총각이 어데 그렇게 혼한줄 아냐? 이젠 나이도 찼으니 너무 비싸게 굴지 말고 시집갈 생각이나 하렴.》

《네...》

대답에 궁하여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겨우 한마디 한 정임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던진 말과 어쩌면 신통히도 꼭같을까?

(언제까지 남의 결혼식에서 노래부를 작정이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말한 《훌륭한 총각》이란것이 결코 일반론이 아니며 그 누군가를 짚고 한 말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니 그 말엔 미묘한 속대사가 깔려있는것이였다.

(호-이젠 1년이 다 지나는데 아직 두...)

절로 한숨이 새어나는 정임이였다.

그사이에도 여러 사람들의 축하인사와 노래가 나오고 필경에는 흥에 겨운 사람들의 어깨춤이 나와 식당엔 바야흐로 춤판이 벌어졌다.

양복쟁이 신랑과 빛갈고운 비단저고리에 족두리를 얹은 아름다운 신부-한쌍의 원앙새를 둘러싸고 사람들은 흥에 겨워 춤을 췄다.

다른 동무들의 권유에 못이겨 그 춤판에 뛰여든 정임이었지만 흥겨운 춤동작과는 대조적으로 가슴속엔 납덩어리가 내려앉은듯했다.

×

《정임아, 정임아!》

식장을 나가려던 정임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흠칫 놀랐다.

《아니, 이게 누구야, 경희.》

《정 임 아, 아까 노래부르는걸 보았어. 함께 돌아가자고 기다리고있었어.》

참으로 오랜만에 상봉하는 고급학교시기 동기동창생이였다. 아니, 동창생일뿐더러 그와 경희는 졸업후도 계속 만나며 가까이 지낸 친근한 사이였다. 경희가 일찍 시집을 가고 아기엄마가 되자 절로 멀어지기는 했으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두살난 아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일이 바쁜 남편을 대신하여 결혼식에 왔다는 경희는 식당에서 노래부르는 정임을 보고 식이 끝나자 나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고 한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 의례 그러듯이 그들도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 회포를 나누려고 고충건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차점을 찾아들어갔다.

아늑하고 넓은 차점의 폭신한 소파에 앉자 창가에서는 OO 의 시가지가 한눈에 굽어보이였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우리 용진이가 태어난후엔 내가 좀처럼 친구들을 못만나니 얼마나 섭섭

한지 몰라.》

《할수 없잖아. 애기 데린 몸인데... 그래도 경희에겐 그게 제일 행복이지.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과의 생활!》

《애, 룡담 작작해라.》

《호호호... 흐흐흐.》

둘이는 유쾌하게 웃었다.

그간 쌓이고쌓인 얘기들을 나누니 둘이는 시간가는줄 몰랐다.

《애 그만 가자, 용진이가 엄마를 찾겠다.》

손목시계가 4시를 가리키자 정임은 걱정스러워 말을 걸었다.

《아니, 내 이야기만 듣고 도망갈 작정이냐? 이번엔 정임아, 네 이야기를 들려주렴. 어디 좋은 소식이 있는게 아냐?》

《애, 무슨 소식... 난 아직 그런 생각 없다.》

《왜?... 그래도 누가 맘에 둔 사람이 생겼길래 그전의 얘기가 그렇게 끝장났을걸...》

《아니, 넌...》

《암 놀라지 말아.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약혼날 가까이 받아놓고서 직전에 파혼했다니 어디 따로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나봐.》

《애, 룡담 그만해라. 이젠 1년전의 일을 가지고...》

《아니 1년이 지난 오늘이니까 나도 기탄없이 얘기할수 있는게야. 그래도 난 네 마음을 모르겠어. 실은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장사거래로 좀 아는 사람이였거든. 사람도 똑똑하고 인물도 잘 생겼고 게다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나. OO 시내에 빼빼꼬점을 셋인가, 넷인가 가지고있었다더구나.》

《그런걸 내가 모른줄 알아.》

평상시엔 온화한 정임이지만 어지간히 꼴이 났는지 불쾌한듯 되물었다.

《아니, 기분이 상했으면 미안해. 하지만 난 정임이 너를 생각해서...》

《...》

《난 지금도 영문을 알수가 없어. 그가 갑자기 달라졌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아니, 그 사람에겐 아무런 책임도 없어. 달라졌다면 나다.》

《그러게 조국에서 뭣이 있었니?》

《아무것도... 다만... 한명의 인간과의 만남이 나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진지하게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게 했을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과 눈이 맞았구나.》

어디까지나 제3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희가 정임은 우습기도 하고 미워나기도 했다. 하긴 그건 경희뿐아니라 태반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게다. 결코 경희가 남달리 속된 억측을 하는건

아니라는것을 정임은 이제 사무치도록 알고있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상식》이요, 《응당한 일》인것이다.

《...후-》

저도 모르게 한숨이 입에서 새여난 정임이었으나 경희가 그 나름대로 진지하게 묻는걸 얼버무릴수는 없었다.

《너도 알겠지. 난 그전까지 자기의 삶이나 조국의 분단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다. 제일 3세로서 이국땅에서도 민족적인 긍지를 가지고 살고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래, 그건 나도 같애.》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에 산다고 동강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 내 경우는 말이야,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선생의 권유에 따라 가무단에 들고, 노래를 부르고... 내가 훌륭한 가수는 못된다 하더라도 내나름의 자그마한 자존심을 긍지삼아 노래를 부르고... 알맞춘 나이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 하라는대로 갑부는 못되더라도 돈고생이나 없는 집에 시집을 가고... 평온하게 〈행복〉 하게만 보내면 그게 다야?》

《그게 뭣이 안돼?》

《그래, 그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야. 하지만 모든 곤난을 무릅쓰고 단신 조국을 찾아온 수경이,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싶어요.〉 하는 수경이며 그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조국민인들의 모습에서 난 자기가 이대로 살아가도 좋은가 하는 자문을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어. 분렬조국이란 현실을 외면해서 살고있는것 같은 꺼림칙함, 어쩌면 나의 〈행복〉은 다 거짓이었다는 아니 그게 너무 극단하다면 적어도 절반은 가짜였다는 생각을 나는 했지.》

《그건 그렇다치고 그것이 왜 파혼으로 이어지는거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심각하게 돌이켜보았을 때 나는 자기의 의지나 인생신조에 따라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권유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도 가장 편안한 길을 택하려는 자기를 발견하지 않을수 없었어. 내가 그 사람과 진짜 값있는 삶을 공유하려 하고있는가? 아니었어. 나는 더이상 자기를 속일순 없었지.》

《그게 다야?》

입술을 다물어버린 정임에게 경희가 물었다.

《그럼.》

《후유-...》

피로운듯이 큰 한숨을 쉰것은 정임이 아니라 경희였다.

《술직하게 얘기해주어서 고마와. 하지만 네 얘기는 내겐 의미불명이야.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릴건 없잖아.》

《고집 ?》

정임에겐 너무도 뜻밖의 말이였다.

《그래, 고집이야. 언제부터 넌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말았어 ? 내가 아는 정임은 참 온순하고 소박했지.》

《아니, 경희 너까지 그런 말을...》

정임은 눈앞이 아찔해지는것을 느꼈다.

고집, 까다롭다. 건방지게 네가 뭘 잘났다고...

1년전의 그때 아버지며 어머니, 결혼준비를 선 사람한테서 귀가 아프도록 그러한 소리를 들었었다. 하지만 똑같은 소리를 친구인 경희한테서 들을줄이야... 자기의 마음을 고스란히 알려주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지만 적어도 학창시절의 친구로서 막연하게나마 이해를 해주리라고 믿었었다. 그런데...

《정임아, 난 친구로서 네게 충고를 하고싶다. 림수경학생이 훌륭한 일을 해놓았다는건 나도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넌 너지. 그 때문에 네가 그렇게 외곬으로만 생각을 굴릴 필요는 없잖아. 이런 말은 하고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네가 무얼 할수 있어?...》

정임의 눈가에 가랑가랑 눈물이 고이였다. 슬펐다. 경희가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지 않는것도 슬펐지만 더더욱 슬픈것은 그의 말이 자기의 아픈데를 정통으로 찔렀기때문이다.

(네가 무얼 할수 있어?)

가슴을 허비는것은 이 말자체라기보다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이였는지 모른다.

《알았어. 지금의 나에겐...너의 충고에 이렇다할 대답은 하지 못하는것도 사실이야.》

이젠 그만 가자고 먼저 선것은 정임이었으나 시계를 보고 5시가 훨씬 넘었다는것을 안 경희의 발걸음은 절로 빨라졌다.

사람들로 혼잡한 역구내에서 돌이는 서로가 다른 감개를 품으며 헤어졌으나 그 야릇함만은 이상하게도 하나였다.

## 2. 뜨거운 추억

아직은 11월달인데 밤에 부는 바람은 꽤 차다. 류정심은 옅은 코트자락에서 스며드는 찬 기운에 으스스 몸을 떨었다.

결혼식장에서 노래누르고 춤추며, 김아저씨의 말이며 경희와의 뜻밖의 상봉- 류달리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하루여서 온몸에 피로감을 느꼈었다. 아니, 그 피로감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느끼고 있었는지 모른다.

집에 당도하여 방안에 들어선 그는 잔뜩 찌프린 얼굴로 술상을 마추한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촉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정임아, 거제 좀 앉아라.》

아니다나를가 아버지는 부아가 잔뜩 오른 어조로 자기방에 가려는 정임을 불러세웠다.

《애, 대답을 해봐. 시집은 영 안갈 작정이나?》

당돌한 질문이였다. 하지만 가끔 잊어먹던 무언가가 생각난듯이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트집을 걸었다. 그러나 그걸 트집이라고 딱 잡아뗄수 없는것은 정임의 얄전한 성미도 성미려니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때문인지 모른다.

《오늘 지부모임에 가니까 모두 어떻게 소문을 내는지 알아? 그집 딸이 딴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약혼까지 파기해놓고 이제껏 혼례를 안치르는걸 보니 이번엔 그쪽에서 파기를 당한 모양이구만 하고 비웃고있단말이야.》

자신이 입에 담은 말에서 새삼스레 분격을 느끼는지 아버지의 어성은 높아지지만 했다.

《애, 대답해봐. 이젠 시집을 안갈 작정이나?》

대답을 하라고는 하면서도 물론 구체적인 대답을 기다리고있는것은 아니였다.

《아이구!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한탄하듯 말하고는 술을 연방 들이킨다. 이런 날에는 의례히 술량이 불어나는 아버지다.

《여보, 술이 없어. 더 가져오라구.》

부엌에서 설것이를 하던 어머니가 그런 남편의 꼴이 민망해서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

《당신두, 술 그만 잡숫고 이젠 밥드세요.》

《뭣이? 어찌고 어째? 흥, 이게 다 누구때문이라고 말대꾸야. 막내인데다가 외동딸이라고 어미가 어리광 다 받아주고 키우니 지금 이 딸이 이 꼴이라는데두...》

《아니, 당신 그것두 말이라고 하세요. 막내딸 귀여워서 꾸중 한번 안하고 금이야 옥이야 해놓고선... 이제 와서...》

《뭣이?》

(후유- 또 시작했구나.)

1년전 그 문제가 있은후로부터 딸인 자기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싸움이 붙는 일도 잦아졌다.

딸인 자기로서는 귀가 아프기도 했고 또 자기의 마음을 알려고 하다가도 끝내 몰라주는 부모가 서운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미안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이제나저제나 한번 불붙은 입싸움이 당장 끝날리는 없어 정임은 말없이 자리를 뜨고 자기방에 갔다.

옷을 갈아입고 이불속에 들어간 정임이었으나

잠이 울리가 없었다.

그래 탁상등을 켜고 책을 펼쳤으나 글줄은 좀처럼 눈에 잡히지 않는다.

《후유-》

책을 덮은 정임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머리속에서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며 몸을 뒤척이던 정임은 벽에 걸린 달력에 눈길을 던졌다. 그의 눈길은 날자가 아니라 달력 한가운데 자리잡은 애절한 처녀의 얼굴사진으로 쏠렸다.

《림수경...》

조용하게 측?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랬더니 사진의 그 얼굴-환한 미소를 지으며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며 손을 흔드는 그가 이제 곧 여기로 걸어나오는듯했다.

정임의 뇌리에는 조국에서 보낸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뜨거운 여름철의 추억이었다.

1989년 여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정임은 제일조선청년대표단의 한성원으로 참가하였다.

그런데 평양축전이 시작되기 전날 평양은 뜻밖의 손님, 너무나도 반가운 《전대협》의 대표를 맞이하여 벅적 들끓었다.

비행기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지구를 거의 한바퀴돌아싶이 하며 끝내 평양을 찾아온 《전대협》의 대표 그리고 그를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정임에게는 말그대로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사선을 헤치고 단신 찾아온 대표가 자기와 똑같은 나이의 녀대학생 림수경이었다는 사실은 정임에게 하나의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어디서 보나 평범한 녀대학생, 그러나 그는 온몸으로 통일을 부르고 통일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 눈물로 환영해주는 겨레들 앞에서 그는 눈물많은 한명의 그 나이포래 처녀였고 내외의 기자회견에 림했을 때에는 어엿한 《전대협》의 대표였다. 나 어린 소년들에게는 장난기 많은 누이였고 칠순할머니의 주름잡힌 얼굴앞에서는 다정하고 얹전한 손녀였다. 그리고 더러 자신에게 던져지는 일부 사람의 경망한 언동앞에서는 기업을 토하기도 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가 어렸이였으나 동시에 입가에는 비장한 결심이 사라지는 날이 없었다.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것이 바로 통일인것이다. 정임이 림수경학생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후 수경은 죽음도 각오하고 끝내 판문점을

거쳐 남녘땅에 돌아감으로써 말그대로 《통일의 꽃》으로 피어났다. 이 겨레, 이 민족의 청년들이 통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는 실천으로 보여준것이다.

(아마 그때 수경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양축전은 나의 가무단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화려한 축전이 되었을게야...)

정임은 마음속으로 되뇌이였다.

사실 그는 그해초에 선을 본 리수호와 가을에 약혼할 약속이 되어있었다.

부친끼리도 잘 아는 사이인데다가 X X 현에서는 손꼽히는 기업가집안의 장남이라 정임의 아버지는 만나기도전부터 이 혼담에 귀가 솔깃했었다.

귀염둥이 외동딸로서 얹전한게만 자란 스물두살의 정임에게 자신의 마음보다도 그러한 아버지의 의향이 더욱 귀중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임이 리수호에게 전연 마음이 없는것은 아니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넷이나 되는 빠짚꼬점의 경영을 맡아보고있는 리수호, 이제는 서른고개를 내다본 그는 정임이 보기에든 어른스럽고 믿음직했다.

그렇지만 살고있는곳이 서로 떨어진데다가 수호는 수호대로 장사일이 바쁘고 정임은 나름대로 사업이 바빠서 둘이는 만나는 기회를 갖게 가질수 없었다.

그래도 중매를 선 사람이 이끄기를 저쪽집안은 물론 리수호자신도 상당히 정임이 맘에 들어했으니 어서 혼례를 치르자는 의향이더라는것이여서 정임이 망설일새도 없이 약혼날자까지 받게 되었었다.

(그런데...)

정임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지우려고 해도 지우려고 해도 가슴아픈 그때의 일이 생각나기때문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때의 일...

사실 정임은 조국에서 돌아온후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없어 쉬는날에 수호를 찾아갔었다.

얹전한고 조심성많은 정임이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당돌하게 나타났을 때 수호의 놀라움도 이만 저만이 아니였지만 사실 그러한 자신에게 정임은 제풀에 놀라고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수호와와의 결별로 끝나게 될줄은...

정임이 찾아간것은 다름이 아니였다. 림수경학생과의 만남으로 하여 자신이 얻은 충격을 수호에게 이야기하고싶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것은 아마 자기들이 서로서로 싫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사이에 귀중한것은 무엇 하나도 오가지 않고있다는 서먹서먹함을 정임이 무의식중에 느끼며 한 행위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당돌한 정임의 부름자세를 수호는 달갑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고 이야기가 있다는 정임의 말에 일이 바쁘기에 짧막하게 해달라고 실무적인 대답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정임은 나름대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 림수경학생과의 상봉, 재일 3세청년으로서의 자신의 깨우침 그리고 그리고...

하지만 리수호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운 것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 두 젊구만요. 그러한 일을 가지고 도 그렇게 감동을 할 수 있으니...》

그제사 정임은 자기와 한책상을 끼고앉은 이 청년이 아주 낮은 청년임을, 결코 자신의 배필이 될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쉬는날은 점방이 바쁘다며 수호가 자리를 떴을 때 정임은 마음속으로 차라리 잘 되었다고 되뇌이였다.

미련은 없었다. 물론 지금도 없다. 하지만 그때의 일은 쓰리고 아린 기억으로 정임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었다. 게다가 《약혼을 파기한 여자》라는 딱지는 1년이 지난 오늘도 자기를 따라다녔다.

《호-...》

현실은 간단치가 않구나 생각하면서 다시금 달력속의 수경을 보았다.

수경이의 그 밝은 미소도 이제 이중삼중의 옥문에 가리워져 볼길도 없다.

활짝 핀 통일의 꽃 림수경은 지금 찬서리를 맞고있다. 통일의 《초행길》을 걸었다는 죄아닌《죄》로 그는 철창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답답한 현실이였다. 야릇한 한숨이 새여날뿐인 길고긴 밤이였다.

### 3. 희망의 길

1991년 새해에 들어 류정임은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방가무단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일제히 새 종목을 준비했고 정임이 속한 가무단 역시 예외가 아니였다. 게다가 2월, 3월에 각각 큰 행사가 예정되어있어 그 무대준비도 있었다. 정임은 그 무대에서 《희망의 길》이란 새로운 곡을 독창하게 되어있어 남달리 연습에 몰두했다. 아니 《이 답답한 현실》과 어떻게 맞다들면 좋을지 모르는 그는 차라리 연습에 열중함으로써 모든것을 잊고싶었는지 몰랐다.

그래 오늘도 정임은 노래를 익히느라고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연습은 6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정임은 함께

돌아가자는 동무들에게 량해를 얻어 홀로 연습장에 남았었다. 한겨울이라 주위는 벌써 전부터 어둑어둑했으나 그런것에는 아랑곳도 않는 정임이였다. 피아노 한대만 놓인 땡땡그런 방안에 그의 노래부르는 소리만이 울렸다.

말도 하나 노래도 하나 피줄도 하나  
내 조국에 바친 마음 하나이련만  
어이하여 내 조국이 둘로 있을가보나  
...

아-희망의 길을 희망의 그 길따라  
통일의 대문을 열어 행복을 꽃피우리

《재청! 재청》

딱딱 손벽치는 소리와 함께 난데없이 들려온 남성의 궁근소리에 정임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쪽에 고개를 돌렸다. 그랬더니 문가에 웬 청년이 서있는 것이 눈에 들었다.

《놀라게 해서 안되었어. 하지만 류동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손벽을 쳐버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온 청년의 얼굴을 보자 정임은 다시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조민석동무가... 왜 정작 말을 걸어주지 않고...》

놀라움과 계면적음으로 볼부운듯이 내쫓은 정임이였으나 《남의 노래를 몰래 엿듣는건 실례이잖아요.》 하는 다음말은 차마 입에 울리지 못하고 혼자 가슴속에서 되뇌이였다.

그런 정임의 속마음도 모르고 조민석은 순박한 미소를 짓는다.

《정임동무가 너무 노래를 잘 부르고 또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릿다와서 감히 말을 걸지 못했지.》

《아니, 오빠두 참...》

어이가 없다는듯 말은 했으나 《조민석동무》하던것이 예전처럼 《오빠》로 되는것은 정임의 가슴이 누그러진때문임은 의심할바 없다.

사실 그와 민석은 한동네에서 자라난 소꿉동무였다. 두살 손우인 그를 정임은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누이가 없는 민석 역시 정임을 친누이처럼 귀여워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었다.

《헌데 오래만에 보니 정임이 퍼그나 달라졌구나... 노래도 썩 잘 부르게 되고...》

《오빠 또 룡말을...》

《아니, 이건 룡말이 아니야. 요새 소문이 자자하지. 정임동무가 가무단일에 가락이 오른다고... 정말 그전의 〈좋은 머느리감〉 류정임과는 영 판이아.》

《오빠두 참, 호호호...》

정임은 입을 찢으며 웃었다.

《좋은 머느리감》-이 말은 조민석이 자기를 부를 때 달던 호칭이었다.

소꿉동무인 그들은 차츰 철이 들게 되자 길가에서 만나도 알은체를 하는 정도로 지나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정임이 가무단에 든후에는 그와 본부사무소며 대회장에서 얼굴을 맞댈 기회가 잦아졌는데 그럴 때면 어쩐지 민석은 정임을 《좋은 머느리감》이라고 빈정거리곤 했다.

《동문 무대에서 노래부르기보담 좋은 머느리감으로서 어서어서 시집이나 가렴.》

이런식으로 자기를 비꼬아대기도 했는데 가벼운 롱말이라 걸으로는 가당찮은 말이라고 웃어넘기고 있었으나 그 말이 은근히 정임의 신경을 건드렸던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어른들의 말이면 의문을 느낄것도 없이 무엇이든 고분고분 듣고 순순히 좇는 자기에 대한 비꼬임이라는것을 정임이 무의식중에 알고있었기때문일가. 그런데 지금 새삼스레 그 말을 상기하니 가당찮을뿐더러 자기의 결함을 딱 짚은 《지당한》말로 느껴지니 야릇하다. 정임은 민석의 롱말이 우습다기보다 그러한 자기가 제물에도 우스워 다시금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요. 이제 〈좋은 머느리감〉은 호박꽃이 되고만것 같아요. 호호호...》

《하하하...》

정임의 그런 속마음을 알아선지 아니면 그저 덩달아선지 민석이기도 큰 소리로 따라 웃었다.

《헌데 방금 부르던 그 노래는 무슨 노랜데? 참 좋은 노래이군. 난 지금 한번만 듣고도 훌쩍 반했어.》

《〈희망의 길〉이란 노래예요.》

《흠, 제목부터 멋들어진데... 다음 공연에선 이 노래를 부르게 돼있니?》

《그래요. 오는 2월의 무대에 올리는데, 맘대로 불러지지가 않아서...》

《그래? 난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만큼 잘 부르면 됐잖아.》

《아네요. 아네요.》

정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이 통일의 노래를 부를 때면 2년전 여름 평양에서 들은 림수경학생이 부른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생각나지요. 그때 그의 노래가 얼마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잡았는지...한국의 노래가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가 있다는걸 난 처음으로 깨달은듯 했어요. 그런데 난 어떤가? 어렵도 없어요. 노래가 기법이나 목소리가 아니라는걸 지금처럼 가슴깊이 생각해본적은 없었지요.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어쩌면 그것없이는 이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할것 같아

요.》

평상시의 얌전한 그답지 않게 코등에 송골송골 땀까지 내배면서 힘주어 말하는 정임의 그 모습에 민석은 은근히 놀라움을 느끼고있었다.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는 정임은 어쩌면 소꿉동무 류정임과는 판판 다른 사람과 같은 착각이 일어 저도 모르게 정임의 얼굴을 눈여겨보았다.

《아이, 미안해요. 내가... 당돌한 말을 혼자 씨부렁거려서...》

말끝을 채 맺지 못한 정임이 수다스런 자신이 쑥스럽게 여겨져 그 고운 눈을 내리깐 그제사 민석은 그가 자기의 놀라움을 엉뚱한 뜻으로 오해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아, 아니, 뭘, 미안할것 없어. 그런 좋은 애기 같으면 난 더 많이 듣고싶군.》

《오빠 또 롱말을...》

정임은 썰쭉 웃었으나 민석은 오히려 정색했다.

《아니, 애길 들으니 난 도리어 동무가 부럽소. 림수경학생을 직접 만나고 자신의 마음의 거울속에 항상 그를 비치며 살고있는 동무가요...》

《그래요? ... 하지만...》

《하지만 뭘요?》

《그를 만나기전까지만 해도 내게 있어서 산다는것, 삶을 누린다는것은 이토록 무겁고 아픈찬것이 아니였어요. 그를 만나고 자신이 그와 같은 피줄을 타고난 한민족의 청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자문이 나를 사로잡은 그때로부터 나에겐 나의 삶자체도 벅차고 아픈찬것이 되지 않을수 없었지요.》

《그래, 그 아픈찬 삶을 힘자라는것 산다는것, 그건 네게뿐아니라 우리 제일청년들모두에게 부과된 과제가 아니냐?》

진성에 넘친 민석의 되물음에 순간 정임의 얼굴은 환히 피어났다. 우리모두에게 부과된 과제-이 이상의 공감이가 어디에 있으랴, 이 사람에게 같으면 가차없이 그 물음을 던질수 있을것 같았다.

《그렇지만 민석오빠, 내게 무얼 할수 있어요? 난 그저 평범한 청년일 따름, 너무도 무력한것 같아서...》

《정임이두 참, 그렇게 쉽사리 그 대답이 나오는데 아냐? 조국이 분열된지 반세기가까운 세월이 흐르는데 ...》

그렇지만 중요한것은 그 자문을 멈추지 않는거야. 자기에게 무얼 할수 있는가? 통일조국을 위해서 무얼 해야 하는가?

이 자문을 온 민족이 자신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로 되물었을 때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또...》

《또?…》

《네게는 노래가 있잖아. 지금의 네겐 이 통일의 노래를 잘 불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 너 그러기 위해 이렇게 힘쓰고있잖아…》

민석의 말 마디마디는 어찌면 정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둘이는 밤이 깊도록 얘기에 열중했다. 분열된 조국의 아픔을 자기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통일의 그날에 희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국땅의 청춘들, 그들에게는 이밤이 너무도 짧게 느껴졌다.

## 4. 하나된 힘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어있는 지바현 마구하리멧세에는 련일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밀려들었다. 그도 그럴것이 해방후 처음으로 북과 남의 유일팀이 무어져 이 대회에 나가게 되었던것이다.

북과 남-통일을 바라는 모든 인민들의 크나큰 지지와 기대속에 무어진 통일팀 《코리아》를 직접 맞이한 재일동포들의 기쁨 역시 하나였다. 총련과 《민단》할것없이 하나의 응원단을 무어 련일 열광적인 응원을 보냈다.

이 공동응원단에 속한 류정임은 매일 왕복 4시간의 거리를 씹없이 경기장에 다녔다. 벌써 옛새나 이런 나날이 계속되어있으나 젊고 활기에 찬 그는 피곤을 몰랐다. 더우기 오늘은 녀자단체결승전이 있는 날이라 아침부터 마음을 조이였다. 오늘도 정임은 다른 녀동무들과 마찬가지로 아롱다롱 빗갈고운 치마저고리를 입고 손에는 램블린을 들었다. 남자들은 바지저고리를 입고 가슴이며 허리에 빨간빛 푸른빛의 비단천을 둘렀으며 손에손에 땡파리며 징을 들었는데 그속에는 조민석의 얼굴도 보였다.

《정임아, 우리 오늘도 응원을 잘하자꾸나!》

《그래요, 잘하죠!》

민석이 한눈을 찔끔 감아보이며 말하자 정임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대답하였다.

경기시간이 가까와오니 동포응원석은 삽시에 뻐뻐해지고 장내는 바야흐로 소란해졌다. 그리고도 끊임없이 좌석을 찾아 속속 들어오는 동포들을 정임은 눈여겨보았다.

《정임아, 누굴 찾니?》

함께 짝을 무은 수화가 그런 정임에게 소리를 건다.

《아니, 뭐…》

말끝을 얼버무리며 정임은 돌아섰다.

(이젠 오시겠지…)

가슴속에서 되뇌이니 그날 아침의 일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그날도 여느날처럼 아침식사도 건느고 그냥 집을 나가려니 뜻밖에도 아버지가 거처방에서 신문을 보고있었다. 그리고는 《정임아》 하고 자기를 불러세우는것이였다.

순간 무슨 욕이 떨어질가봐 가슴이 덜컥한 정임이었지만 아버지는 《너, 통일팀 응원단이란 사람이 그 목소리는 뭐냐?》 하며 생닭알을 그냥 삼키면 목이 쉬었을 때 좋다고 어서 먹으라고 권하는것이였다. 련일의 응원으로 목이 쉰 딸을 생각해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임은 기뻛고 그것은 또 아버지 나름대로 딸이 하려는 일을 지지해주고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니 한층 기뻛다. 게다가 아버지는 《오늘은 아버지도 경기장에 나가 보겠다.》 하며 미소까지 짓는것이였다.

(그래, 구태여 찾을 필요도 없구나…)

이 넓은 객석의 어딘가에 아버지도 함께 앉았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으로도 정임은 못내 흡족했다. 북과 남의 처음되는 통일팀 《코리아》를 응원하는 이 하나된 목소리속에 아버지의 목소리도 합쳐져있다고 생각하니 정임은 절로 가슴이 흐뭇해지는것이였다.

《코리아 야! 코리아 야!》

《좋다 코리아 찻찻찻, 야!》

하얀 바탕에 조선반도를 푸른색으로 그린 기발 - 그 누가 이름을 단것은 아닌데 누구나가 《통일기》라고 부른 그 기발이 크게 휘날리자 우리 재일동포력사에도 전례가 없는 대응원이 오늘도 시작되였다.

북도 남도, 총련도 《민단》도 없었다. 《코리아》-오직 같은 피줄을 타고난 하나의 민족의 열광적인 성원이 있을뿐이였다.

이러한 뜨거운 성원에 선수들이 10배, 20배의 힘으로 화답을 하였기에 오늘은 녀자단체전 결승전진출이라는 빛나는 순간이 찾아온것이였다.

결승전진출! 북과 남으로 분열된 현실에서는 있을수 없었던 이 자랑찬 현실앞에서 관중들은 경기시작전부터 흥분을 금치 못했었던것이며 그러한 땡땡한 긴장감속에서 이날 결승전은 시작되였다.

하지만 11번째의 련승을 노리는 외국팀이 상대라 사실 이 경기에서 이길수 있다는 락천적견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그렇지만 꿈이 현실로 되는 날도 없지 않다는것을 관중들은 그 첫시합에서 깨달았다.

첫 대전에서 코리아의 유선수가 중국의 강자 등선수를 이겨낸것이다. 두번째 대전한 현선수 역시 이겼다.

《와-! 코리아 승리가 눈앞이다.》

공동응원단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았으며 응원석은 끓고 또 끓었다.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하나된 힘》을 크나큰 민족적 긍지감속에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아니나다를가 승리에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세번째 경기를 패하고말았으며 덩달아 다음 시합도 놓치고말았다. 결국 2대2의 비김으로 마지막 다섯번째대전이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또다시 유선수가 나왔다.

부풀대로 부풀어오른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다.

정임은 이젠 거쉬여진 목소리로 목청을 돋구었다.

《이겨라, 코리아!》

《야-!》

유선수가 한점을 넣었다.

《에그...》

중국의 선수가 한점을 돌렸다.

탁구대우를 날새게 오가는 하얀 탁구공을 쫓아 동포들의 눈길도 좌우로 흔들린다. 그 눈길은 절박하다못해 비장하기까지 했다.

《난, 난 이젠 볼수 없어요.》

정임과 한짝이 되어 응원하던 수화가 이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을 싸쥐며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흐느꼈다.

수화를 일으켜세우자고 고개를 돌린 그때 정임은 울고있는것이 수화만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일점을 따내고 또 놓치는 경기자체의 긴장감도 있지만 승패의 열쇠를 가지는 상대편선수와 겨루는 유선수를 차마 보지 못해서였다. 소박하고 애절한 처녀선수, 한민족의 하나된 념원을 짊어지기엔 그 어깨는 너무도 작았다.

북과, 남 그리고 해와-온 겨레의 그 파한 욕심과 기대는 아마 큰 중압이 되어 그를 누르고있었을것이지만...

그러나 정임은 울지 않았다. 아니 애써 울음을 참았다. 어쩐지 그에게는 지금 울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근거없는 생각이였건만...

하얀 탁구공을 치고, 받고, 또 치고...

어쩌면 정임은 그 강대한 선수를 상대로 승부를 겨루는 유선수에게서 단순치 않은 이 《현실》과 맞다들고있는 《자기》를 보고있었는지 모른다. (그가 지면 나도 진다. 무엇에? 무력한 자기에게, 이 현실에...)

유선수는 끈질기다. 2점을 빼앗기면 다음에는 3점을 따냈다.

숨막힐 정도로 파열된 그 응원에, 그 응원의

무거움의 중압감에 그는 놀리우는것이 아니라 사심없는 곧은 마음으로 화답을 한것이다.

쳤다!

정임은 아니 전체 관중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중국선수가 놓쳤다.

결정적순간은 뜻밖에도 당돌하게 찾아왔다.

순간 《와-!》 하는 환성이 온 경기장을 진감하였다. 그자리에서 경총 뛰어올라 한손을 올리며 기뻐하는 유선수.

《코리아 우승이다!》

《순복아, 잘했다!》

《만세! 만세!》

《정임아! 이겼어!》

정임과 민석은 저도 모르는새 얼싸안고 강충강충 뛰어올랐다.

《으윽, 흑흑...》

기쁨의 소리, 우승의 환성은 어느덧 울먹거림으로 흐느낌으로 변하였다.

민석은 손에 든 《통일기》를 크게 흔들었다. 푸른색 조선반도-하나의 조선이 허공에 유유히 휘날렸다.

《흑흑...》

정임의 두볼에도 끝내 눈물이 타고내렸다.

그는 저도모르게 혼자 노래부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련일의 응원으로 거실대로 거쉬여진 목소리였으나 아마 그 노래는 그가 이제까지 부른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다.

(수경아, 보렴. 하나된 우리 민족의 힘을...)

여름해별아래의 그 눈부신 수경이의 얼굴이 휘날리는 통일기와 겹쳐 눈물속에 아롱거렸다.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

정임의 노래소리는 어느덧 크디큰 관중들의 노래소리속에 융합이 되어 마침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대합창으로 번져갔다.

하나의 조국을 위해, 통일의 그날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나에겐 많은 할일이 있다. 나에도 할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수경이와 같은 피를 타고난 우리 민족의 딸이기에...하나가 되면 그토록 무궁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 한겨레 《코리아》의 딸이기에.

이제는 눈물에 모든것이 희미해지지만 하는속에서 정임은 굳게 확신했다.

# 발고랑

정동찬

이밤도 깊어  
달빛 이 흰한데  
나라에서 차려준 여든둘 생일상 물리고  
찾아준 동갑들도 돌아간뒤  
발머리에 나섰소

난알내에 한껏 취해  
비스듬히 한손 들어 쓸어보니  
내손에 만져지는 이마의 주름  
허허... 그네들의 말대로  
발고랑갈단 말이지

발고랑  
말만 들어도  
가슴 울렁이는 소리  
늙음에서 오는결가  
고생에서 오는결가

아서라, 고랑은 깊이 갈수록  
실한 열매 달리고  
결굴수록 젊어지는게 발고랑인줄 아오  
세월은 게으른 인생에 늙음을 주어도  
부지런한 농군에게 젊음을 주었소

그래 발고랑갈단 말이지...  
농군의 한생 돌이킬 때  
흐뭇하니  
쓸어볼 맛 있고  
짚이는 맛 있어야지

내 머슴시절 끝을 내고  
때절은 토스레 한벌 묻은곳도  
분여지의 이 발고랑  
협동화의 첫해 그 봄날  
우리 수령님 처음 뵈온곳도 이 발고랑

거쿨진 내 손마디에  
권연 한대 끼워주신 수령님

성냥불 그어주실 때  
정녕 농사군의 값을 알게 한곳도  
이 발머리였지

발고랑  
이걸 타고앉아 땡땡 소리치며  
난생 처음 흰칠하게 제집도 지어보았고  
농장의 대표로 뽐혀  
큰 회의에도 참석해보았소

내 젊음을 따로 가꾸지 않고  
내 인생을 따로 가꾸지 않아  
나의 소원이었고 행복이던 모든것을  
이 발고랑에서 무성하게 다 가꾸고  
이 발고랑에서 열매로 다 익혔소

발고랑아 내 삶의 수확은  
너에게서 다 거두어들였건만  
한평생 발고랑 타고 넘으신 수령님  
그날도 7월의 이 발고랑흙이 묻은 신발로  
이교장 떠나셨지

한평생 걸구며  
두고가신 발고랑에  
우리의 만복을 다 실어놓으신 수령님  
남기신 로고의 그 한자옥한자옥  
내 받들어 이고살려오  
저무는 이밤  
날더러  
그네들이 이른 말  
내 이마에 발고랑  
복받은 인생의 값높은 추억이니

내 한생  
들끝에 아득히 누운 발고랑  
이랑이랑 내몸에 안아 가꾸고  
이랑이랑 진정을 묻는 자격으로  
내 이마에 뼈젓이 이고 살겠소

# 잊지 못할 그날을 안고

동 희

지금도 5년전의 그날처럼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다. 생각도 깊이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내리는 거리를 걷노라니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속에서 맞이했던 잊을수 없는 그날이 방불히 떠오른다.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 생활은 날마다 찾아드는 기쁨의 연속으로 이어지는듯싶었다. 정말 그랬다.

우리에게는 설명절을 앞두고 새로 지은 청사에 이사를 가게 된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훌륭하게 꾸려진 새 창작실로 이사가게 된다는 기쁨은 로작가이건 신진작가이건 할것없이 아이들 마냥 마음이 붕 뜨게 했다. 헌법절이나 쇄고 나오면 이사를 하고 날아갈듯한 기분으로 설명절을 맞이하게 될것이기때문이었다.

그런데 기쁨의 연장속에 헌법절을 쇄고 나오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영광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이 삼가 올린 충성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친히 회답서한을 보내주시것이다.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동지들!**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90. 12. 27**

**김정일》**

이런 전설같은 일도 있는가? 보고 또 보아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흥벽을 뚫 두드리는데도 했고 행복의 구름우에 등실 실려 훨훨 날아가는것 같기도 한 심정이였다.

사실 그때는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당원들에게 친히 회답서한을 보내신 직후여서 설마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광이 차례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우리들이 쓴 미숙한 작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록음으로 들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우리 작가들을 시대의 도도한 흐름의 선봉대로 내세워주시는 그 믿음이 너무나 뜨거워 중성의 맹세를 삼가 올리였을뿐인데 친히 회답서한을 보내주시다니.

저마다 연단에 뛰어올라 열변을 토하는 감격의 목소리들을 듣노라니 또다시 가슴은 무뎡해오며 눈물은 자꾸만 샘솟아올랐다.

이해의 마지막명절이어서 설날을 앞에 둔 명절

이어서 누구나 다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새롭게 맞이할 기분에 잠겨있던 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하루의 피곤도 푸시지 못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더욱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그 시각 나는 과연 무엇을 했던가?

헌법절 그날은 새벽부터 눈이 내리였다. 소담한 함박눈이였다. 공화국기를 띄우노라 부산을 떠는데 푸름푸름 밝아오는 새벽공기를 가르며 짙 짙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아하게 울려왔다. 눈내리기를 기다렸던듯이 날밝기전부터 달려나와 솟눈우에 뒹굴며 《사진》도 찍고 눈사람을 만드는 꼬마들의 천진란만한 웃음이였다.

나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흥떠 일찍 서두르며 몸단장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그길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꽃잎처럼 날리는 함박눈을 손으로 받으며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해종일 걷고싶은게 그때의 나의 심정이였다. 솟눈우에 또렷이 새겨지는 발자국을 돌아보는것도 좋았고 꽃송이처럼 떨어지는 눈발속을 걸어가는것도 더없이 상쾌했다.

그길로 백화점에 들러 새형의 화려한 썰타를 사입고 사진까지 찍었었다.

평범한 전사들은 명절을 즐기며 행복의 순간들을 보냈는데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전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노라 잠시의 휴식도 없이 집무실에서 떠나시지 못하셨으리라.

아직 새해의 인사도 올리기전에 오히려 우리 전사들에게 먼저 설인사를 보내신 다심한 그 사랑!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불러주신 대해같은 그 믿음!

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우리 작가들을 일시적 동반자가 아니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동행자로 믿어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의 집대성인것이다.

그 사랑과 믿음속에서 5년이 지나갔다.

그 흐르는 세월과 함께 새로 이사와서 심은 분홍꽃아카시아며 오리나무들이 울타리를 덮으며 실하게 자랐듯이 우리 작가대오도 상상할수 없이 키가 자랐다.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불러주신 그 믿음을 안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로지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들의 의지를 담은 시대의 송가들과 장

중편소설들을 련속 창작해낸것이다.

소리없이 내리는 함박눈은 정원의 나무가지들에 아름다운 눈꽃을 피워놓았다.

하지만 어이 알랴. 평평 쏟아지는 함박눈을 맞으며 내 기쁨에 취해있는 이 시각도 경애하는 그이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은혜로운 사랑을 안겨주시는지.

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하이얀 솜눈우에 또렷이 발자국이 찍혀지었다. 어떤 풍파속에서도 끈은길만을 가려는 내 신념의 표적인듯 또렷한 발자국이였다.

그렇다. 달리는 살수 없는 우리들이다. 가없이 펼쳐진 저 하늘에도 드넓은 바다에도 비길수 없

이 뜨겁고 웅심깊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아닌가.

사나 죽으나 그이의 전사라는 공지로 하여 변함없는 한본새로 영원히 한길을 걸어갈것이다.

사랑과 믿음에는 반드시 충성과 효도가 따르는 법이듯이...

정녕 12월 27일, 그날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못할 날로, 전사의 도리와 의리를 깨우쳐주는 날로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나는 그이께서 불러주신 사랑과 믿음어린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며 걸음을 다우쳤다.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 너를 사랑한다

- 《천리마》 1 호 프락토르앞에서 -

김상조

그 어디 멀리 갔다가  
예 왔느냐  
기름진 대지 그 얼마나 갈아엎고  
예 고향집에 돌아왔느냐

안아보자 쓸어보자  
나의 살붙이-  
네 나이 마흔이 다 되어와도  
나는 어린애처럼 너를 사랑한다

망치로 두들겨만든 차체  
바줄과 줄칼로 연마한 축  
여럿이 마지막으로 단 조향륜  
운전칸우를 씌운 흰무명발...

그 어느 하나도  
무심히 바라볼수 없는 《생명체》  
나의 사랑, 《천리마》 1호 프락토르여  
너에게 부여준 뜨거운 숨결과  
높뛰는 맥박소리를 내 다시 듣는다

전후 재무지만 남은 빈터우에  
내 풀무로 불을 지피고  
호미와 탈곡기를 만들던 그 손으로  
프락토르부속품 하나하나의 도면을 뜨던 나날

정녕 남의 힘을 빌어  
너의 탄생을 맞았다면  
내 가슴 이다지 설레이지 않으리  
내 너를 바라보지도, 찾아오지도 않으리

네앞에 서기만 하면  
그날처럼 이 가슴 달아오르고  
공지로 뛸텐다  
너와 함께 부르던 자력쟁생의 노래  
이 가슴속에 가득차 울린다

내 손때 묻고  
내 입김 습배인 무쇠철마  
《천리마》 1호 프락토르여  
세월은 가고가도  
형형색색의 프락토르들 흐름선우에 태어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드림없는 신념의 산물  
강의한 의지의 결정체  
그날처럼 살라고 말없이 일깨워주는  
나의 영원한 길동무-  
너를 사랑한다!

# 대지의 삶, 대지의 노래

- 김남주의 죽음에 대한 몇가지 생각 -

강형철(남조선)

## 1. 흰눈은 쏟아지고

1994년 2월 13일 새벽, 그때도 흰눈은 쏟아졌다. 저 먼 우주공간으로부터 이곳 지구라는 별우로 세상은 고요했고 대낮에 버려둔 깡통도, 한낮에 내버린 모든 오물들도 흰눈에 목이 잠겨 영원한 침묵속으로 가라앉아갔다.

세상의 시인 김남주가 눈을 감던 순간 그결에선 그의 동지, 대지의 벗 박광숙이 오열하고있었다. 가지 말리고 살아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울부짖으며.

하지만 세상은 무관심했다.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인간은 죽은것이라고, 그렇게 인간은 스러지는것이라고 능력에 따라 소비하며 능력에 따라 착취할수 있는것이야말로 인간수성에 가장 적합한것 아니냐고 적자생존의 원리가 얼마나 그럴듯하며 승자의 기쁨, 승자의 희열이 얼마나 큰것인지 모르는 인간의 죽음이란 당연한 일이라고 폐퇴한 인간의 말로란 늘 그렇고 그런것 아니겠냐고...

그러므로 그 죽음우에도 흰눈은 어김없이 쏟아지는것이라고.

## 2. 세상이며 천벌을 받으리라

김남주의 병이 최장암이라는것이 밝혀졌을 때 한 시인은 말했다. 김남주를 만약 죽이면 세상이 천벌을 받을것이라고 10년동안 감옥에 가둬왔으면 됐지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필이면 최장암이냐고!

김남주의 죽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김남주가 누구이길래 그런 통곡이 튀어나오는것인가.

김남주의 생애를 읽어본다.

1946년 10월 전남 해남 출생  
1960년 삼산국교 졸업  
1963년 해남중학교 졸업  
1964년 광주일고 입학, 이듬해 사퇴  
1968년 전남대 영문과 입학  
1973년 반유신활동, 체포, 투옥.  
1심에서 징역 10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투옥.  
8개월만에 석방  
1978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전위조직인 민주투쟁국민위원회 가입

1979년 남민전 조직원으로 활동중 체포, 구속,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

1988년 형집행정지로 투옥이후 만 9년 3개월만에 석방

1989년 결혼

1994년 타계

이를 보면 그는 보통사람이 아니다. 이른바 보통시민으로서 산 시간이라곤 1989년이래 몇해뿐 전생애가 체포, 투옥의 생애로 점철되어있다. 그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지 않았다면 형기도 못채우고 죽음을 맞은셈이 된다.

그는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왜 그렇게 돌자갈밭 인생을 살았는가, 왜 한번도 《금관사》가 되어달라던 아버지의 비원을 들어주지 못했나.

그 대답을 그는 4백50여편의 시로 하고있다.

1974년 《창작과 비평》에 《재더미》 등 7편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한 이래 간행한 시집 《진혼곡》,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솔직히 말하자》, 《사상의 거처》, 《이 좋은 세상에》 도합 여섯권이 그것이다. 그외에 시선집 《사랑의 무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학살》, 옥중시선집 《저 창살에 해살이 1, 2》, 번역시집 《아침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등등과 산문집 《산이라면 넘어주고 강이라면 건너주교》, 《시와 혁명》, 번역서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자들》 또한 그 여섯권의 시집을 보충하고 그것을 새로이 확대해놓고있다.

그중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 답하고있는 다음의 시를 보자.

암흑의  
시대의  
시인의 일 그것은 무엇일까  
침묵 일가  
관망일가  
도피일가  
밀 모를 한의 바다 너두리일가

무엇 일가  
박해의  
시대의  
시인의 일 그것은  
짓눌린 삶으로부터  
가위눌린 악몽으로부터



잠든 마을을 깨우는 일

첫 닭의 울음소리는 아닐가  
옛사람의 무기  
창과 방패를 일으켜세워  
쳐라 등등등 복을 쳐  
나아가게 하는 일은 아닐가  
나아가 싸우게 하는  
전투에의 나팔소리는 아닐가

시인이여  
누구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싸움이 되어서는 안되는가  
시인이여  
누구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압제자의 가슴에 꽂히는  
창끝이 되어서는 안되는가

- 《시인이여》 전문 -

3련으로 짜여진 이 시는 시인의 사명에 대해 말하고있다. 암흑의 시대에 시인의 사명은 짓눌린 삶으로부터 가위눌린 악몽으로부터 사람들을 깨우고,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그 자신이 직접 싸움의 당사자가 되고 그 싸움의 칼이 될것을 주문하고있다.

그렇다면 그가 파악한 당대의 현실은 어떠한가. 《시인의 일, 시의 일》이라는 산문에서 직접 털어놓고있다.

지금 우리 민족은 그 자주성을 이민족에게 빼앗기고있고, 나라는 진정한 독립을 되찾지 못하고있고 조국의 반쪽은 외래침략군에 의해 점령된 채 분단의 고통을 당하고있고, 그 반쪽지역의 근로대중들은 외래침략자들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한통속인 지배계급에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등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빼앗김당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근로대중들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피와 땀의 결실인 로동의 성과를 그들에게 빼앗김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며 끊임없이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삶은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자주권상실문제와 소유관계에 의한 계급갈등문제가 중첩이 되어 가장 비인간적인 자리에 민족의 삶이 놓여있다는것이다.

그 현실에서 김남주는 때로는 나팔수가 되고 때로는 직접적인 전사가 되어 그야말로 온몸으로 온몸으로 뛰어들어살아낸것이다.

그런 그가 죽다니!

하지만 그것은 필연이었으리라! 육체의 세포를 녹여가던 최장암도 무서운것이였지만 억압과 착취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 근본악을 해결하

고저 몸부림치느라 치러낸 마음의 병은 얼마나 컸을것인가. 더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제 조건에 함몰되어 이웃에 대해 무관심 할수밖에 없을 때 그에게라고 비껴가지 않는 자본주의현실론리가 함부로 그명혼을 들쭉셨을 때 어떻게 버티었을것인가? 더구나 같이 문학을 한다는 동료들마저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실감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곤난해봐야 한다며, 자본주의 삶에 폭 절어져 시가 나와야 한다며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피준 일 없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를 죽게 만든 가장큰 원인은 그 모든 현실을 제대로 혁파해내는 조직을 만들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질책 때문이었으리라.

- ① 나 이 땅에 태어나고 40몇년  
나 력사와 현실에 눈을 뜨고 20몇년  
나 시를 쓰기 시작하고 10몇년  
외적에 대한 증오의 감성없이 하루도 살수 없었다  
외적과 손을 잡고 제 동포를 가두고 고문하고 살해하는  
미국사람보다 더 미국사람인 자들에 대한  
저주의 감정없이 하루도 살수 없었다

- 《아무래도 내 시는》 중에서 -

- ② 밖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내 가슴은 덜컥 내려앉고  
내 머리는 순간적으로  
체포  
감금  
고문  
새판  
투옥의 단어를 기계적으로 떠올린다  
(중략)  
아 언제 나는 언제 나는  
집에 돌아와  
문두드리는 소리에 겁을 먹지 않고  
밤의 잠자리에서 편히 쉴수 있을가  
  
안해가 울고있다 이불속에서  
젖먹이 아이를 꼭 껴안고

- 《악몽》 중에서 -

- ③ 땅우에 태어나서 나 하늘높이에  
리념의 기대 하나 세우지 못한다  
가난뱅이들이 부자들의 마을에 가서  
고자질할가봐 그런것도 아니다  
내 나이 벌써 마흔다섯이다

하늘아래 태어나서 나 땅우에  
계급의 뿌리 하나 내리지 못하고있다

부자들이 가난뱅이들 마을에 와서 행패를  
부릴가봐 그런것도 아니다  
내 나이 벌써 마흔다섯이다

하늘과 땅사이에 나 할 일이 없는가 이렇게도  
없는가  
까마득한 세월 10년전 그날처럼  
나는 이제 지하로 흐르는 물도 되지 못하고  
지상에서 먹고 살만한 동네에 살면서  
이런 말 저런 글 팔고 다닌다  
그것도 허가난 집회에서나  
그것도 인가난 잡지에서나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는가

- 《내 나이 벌써》전문 -

①의 시는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딪친 현실  
이고 ②의 시는 그 현실에 저항하다가 형집행정  
지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체포, 투옥의 공  
포를 그린것이고, ③의 시는 그러한 현실에 폭  
절어 움치도 뛰지도 못하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신랄한 자기 보고서이다.  
거기까지가 우리 시대 참인간 김남주가 도달했  
던 쓰라리고 쓰라린 현실이었다. 그 현실이 김남  
주를 죽게 한것이다.

### 3. 역사의 미래, 인류의 미래가 죽었다

김남주의 죽음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첫번째, 《위엄있는 인간》이 죽었다. 인간답게  
살자는 소망이 죽은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목》  
으로 우뚝 서있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해를 향해 사방팔방으로 팔을 뻗고있는 저 나  
무를 보라  
주름살투성이 얼굴과  
상처자국으로 별집이 된 몸의 이곳저곳을 보라  
나도 저러고싶다 한 오백년  
쉽게 살고싶지는 않다, 저 나무처럼  
길손의 그늘이라도 되여주고싶다

- 《고목》 전문 -

그 고목은 현단계 《인류의 죄》라고 할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철폐를 꿈꾸었으며 대신 진짜  
로동과 그 로동의 결실을 흰쌀밥으로 따뜻하게  
먹을수 있는 평등세상을 꿈꾸었다. 진정으로 자  
유로운 참세상을.  
현실의 인간들이 아무리 악착같아도 그 너머의

인간원형을 찾아내고 그 원형의 회복을 꿈꾸던  
사람이 죽은것이다. 그는 그것을 시로 쓰고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있네,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나는 벗이여, 사십년이란 내 삶의  
뒤안길을 머뭇거리며 돌아보지 않고  
의연하게 먼산을 바라보며 저승의 사자를 맞이  
할수 있을것 같네  
그것이 어떤 이름의 죽음일지라도 상관없이  
(중략)  
마지 못해 영위되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네  
억지로 가는 노예의 길이네

그러나 다만 억울한것은 벗이여(그대는 믿어주  
겠지)  
사랑의 팔로 너인의 육체를 단 한번도 안아보  
지 못하고 가는가 하는것이라네  
소위 저 세상으로 말이네  
다만 억울한것은 벗이여(그대는 고개를 끄덕여  
주겠지)  
세상의 모든 최악의 뿌리  
사유재산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하고 가는가  
하는것이라네

- 《죽음을 대하고》중에서 -

두번째, 진정한 통일 일군이 죽었다. 모든 고통  
과 슬픔이 분단이라는 현실구조에서 파생된다할  
때 그것의 철폐를 가장 뜨겁게 소망했던 사람이  
죽은것이다.

우방의 이름으로 건  
평화를 위한 유엔군의 이름으로 건  
(중략)  
이 땅에 허리 꺾인 내 누이의 땅에  
이방인의 군대가 들어와있는 한  
들어와 총을 메고 이 도시 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한  
나는 아니다. 고개 들어 조국의 하늘아래  
직립보행의 독립이 아니다

- 《고개 들어 조국의 하늘아래》중에서 -

《조국은 하나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든가 그의 수많은 시들이 모두 같  
은 생각, 같은 정서를 표현하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남주의 죽음은 이 땅에  
쏟아지던 성결한 미소가 사라졌다는 사실로 이어  
지며 이 땅에 살던 가장 따뜻한 인간의 죽음으로  
이 땅을 버티던 가장 용기있는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데 슬픔이 있다.  
《옛 마을을 지나며》, 《조선의 딸》, 《어머니》,  
《농부의 밤》 등등의 그런 시에서 보는 대지의  
원형질같은 인간의 시도 덩달아 사라진것이다.

결국 이 모든것을 종합할 때 우리는 근원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기 위해 몸부림친 정신을 잃고만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 4. 우리의 시, 우리의 문학이 죽었다

분명히 말해서 김남주는 단지 시인만은 아니었다.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변혁운동가로서의 풍모가 더 컸다. 하지만 변혁운동의 흔적은 현실에서 류동하고 그것의 실체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 대신 시는, 문학은 흔적으로 남는다. 그 흔적은 거꾸로 그 현실의 꼬리를 붙잡아 우리 앞에 데려다놓는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가 남긴 문학을 통해 우리 문학사적의미를 가늠해보아야 한다.

첫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그의 문학사적의미가 개항이래 윤동주, 신동엽 등 선지자적시정신에 닿아있다는 사실이다. 시의 정신을 단순한 정서의 토로에 두지 않았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곳에 몸을 두고 그곳이 지양된 사회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제시한 시인이다. 한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시로 풀어 가장 실감나게 보여준 시인이었다. 또한 그 폭압에 대해 자신이 직접 저항하고 싸워 마침내 이긴 시인이었다.

두번째로 생각할수 있는 일은 그의 시야말로 80년대, 아니 해방이후 우리 시문학의 총체였다라는 점이다.

그는 우선 농부의 말, 노동자의 말 그리고 일반민중의 말을 시로 부활시켜 우리 시의 영역을 넓혀주었으며 전사의 말, 증오의 언어를 시에 접목시켜 가장 정확한 저항시의 모범을 보였다. 그의 시어는 대지의 말 그대로였다. 그의 시를 대하다보면 대지 저 안창에서 울리는 소리가 무언지 깨닫게 된다.

또한 그는 시로써 이데올로기적금기들을 남김없이 쏘아부셨다. 특히 분단시대 이데올로기에 찌든 모든 대중들에게 《조국은 하나다》라는 말들을 통해 민족의 앞길이 무엇이고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여지없이 폭로했다. 또한 그는 철저한 금기사항이었던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체제의 근본 모순을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어김없이 폭로했다. 또한 폭로에 그치지 않고 반미자주화의 문제, 로동계급의 해방문제를 석연하게 부각시켜주었다. 결국 시로써 할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기능의 최대치가 무엇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것이다.

그는 광야의 신지자였고, 분단시대의 철조망을 걷어차며 진군하는 선봉대장이었으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맞받아친 반자본주의시의

척후병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시는 막힌 가래를 뱉고 마음껏 푸른 하늘의 공기를 들이마신것이다.

또한 그는 좁은 의미의 민족문학을 전세계적인 진보문학의 틀로 확장시켰다. 우리모두로 하여금 시의 시야를 전세계적차원으로 갖게 한 시인이다. 게다가 그는 우리의 고전문학을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문학유산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깨우쳐주었다.

그는 또한 진정한 문학주의를 가르쳤으며 가짜 문학주의를 통박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문학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었다.

예술지상주의 그것은 애초에  
이승은 떠남의 세계였고 현실은...  
그에게는, 예술지상주의자에게는  
문명은 파괴되어야 할 적이었고  
자학과 광기와 절망이 삶의 전부였다  
그에게는 나이도 없다  
예술이라면 제 애비도 몰라보는 후례자식이  
예술지상주의였다  
염병할! 그놈의 사후의 명성이란것도  
그에게는 부질없는 무덤이었다  
예술이라면 예술 아닌 모든것이  
저주해야 할 대상이었다, 쓰레기였다  
부르조아새끼들의 위선이, 거만이 구역질나서  
보들레르는  
자본의 시궁창 빠리 한복판에 악의 꽃을 키웠  
다  
랭보는 콤플 전사의 패배에 절망하여  
문명의 절정 빠리를 떠났다  
시에다 똥이나 싸라 침을 뱉고  
《대한》국민의 순수파들 절망도 없이  
광기도 자학도 없이 예술지상주의를 한다  
수석과 분재로 예술지상주의를 한다  
학식과 덕망의 국회의원로 예술지상주의를  
한다  
자르르 교양에 넘치는 입술로  
자본가의 접시에 군침을 흘리면서 예술지상주의를 한다  
예끼 송악한 사기군들  
죽으면 개도 안물어가겠다  
그렇게 순수해가지고서야 어디 씹을 맛이 나겠  
느냐

- 《예술지상주의》 전문 -

이 시가 말하고있는것은 단순히 예술지상주의 자들에 대한 통박만이 아니다. 이 시에는 앞서 말한 우리 시의 우리 문학의 풍요로움에 기여한 김남주의 풍모가 그대로 배여있다. 거침없는 말법(어법), 반복에 의한 강조, 근본적인 역사에 대한 심오한 지식, 통렬한 풍자모두가 섞여있다. 그것이 어디 이 시뿐이라!

그에게서 또 우리는 진술의 시학을 엿볼수 있

다. 거침없는 어법에 실려있는 벼락같은 진술 혹은 선언이 그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자가  
외적의 앞잡이 이고  
수천 동포의 학살자일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곳  
그곳은 어디인가  
전선이다 감옥이다 무덤이다  
도대체  
동포의 살해장에서 저항하지 않고  
누가 있어 한낮의 태양아래서 자유로울수 있단  
말인가  
누가 있어 한밤의 잠자리에서 편할수 있단 말  
인가

동지여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싸우지 않고  
압제와 착취에 시달리는 민중들을 옹호하며  
무기를 들지 않는다면  
혁명의 새벽을 어디서 찾을것인가

- 《살아남은자들이 있어야 할곳》 전문 -

에서 보듯 가장 정확한 본질을 가장 일상적인 어법으로 진술함으로써 한겨울 얼음이 깨지는 소리로 듣게 한다.

《학살1》, 《학살2》, 《학살3》등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그는 또한 억압과 착취가 있는곳에 시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어떤 기능을 담보해야 하는지 《시와 혁명》이란 글에서 소상히 밝혀줌으로써 향후 시의 진로를 제시하고있다. 시와 혁명의 변증법적관계를 풀어말하고있고, 시가 당파성에 립각해 대중의 감정과 사고와 의지를 혁명적으로 고양, 통일시켜 현실변혁의 물리력으로 전환시킬 방도를 제시하고있는것이다.

너무 급박하게 얘기하고만 끝이 되었지만 우리 문학의 주소, 우리 문학의 한계, 우리 문학의 나아갈길 모두가 김남주에게 있다.

물론 김남주의 성과가 우리 문학의 전부는 아닐것이다. 보다 정밀하게 따져보면서 더 이상의 실패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하는 일이 필요함은 두말할나위 없다. 또한 그가 거둔 성과를 더욱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일은 우리모두의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을 하고싶지 않다. 건디기 어려운 슬픔이 눈을 가린다. 흡사 짐승처럼 지르던 림종직전의 신음소리가 쟁쟁하다. 세상이 무섭도록 잔혹하다.

사는것이 그리도 힘든 일이었던가!

## 5.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리라

이젠 김남주를 묻어야 한다. 추운 땅을 파헤쳐 거기에 시신을 뉘고 이제 늙을 뉘어야 한다. 그가 할수 있었던 모든 일을 마친 지금 남은 일은 그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찾아 정성을 다해 이어받는 일이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김남주같은 시인의 출현은 당분간 (그것을 10년, 20년이라 해도 괜찮으리라) 고대할수 없으리란 생각이다.

모든 사상은 그 시대의 아들이란 말도 있거니와 그가 위치한 시대적조건이 가장 극랄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가장 극적으로 행동하면서도 거기에 시라는 장르를 어김없이 일치시켜 대응하였기때문이다.

누구의, 어떤 말이 그가 창출한 감동만큼 큰 울림을 만들수 있으랴. 누가 그 극악한 상황에서도 늘 공부하고 자신의 시적표현방식을 연찬할수 있으랴. 예지의 말, 폭로의 말, 진실의 말을, 저 대지로부터 끄집어내어 수천수만의 가슴에 뜨거운 불로 되돌려줄수 있으랴!

시와 삶의 가장 모범적인 일치, 시인이 처한 주객관적조건외 창조적변용 그리고 그 모든것을 담보해나가는 더없이 정결하고 더없이 단호하고 더없이 따뜻한 심성을 지닌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수 있으랴.

그의 글 《특별한 인간》에서 한 말이 떠오른다. 그와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들덕분에 만인의 생활이 꽃을 피우는것이다. 그들이 없으면 사람들의 생활은 시들고 쇠잔해버린다.

그들의 수는 적으나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숨을 쉬고 살수 있는것이다. 그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숨을 쉬고 살아갈수 없는것이다....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중에서도 핵심이고 원동력이고 소금속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반쳐오르는 설움으로 그를 밟으면서 우리들의 무관심, 무책임성, 무정견을 밟아야 한다. 제대로 밟음으로써 이웃과 세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회복하고 그 애정에 걸맞는 책임을 맡아 이를 수행하고, 흐릿한 생각을 지워 더욱 단호하게 더욱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모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해방된 인간으로 해방된 대지에 서서 저 대지의 시인, 대지의 말 김남주를 다시 불러내야 한다.

그의 죽음조차 망각의 대상일 때, 그의 죽음조차 추억과 잡담의 대상일때 우리 모두의 죽음은 다시 소생할수 없는 죽음이 될것이다.

내 안에 비수 하나 있었다, 그걸 꺼내  
독점과 폭정의 심장을 찾아  
밤의 거리를 헤매이던 시절이 있었다  
나에게는 한때나마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아 그무렵 내 나이는 팔팔한 나이  
《한국》과 전선의 이름으로 내 모든것을 바쳐  
싸워야 한다고 다짐할줄 알았던 좋은때였으니

그날밤 나는 얼마나 벅찬 가슴이었던가!  
 그것은 그러나 벌써 십여년전의 일이다  
 그날밤 나와 함께 밀폐된 방에서 투쟁의 칼을  
 세워놓고  
 승리 아니면 죽음을! 맹세했던 동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나는  
 그를 찾아 지금 무덤으로 가고있다, 그와 나란  
 히  
 비수를 품고 밤길을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신향식동지-  
 사형대의 문턱에 한발을 올려놓고  
 고개 돌려 그가 나에게 했던 말 그것은  
 죽으면 내 무덤에 잣나무나 한그루 심어다오  
 그뿐이었다  
 (중략)  
 그렇다, 이 나무는 동지의 나무다  
 민족의 나무, 해방의 나무, 밥과 자유의 나무다

사람들아 서러워말아라, 이 나무밑에서  
 죽음에는 나이가 없는 법이다, 력사에서  
 위대한것은  
 승리만이 아니다, 패배 또한 위대한것이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것 그것은 싸우는 일이니  
 그것을 다른데서 찾지 말아라  
 찾아라, 이 나무밑에서 칼과 피의 나무밑에서

- 《잣나무 나 한그루》중에서 -

그렇다, 이제 우리도 김남주의 무덤앞에 잣나  
 무를 심고 그가 말한것처럼 옹게 싸우고 옹게 살  
 았던 모습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그때 《혁명은 패  
 배로 끝나고》황금의 청춘을 징역살이로 보냈다고  
 슬퍼하던 김남주시인이 돌아와 이 세상 가장 그  
 억한 미소로 우리들의 등을 토닥여줄것이다.  
 《함께 가자》고, 길은 언제나 함께 가는것이라  
 고.

## 나는 오월이다

-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한 여성의 토설 -

허성훈

아파서 흘린 눈물이 아니다  
 겁나서 지른 비명이 아니다  
 피처럼 진한것이 불을 타고 방울방울  
 망국노의 상처를 아리게 파헤치며...

-오월이가 뭔가? 나쁜이름이다  
 오모리 요시꼬, 일본이름 좋다  
 부르는 일본이름에 대답을 안했다고  
 뺨을 치고 태머리 움켜잡을 때

-요시꼬에 대답을 안하면  
 목매달고 눈알뽑고 각을 뜯테다  
 일본처녀 될것을 담보 받으려  
 뽑아든 군도의 퍼런 칼날 목에 대일 때

힘으로는 못당해 짓밟혔을 망정  
 목숨을 내대이면 살릴 내 이름  
 뺏기고 일본처녀 돼버린다면

돌아가도 고향에 내설자리 없으리

오월봄날 그네터에  
 꽃이되어 피거라 나비되어 날거라  
 오르며 휘영청, 하늘에 꿈을 띄고  
 내리며 사뿐 복을안아 드리며  
 날안고 그네뛰던 어머니의 축복

끌려온 세상한끝 그 마굴에서  
 즈름 빨려 미를 뺏겨 내 시들어가도  
 티 앓힐수도 없는, 때 뼉일수도 없는  
 고향의 오월은 내 가슴에 푸르려...

앞내벌에 노고지리 저도 좋아 지종지종  
 담밑에 물앵두, 울장대에 오이꽃  
 오월로 가득찬 네 가슴속에  
 요시꼬가 끼여들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오월, 고향의 오월이었다

## 갈망 외 1편

동기춘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말하라, 분렬로 끊어진 림진강철교여  
이끼오른 침묵은 그 이끼로  
녹쫄은 레루장은 그 녹으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말하라, 분계선에 들어찬 나무숲이여  
신돌기 년륜은 그 년륜으로  
뒤엎킨 덩불은 그 덩불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말하라, 통일전에 쓰러진 무등산의 봉분이여

피빛의 잔디는 그 피빛으로  
눈물젖은 화환은 그 눈물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말하라, 기다림에 지치는 통일거리여  
잠못드는 창문은 그 불빛으로  
생리별 세월은 그 백발로

하늘가에 송엄한 만수대언덕이여  
통일의 광장에 기어이 모시자던  
수령님을 잃고서 땅을 친 통곡아  
말하라, 민족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 절박한 통일

반세기를 부르짖어  
하늘땅에 사무친 그 통일은  
민족아, 우리 모두  
아버이수령님을 북남3천리에 모시자고  
쏟아온 모지름이 아니었더냐

통일이라는 말은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신다는 뜻이였고  
남녘 항쟁의 거리에 떨어진 피는  
수령님을 모시고싶어 휘뿌린 몸부림이 아니었더  
냐

단일민족 원시조의 유골도 찾아주시며  
사대없던 고구려의 시조릉도 개건하시며  
통일국가 고려의 태조도 다시 안치하시며  
5천년 이 땅의 역사를 회고하신 수령님  
남녘하늘가를 더듬는 그 시선속에 비끼던 불이여

한생을 피어리게 바쳐  
찾으신 조국  
외세의 군화에 짓밟힌 그 절반이 있어  
아픈 분렬사를 한몸에 안으시고  
통일위해 바치신 그 로고로  
그만에야 심장을 멈추신 아버지

아아, 통일  
하루가 절박하다고  
나날이 더 절박하다고  
해를 넘기며 가슴뜯었지만  
누가 이렇게까지 될줄 알았던가

총대를 메고온 의용군출신들이여  
수십년을 감혀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이여

손자를 보고있는 해방동인들이여  
한피줄로 고통치는 민족이거든 누구나  
희여진 머리들고 말해보라, 아니 말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이 선해를 넘기리라고 생각했던가를  
그 일에 수령님까지 잃으리라고 생각했던가를

아무리 생리별이 어떻소 했어도  
수령님을 잃는 기막힌 일을 당하고보니  
문득 통일이라는 뜻이 허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 필생의 념원이셨기에  
민족이 가슴친 막심한 불효였기에  
분렬세력들 주리를 틀고  
7천만이 기어코 이룩할 통일

아픈 가슴에서 슬픔이 뒤번져 뿜는  
분노, 분노, 분노  
천근으로 들어앉는 통일의지여  
달라졌다, 갑자기 심각히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  
민족은 어제의 민족이 아니  
시대는 어제의 시대가 아니

비애의 바다우에 힘의 뜻을 올리라  
일어서자 통일어로, 7천만이 억천만이 되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따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결심따라

50년세월 소원한 통일  
아, 그 통일 애바르게 오는 날  
수령님령전에 비오듯한 눈물로  
때늦은 도리나마 하여야  
우리는 진실로 **김일성**민족이다

## 동 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의 유래를 잘 알고 그와 관련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풍습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여러가지 명절들이 많았다.

우리 선조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생활을 즐기며 화목을 이룩하기 위한 좋은 명절들을 만들고 뜻깊게 쇠는 훌륭한 풍습을 전해왔다.

음력설과 추석을 비롯한 여러 명절들은 우리 인민들이 즐겨 쇠었던 민족적인 명절이다.

동지는 년중의 마지막 명절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음력 11월을 동지달이라고 하였으며 그 달안에 드는 밤이 제일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동지날이라고 하면서 명절로 맞았다. 동지라는것은 겨울이 되었다는 뜻으로 옛날에는 동지를 한해의 첫달로 정하였던 시기도 있었다. 그리하여 동지날을 《아서(작은 설이라는 뜻)》라고도 하였다.

민간에서는 동지가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고 하였으며 하순에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다. 애동지가 드는 해는 그해 겨울이 춥고 로동지가 드는 해는 춥지 않다는 말이 전해져왔다.

기록에 의하면 동지는 고려시기에 처음으로 전해지고있으나 이미 오래전에 쇠여온 민속명절이라고 할수 있다.

고려시기 문인들의 시에는 팔죽을 놓고 읊은 내용이 여러편 있다.

《고려사》에는 주요민속명절로서 동지가 들어있고 왕궁에서 동지날에 대신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푼 사실도 전해지고있다. 특히 고려이전시기에도 음력으로 날과 달을 계산하였으므로 동지가 전해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고려시기에 동지를 명절로서 널리 쇠였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풍속화되어온 명절이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동지날을 특징짓는것은 음식이다. 동지날의 음식가운데서 빠질수 없는 독특한 음식은 팔죽으로서 특별한 철음식이었다.

팔죽은 팔을 푹 삶아 죽을 끓이는데 새알같이 만든 떡을 넣어서 쑀었다. 새알같이 만든 떡을 팔죽에 넣는다고 하여 그것을 새알심이라고 하였다.

지방에 따라 새알심을 《오그랑이》, 《도그랑이》라고 하여 동지팔죽을 《오그랑팔죽》, 《도그랑팔죽》등으로도 불렀다.

동지날 팔죽에 넣은 새알심을 자기 나이만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된것으로서 어린 아이들은 먹지 말라고 해도 자기의 나이보다 새알심을 더 많이 먹었다.

새알심을 자기 나이만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영양가도 높고 건강에도 특별히 좋은 특색있는 이 음식을 누구나 많이 먹으라는데서부터 생긴것이였다. 또한 동지에 팔죽을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전해졌다.

팔죽은 영양과 소화에도 좋고 계절음식으로서 만들어 먹을만한 별식이였다.

동지날을 상징하는것은 아니였으나 동지달에 흔히 차려먹음으로써 널리 알려진 음식으로는 랭면과 신선로를 들수 있었다.

랭면은 메밀국수를 김치국에 말고 돼지고기를 꾸미로 한것이였다. 랭면에서는 평안도랭면을 으뜸으로 쳤다. 옛날 《동국제시기》라는 책에 의하면 동지달에 랭면을 먹는데 대하여 기록하고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동지 앞뒤에 메밀국수도 특식으로 쳤다는것을 알수 있다.

신선로는 열구자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가지 고기에, 무우, 오이, 닭알, 전복, 해삼, 버섯, 미나리, 밤, 은행, 갓,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추가루 등을 넣어 함께 끓여먹는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독특한 고급료리이다.

이러한 음식들은 동지날이 아니라도 동지달에 흔히 만들어 먹었다.

팔죽은 별식으로도 좋고 철음식으로도 동지달에 먹어볼만한 음식이였다. 팔을 걷어들이고 찹쌀도 있는 때이라 사람들은 동지를 계기로 별식으로 만들어 즐겨먹곤하였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명절이 적었다.

겨울철에 민속명절이 적은것은 계절과 관련된 다. 겨울철은 오곡백과를 다 걷어들인 뒤여서 농사철과도 별로 관련되는 일이 적은 계절이며 또 날씨가 추워서 밖에서 특별한 놀이를 하기도 어려운 때이다. 그러므로 겨울철은 고되고 번잡한 로동을 많이 하여야 할 여름철과는 달리 농민들이 쉬는 때나 다름없었으며 이로부터 겨울철에는 특별히 명절로서 쉬는 날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오직 동지만이 다음날부터 해가 길어져가는것을 좋게 여겨 명절로 맞았다고 볼수 있다. 이로부터 동지는 바깥에서 노는 놀이는 없이 팔죽은 쑤어먹으며 즐기는 날로 정하였던것이다.

# 이해의 마지막 밤에

김석전

눈내리는 이 해의 마지막 밤  
가는 해를 바래우며  
축배잔을 든 동지들이여  
얼마나 많은 가지가지 추억들이  
이 잔에 비껴있는것이나

생각나겠지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피눈물속에 맞던 새해의 첫 아침  
장군님 보내주신 친필서한 앞에서  
우리 어깨를 들먹이던 그 순간이...

다름아닌 우리 모두가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임을  
불타는 심장들에 깨우쳐준 뜻이여  
그 뜻을 안고 한마음 한뜻으로  
장군님을 따라서 빛내온 이 한해

어려오누나  
수령님을 천만년 높이 모시려는  
장군님의 그 신념에 받들려 솟아난  
금수산기념궁전  
승엄한 주체의 최고성지가

어려오누나 이 밤  
끝까지 붉은기를 지키고  
끝까지 사회주의 길을 가리라는  
장군님의 의지를 만방에 선언하며  
굽이쳐 흐르던 조국해방 50 돛 경축시위

파도쳐 설레이던 당창건 50 돛 경축광장이...

원썩들은 봉쇄의 울가미를 조이고  
자연마저 횡포한 광란으로  
우리를 질식시키려 했건만  
오히려 더 강해진 조선  
승리자의 탑 당창건기념탑을 일떠세워  
세상을 놀래운 내 나라 내 조국!

아, **김정일** 장군님만 계시면 이긴다는  
불타는 심장의 노래로  
시대를 달궜온 나날이여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들의  
그 충성 그 효성으로  
세기를 비약하며 달려온 1995 년이여

하많은 사연들로 엮어진  
이 한해를 다 담을수는 없겠지만  
들자 동지들!  
이 해에 우리 간직한 신념  
이 해에 우리 깨달은 진리  
그것이 붉은 피로 이 가슴에 젖어들게

들자 축배의 잔을 높이 추켜들자  
오늘처럼 우리는 이기고  
오늘처럼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리니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이 땅에서  
승리의 축배는 언제나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이다! 해가 가고 또 해가 가도...